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7. 3. 28.(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윤인석(위원장), 신동원,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한태식 (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록

【심의사항】

1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 등록	
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문화재 등록	
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문화재 등록	
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문화재 등록	
5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문화재 등록	
6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현상변경	
7	사적 제465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	
8	등록 제302호 「부산 송정역사」 현상변경	
9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 변경	

【검토사항】

10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문화재 등록 검토	
11	「고령 관음사 신중도」 문화재 등록 검토	
12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문화재 등록 검토	
13	「천로역정 목판」 문화재 등록 검토	
14	「천로역정」 문화재 등록 검토	
15	「조선요리제법」 문화재 등록 검토	
16	「만국사기」 문화재 등록 검토	
17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 문화재 등록 검토	
18	「광주 관덕정」 문화재 등록 검토	
19	「충주 구 조선식산은행」 문화재 등록 검토	
20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21	「구 서산부인과 병원」 문화재 등록 검토	

【보고사항】

22	근현대 문화유산 동산분야(민족종교, 교육)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23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분야별 세부 등록기준(안) 보고	

1. 「천주교 둔율동 성당」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천주교 둔율동 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천주교 둔율동 성당」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7.1.24.)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함
 - 등록 예고일 : 2017. 2. 15.~2017. 3. 16. (문화재청 공고 제2017-64호)
 - 등록 예고기간 : 등록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등록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천주교 둔율동 성당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둔율동)
 - 소 유 자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516.36㎡
 - 건립시기 : 1955년
 - 구 조 : 벽돌 조적조 / 목조트러스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10. 27.)>

- 문화재위원 ○○○
 - 1929년 나바위성당에서 분리되어 군산 본당으로 설립된 성당으로, 원래 일제강점기에 세웠던 목조 성당건물이 있었으나 소실되고 1955년에 현재의 건물로 신축하였음.
 - 건물 내부는 최근 원형과는 다른 형태와 재료로 마감되어 있으나, 천정 위의 지붕구조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벽돌조적과 목조트러스가 온전하게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형이 유지 관리되고 있음.
 - 성당 신축공사 당시의 성도들의 헌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건설지 등 기록과 함께 관련 도서와 자료 일체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여겨짐

심 의 사 항

○ 문화재전문위원 ○○○

- 1955년 신축된 둔율동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에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건축기술을 따르지 않고, 전 시기인 일제강점기의 건축양식(조적식 구조와 목조트러스 등)을 따르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물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근대문화의 상징 공간 중 한 곳인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축된 본당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근대건축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음)
- 또한 본당신축 당시 기록을 잘 정리하여 ‘축성기’ 기록물로 잘 보존하고 있고, 설계자가 분명한 당시 건축설계도면이 함께 남아 있어 당시 건축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등록할 경우 이들 자료를 건물과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시기에 건립된 천주교 성당과 비교해 둔율동 성당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최초 건립 단계에서 신부에 의해 직접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현재까지도 실존 건물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 등록문화재와의 차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현재의 성당 벽체가 시멘트 몰탈로 치장되어 있으나, 최초 건립 시에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 건축재료(장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슬러지 벽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또한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신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을 통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

마.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 군산 둔율동 성당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주교 둔율동 성당 (구) 군산성당

2. 용 도 : (현) 천주교 성당 (원) 천주교 성당

3.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4. 소유자 : (제)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목조트러스
- 준 공 일 : 195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516.36㎡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 7. 8.)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29년 나바위성당에서 분리되어 군산 본당으로 설립된 성당으로 1961년 11월 행정구역명에 따라 둔율동 본당으로 개칭되었다.
- 원래 일제강점기에 세웠던 목조 성당건물이 있었으나 소실되고 1955년에 현재의 건물로 신축하였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외관은, 과도하지 않은 뽕족 아치창으로 고딕양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탑부의 창과 주출입구의 아치는 반원형 아치를 하고 있고 건물 전체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수평성이 강한 돌쌓기가 외부를 마감하고 있고 부속벽 또한 피나클(소침탑)을 두지 않아 로마네스크의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부는 매우 퇴락하여 최근에 개조하였는데 원형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재료로 마감되어 있다. 하지만 천정 위의 지붕구조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벽돌조적과 목조트러스가 온전하게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형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성당의 사무실에서는 1955년 신축공사 당시의 건축설계도(許鋁 建築事務所 作)와 건축기, 건축허가서류 등, 건축 관련 도서와 자료 일체가 보관되어 있어, 1950년대 이 지역의 건축설계, 공사 관련을 파악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통상적인 가톨릭 성당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군산지역 둔율동 언덕 위에서 오랫동안

안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유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성당 내에 별도의 역사전시실과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어 지금까지 보관되어 온 자료들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영인작업과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 한국 가톨릭 역사의 사료와 한국 근대건축 건설사의 자료로서 잘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강원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 한국전쟁 직후 미군이나 한국군대의 원조를 받아 축성된 성당은 다수 있어 등록된 문화재가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헌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건설지 등 기록과 함께 남아 있는 경우로서는 드문 사례라고 여겨진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따라서 성당건물과 함께 관련 도서 및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산 둔율동 성당 및 축성관련 서류” 등록하여 지역사 및 한국근대건축 기술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신청한 둔율동 성당은 군산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5년 신축된 군산 최초의 성당건물로 현재 군산 시내 9개 본당의 모태 성당이 되었다.
- 1900년부터 본당설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29년 신자수가 250여 명에 이르러 드망즈 주교가 김영구 신부를 나바위 성당 보좌신부로 임명하여 군산본당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 1930년 둔율동 군산 보통학교 옆의 대성원을 매입하여 성당으로 개수하고 부속건물을 사제관 및 기타시설로 사용하였다. 1931년에는 군산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군산 천주교회로 불리웠고, 초대신부로 김영구 신부가 부임하였다.
- 1944년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마련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1955년 8월 현재의 성당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현재 당시 공사에 관련하여 축성기와 설계도서가 함께 보존되고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축성기에 의하면

대지조성 : 1954년 8월 7일 ~ 1954년 12월 6일

건축면적 : 176평 (1층 146평, 지하 30평)

건축설계 : 허만 (남산동 허만건축사무소), 기본적 개념은 서정수 신부

건축주 : 서정수 (7대 주임신부)

설 계 비 : 19,000원 (성전 15,000원, 사무실 4,000원)

건축허가 : 1955년 3월 29일

공사착공 ~ 준공 : 1955년 3월 11일 ~ 1955년 8월 16일

강 복 식 : 1955년 8월 17일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성당건물은 구릉지 상부에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였으며, 20여 단의 계단을 통하여 진입하도록 계획하였다.
- 로마네스크양식의 조적식 건축물로 본당 내부를 기둥이 없이 하나의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하고, 진입부에 정방형 평면의 전실을 두고 전실의 상부에는 종탑을 두었다.
- 본당 후면으로 본당보다 조금 작게 사제관을 덧붙여 만들되 건물내부에서 연결되지 않고 외부로 돌아가도록 처리하였다.
- 건물 중앙에 위치한 전실종탑은 정방형 평면을 좀차 좁혀 3층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반원형 아치를 이용한 8각형의 첨탑을 만들어 성당의 상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건물의 정면 1층 전실은 커다란 반원형 아치(중앙 키스톤에 준공년도 기록)로 구성하고, 2층은 스테인드 그라스 로 장식한 원형창을 두었으며, 종이 위치한 3층에는 반원형 아치 쌍창을 두었다. 건물 전면 외벽에 천주교에서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A’ ‘O’ 글자를 돌출시켜둔 것도 독특하다.
- 1955년 준공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 구조체를 만들고 마감하였었지만, 이후 벽돌외부로 인조석을 덧대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 건물의 양 측면은 12 베이(Bay)로 구획하고 측면현관을 제외한 각 베이마다 첨두형 아치 형식의 기다란 창호를 배치하였다.
- 지붕은 왕대공 형식의 목조트러스 위에 널판을 대고 그 위를 함석으로 마감하되 거멸접기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5년 신축된 본관건물은 그 형태는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나 외부마감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내부는 최근 리노베이션 공사를 통하여 현대식으로 개조하였다.
- 건물의 상태는 관리를 잘하여 큰 손상이 없이 관리되고 있고, 지붕속 목조트러스 역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주임신부님과 신도들은 본 성당이 군산에 세워진 최초의 성당이라는 점에서 문화재 등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등록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관리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 군산 원도십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근대문화유산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본당에서 주변으로의 시경관이 좋은 편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당의 본당으로 건축된 건물로 현재도 성당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활용계획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원도십과 가까이 위치한 본 성당에는 김대건신부님의 유해를 비롯한 성자들의 유해 및 기타 성당의 역사자료들이 많은 편이어서 근대군산 역사자료와 연계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전라북도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성당은 없다.
전주 전동성당과 익산 나바위성당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 어은공소(등록 28)와 수분공소(등록 189)가 등록문화재임.
- 충청남도 : 성당 2개소와 공소 1개소가 등록문화재임
동문동 성당 (등록 321), 강경성당 (등록 650), 상흥리공소(등록 338)
전라남도 : 성당 3개소가 등록문화재임
노안성당 (등록 44), 함평성당 (등록 117), 소록도 병사성당 (등록 659)
- 이들 문화재 성당/공소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것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건축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강경성당의 경우는 현대적 구조형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유로 등록된 것임.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 신청한 둔율동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신축된 건물로 외형으로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마감은 바뀜) 있음.
 - 일제강점기 이후 5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는 시대적 지역적 건축특성을 담고 있는지 혹은 당대 역사적 사실/인물 등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성당건물은 한국전쟁 이후에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건축기술을 따르지 않고, 전시기인 일제강점기의 건축양식(조적식 구조와 목조트러스 등)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물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다만, 근대문화의 상징 공간 중 한 곳인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축된 본당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근대건축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음)
 - 또한 본당신축 당시 기록을 잘 정리하여 ‘축성기’ 기록물로 잘 보존하고 있고, 설계자가 분명한 당시 건축설계도면이 함께 남아 있어 당시 건축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등록할 경우 이들 자료를 건물과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정면중앙에 반원형 아치로 팔각종탑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른 성당과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군산 둔율동 성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둔율동 성당은 1915년경 군산 공소(둔율동 군산보통학교 옆)로 시작, 1931년 1월 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1944년에 현재의 부지로 옮겨 오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교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1954년 7월 17일 새로운 성당 신축 계획을 세운 후 1955년 3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1955년 8월 17일 준공 되었다. 새로운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성당 내 보관되어 있는 ‘성전신축기(聖殿新築記)’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1955년 둔율동 성당의 준공에 맞춰 성금모금, 공사비, 공사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속에는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가 직접 프리핸드로 성당의 정면 등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둔율동 성당은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一자 형태의 바실리카식 형식으로 건축되었다. 정면 중앙부에는 첨탑을 높이 세웠으며 상부에는 반원 아치의 창호, 하부에는 장미창을 설치하였고 출입구 상부에는 반원아치로 장식하였다. 또한, 첨탑 상부에는 동판을 얹은 종탑부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8개의 갤러리 아치를 두었다. 성당의 벽체는 시멘트 몰탈로 치장되어 있으나 이는 1960년 외벽 마감 공사를 통해 변경된 것이며, 본래는 인근 장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슬러지 벽돌(내화벽돌)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신도들이 슬러지 벽돌의 색상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어 그 위를 시멘트 몰탈로 치장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부 벽체에서는 과거 벽돌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후·좌·우벽면에 설치된 첨두아치의 창호 역시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성당 내부의 예배공간은 네이브, 아일 구별 없이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초 건립 당시에는 입구부분에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2층 발코니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단 뒤쪽 벽면에는 3개의 반원아치와 이를 받치는 기둥을 돌출시켜 장식하였으나 1971년 내부 수리 과정에서 모두 제거하고 현재와 같이 치장벽돌로 마감하였다. 성당이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을 이용하여 제단 하부에 반지하층을 두어 사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내부 바닥은 나무 바닥에서 인조석 물갈기로 교체되었고 천정 역시 평천장에서 현재와 같이 좌, 우 양측을 2회 굴절한 형태로 바뀌었으나 지붕구조는 당초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후, 성당 및 종탑 지붕 동판 교체, 방수공사 등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건립 당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둔율동 성당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 중의 하나인 외벽의 마감재(슬러지 벽돌)가 변형되었고 내부구조 및 마감재는 수차례 교체, 수리 등을 통해 원형의 모습이 다소 훼손되었다. 다만, 현재 계속해서 성당으로 사용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성당 측에서는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향후에도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과거 서양 및 일본인들이 아닌 지역민들에 의해 직접 건립된 성당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시기에 건립된 천주교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여러 지역에 걸쳐 다수 존재한다. 이들과 비교해 둔율동 성당이 갖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

지만, 최초 건립 단계에서 신부에 의해 직접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현재 까지도 실존 건물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 등록문화재와의 차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현재의 성당 벽체가 시멘트물탈로 치장되어 있으나, 최초 건립 시에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 건축재료(장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슬러지 벽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또한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신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을 통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군산 둔율동 성당’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근대 2017-03-02

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7.1.24.)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함
 - 등록 예고일 : 2017. 2. 15.~2017. 3. 16. (문화재청 공고 제2017-64호)
 - 등록 예고기간 : 등록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등록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0-1번지
 - 소 유 자 : ○ ○ ○
 - 수 량 : 8동(안채 2동, 곳간채 2동, 중문채, 행랑채, 대문, 문간채)
 - 면 적 : 2,112㎡
 - 건립시기 : 1880년대~1900년대
 - 구 조 : 목구조, 한식기와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1.15.)>

- 문화재위원 ○ ○ ○(근대건축)
 - 구한말 호남의 5대 지주 김종익, 문재철, 현준호, 김충식, 조희경 가옥 중에서 유일하게 이 조희경 가옥(본 신청가옥)만이 옛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차남의 집은 남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 다른 관계로 등록신청하지 못함)
 - 영남지역의 집성촌 문화재, 민속마을들과 비교하여도 그 가치와 보존상태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유구이며 건축구법의 성격 등의 요건으로 볼 때,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지방지정 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대상으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조선 말기인 1880년대에 건축된 가옥으로 사랑채, 안채, 중문간채 등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상류주택의 형식을 보여주는 외에 당시 호남지역 부농의 가옥으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존하는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근대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진사택의 경우 근대시기 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근대 한옥 의원의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일한 경내에 위치한 참봉택은 건립 취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으므로 시·도문화재자료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음

마.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일곽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고택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구)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2. 용 도 : (현) 주거 (원) 주거+병원(부분)

3.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0-1 번지 외 5필지

4. 소유자 : ○○○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0-1 번지)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구조, 한식기와
- 준 공 일 : 진사택(1880년대) / 참봉택(1903년)
- 수량 및 면적 : 일곽(8동) / 640.51㎡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11.15.)

<문화재위원 ○○○>

1) 개요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의 본관은 창녕으로, 그의 18대조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영광으로 유배된 것을 계기로 대를 이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영광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문이다.

19세기 후반에 전북 홍덕, 용안의 현감을 거쳐 법성진 수군첨 절제사를 지낸 조병무가 선대로부터 기거하던 이 터에 현재의 가옥들을 건축하였다. 그 아들 조강환(1851-1910)은 1891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비서원승을 지냈으며 한말에 예조참판, 홍문관 부제조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한일합방 직전에 울분으로 병사하였다. 조병무에게는 장남 조희창, 차남 조희경, 삼남 조희양이 있었는데 장남은 요절하였다. 조병무의 차남 조희경(1876-1938)은 1902년 성균관박사로 제수되었고 한일합방이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후 (주)조일비누 설립(1918), 영광수리조합장(1923), 영법전기주식회사(화력발전소) 설립(1925) 등 지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일에 매진하였다. 조희경의 동생 조희양도 15세 때 진사에 급제하여 이후 군기창 기사로 근무하였지만 그 역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낙향하여 의병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남 조희창이 요절함에 따라 차남 조희경의 아들 조선헌이 대를 잇게 되는데 그는 1913년생으로 신간회 자금조달책, 해동은행 인수, 조선일보 인수 상무 취제역, 동아일보 창립발기인, 경성방직 창립발기인, 초대 전무취제역, 조일비누공업 인수, 소작료의 평봉을 초기에 시행한 개명지주로서 지역사회에 발전과 근대화에 열정을 쏟았던 인사이다. 조선헌의 아들 조영규는 1913년생으로 제헌국회의원을 거쳐 제3대, 4대, 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조영규의 아들 조기상은 제11대, 12대 국회의원과 정무장관을 지냈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가문이 생활하였던 고택이 19세기-20세기 초에 연이어 지어지며 문중 주택군을 형성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880년대에 조병무가 본래의 안채를 지었고 여기에서 그의 아들 조강환이 같이 기거

하다가 강환의 큰아들 조희창이 이 집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 분가하는 조희경, 조희양을 위하여 두 채의 집을 인접대지에 건축하였다.

따라서 세 집의 안채와 사랑채 등의 규모와 평면구성은 비슷하다. 다만 장남(조희창)의 집은 다른 사람 집의 사랑채를 매입하여 안채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차남, 삼남의 안채와는 다른 평면을 하고 있으며 후에 지은 두 집의 안채 평면구성은 고패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가옥들의 일부는 1970년대에 병원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으며 공간은 한 때 여인숙으로 활용한 때도 있어 시대에 따라 주거의 활용변천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빈집 상태의 기간이 있었으나 정기적 관리에 의해 대체적으로 건물의 상태와 건물배치의 관점에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가구 및 생활도구도 오전하게 보전되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소유주와 지역민의 지속적 관리로 건물의 유지와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구로서 마을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소유주의 열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은 아주 높음.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구한말 호남의 5대 지주 김종익, 문재철, 현준호, 김충식, 조희경 가옥 중에서 유일하게 이 조희경 가옥(본 신청가옥)만이 옛 모습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차남의 집은 남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 다른 관계로 등록신청하지 못함)

영남지역의 집성촌 문화재, 민속마을들과 비교하여도 그 가치와 보존상태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유구이며 건축구법의 성격 등의 요건으로 볼 때,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지방지정 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대상으로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신청된 8채 (유구의 근대성에 대하여 고찰하자면 대지 남쪽 도로에 면해 있는 근대식 2층 건물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①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② 영광 창녕 조씨 관해공 가옥 일곽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신청한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영광군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880년대에 조병무가 건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안채 상량문에는 융희3년(1909년)의 목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병무대에 초창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조강환이 새로 수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처음 건축할 당시에는 장남택이었던 본 가옥만 있었으나 후대에 조강환의 둘째 조희경과 셋째 조희양을 위하여 두 가옥을 지어 물려줌으로써 세 가옥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었다. (삼남집 참봉택 안채 상량문에 隆熙3년 1909년 기록) 그리고 장남인 희창이 요절함에 따라 본 가옥은 둘째인 희양의 아들 조설현에게 물려받게 되었다.

- 그렇지만 현재는 둘째 가옥은 없고, 장남택인 본 가옥과 이웃한 셋째 가옥(일부 안채와 공간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창녕 조씨 가문의 가계를 승계하였던 조설현은 물려받은 토지자산을 산업자산(조일비누)에 투자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 조선시대 말기에 건축된 상류가옥으로 당대의 지역적 건축특성과 생활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김광언의 논문에 의하면 본 가옥의 안채는 남의 사랑채를 매입하여 안채로 개조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는 편의상 조씨네 집안에서는 장남의 집을 진사택, 둘째네 집을 박사택, 셋째네 집을 참봉택이라 부른다 함)

- 해방 이후 한국전쟁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고, 1979년에는 큰 가로에 면한 곳을 병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안채 공간을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간적 변용이 부분적으로 있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문간채 상량문에는 1975년으로 기록)

- 1990년대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건물의 멸실되었고, 지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배치

전체적으로 본 가옥은 동서가로의 북쪽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으며, 1975년에 건축된 대문간채와 대문간채를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사랑채와 바깥마당이 외곽부를 구성하고 다시 一자형 중문간채와 공간채를 지나면 ㄱ자형의 안채가 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 안채

안채는 정면 7.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겹처마) 건물이다. ㄱ자형 평면으로 부엌(2칸) 안방(2칸) 대청(2칸) 작은방(1칸)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부엌 앞쪽으로 정지방(2칸)과 1.5칸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여 돌출시켰다. 기본적으로 조선말기 호남지역 안채인 一자형 평면에 정지방을 앞으로 돌출시켜 특이한 평면을 구성하였다.

중양 대청 후면에 위치한 퇴칸에는 상부에 감실을 만들어 위패를 모시고 제구를 보관하고 하부는 골마루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방과 건넌방의 후면 퇴칸에도 역시 골방을 만들었으며, 특히 부엌 상부 다락방으로의 출입문을 안방의 후면 퇴칸에 마련한 것이 특이하다. 조선후기 수납공간을 비중을 넓히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엌은 다른 가옥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상부에는 부분적으로 다락을 설치하였다. 외부에 접하는 서측면과 배면 상하부에 살창을 설치하여 환기와 통풍을 고려하였다. 부엌 뒷마당에는 후에 만들어진 듯 2칸의 목욕공간이 있는 것도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면 2열의 모든 기둥과 대청 후면 2열 기둥을 모두 원기둥을 만든것도 다른 가옥에서는 볼수 없는 것인데, 김광언이 언급하였듯이 다른 가옥의 사랑채를 옮겨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사랑채

정면 4칸 측면 2.5칸 규모의 팔작지붕(겹처마) 건물이다. 일자형 평면으로 현재는 전체적으로 배면으로 약 반칸 정도 증축되어 완전한 겹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원래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전후에 퇴칸이 있는 평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 2칸과 서쪽의 2칸의 간사이를 다르게 한 것이 특이하다. 병원 입원실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마루방을 온돌방으로 고치고 겹집으로 만드는 등의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라 평면과 지붕가구 구조형식이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

○ 중문간 행랑채 및 곳간채 등 부속건물

정면 4칸 측면 1칸의 중문간 행랑채(우진각지붕)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곳간채(맞배지붕)는 서로 이어져 있지만 공간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중문간행랑채의 동쪽 2칸은 하인들의 거주공간이고, 서쪽 2칸은 출입공간으로 안채쪽 내외담(현재는 허물어짐)과 함께 내외공간 구획을 위하여 끼어 들어가도록 하였다. 곳간채는 본 가옥의 가장 특징적 공간 중 하나로 김광언의 기록에 의하면 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며, 그에 따라 서쪽 1칸의 살창은 나무가 아니라 철재로 만들어져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세기 후반에 신축된 본 가옥은 건축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가옥을 구성하고 있던 부속건물들과 담장 등이 이미 멸실되거나 퇴락하여 전체 배치가 예전과는 많이 변형된 상태이다.
- 근세에 들어 가로변에 면한 본 가옥 사랑채 영역을 병원으로 사용한 까닭에 기존 대문간채와 사랑채 부속건물 등이 멸실되기도 하였고, 사랑채는 무리한 증축을 한 까닭에 공간이 많이 변형되고 구조형식을 변경하여 건물 일부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 안채의 경우는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까래와 부연 등 건물의 많은 부재가 노후화되고 부식된 상태이다.
- 본 가옥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3남집(참봉택)의 안채는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당시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소유자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한 편이다. 현재 가옥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까닭에 전체적으로 보수 수리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문화재 등록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본 가옥에 대한 보존의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 본 가옥이 위치한 영광읍은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IC가 5km 인근에 있고, 광주광역시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또한 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알려져 있는 범성포가 10km 정도 떨어져 바다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 다만 영광읍내에 문화재가 거의 없고 영광향교가 시도유형문화재 125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본 가옥이 위치한 동서가로(현암길)가 일제 강점기에 영광읍내의 주요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비교적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는 편이고,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기도 하다.
-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가옥(진사택)과 함께 박사택, 참봉택이 함께 어우러져 읍내 중앙에 전통적 경관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현재 박사택과 안

채만 남고, 참봉택은 안채와 곳간채만 남아 있어 그러한 경관이 사라지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제출된 보존활용계획서에 의하면 본 가옥은 숙박시설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본 가옥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한옥체험과 향토음식 체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영광의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숙박시설로서 한옥스테이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이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전라남도에서 가옥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관련 있는 가옥, 다른 하나는 일본식 가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기에 활동한 우리나라 인물과 관련된 가옥, 이렇게 구분되는 세 가지 유형의 가옥은 모두 당대 건축기술과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 조선 말기에 건축된 전통한식 목조가옥 대부분은 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인 중요민속자료 혹은 지방지정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통한식 목조가옥 중에서 도심지(읍내 등)에 위치한 경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개발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지정문화재가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 본 가옥의 경우도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가옥은 아니지만 가옥의 주인이었던 조희양(1881~1931)은 일제강점기에 영광, 나아가 전남의 손꼽히는 대지주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30년 현재 전남에서 100정보 이상 500정보 미만 조선인 대지주는 99명인데, 조희양이 소유한 토지는 221정보였다. 그는 이상의 토지를 바탕으로 한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범성포물산(주)·목포창고금융(주)·조일비누(주)·(주)해동은행·동아고무공업(주)·전남신탁(주)의 설립과 경영 등에 참여했다. -> 조희양 지적도 (고문서 DB)
 - 본 가옥은 비록 그 구조는 전통한식이지만 공간구성과 활용 및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건물 등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 신청한 관해공 가옥은 조선말기인 1880년대에 건축된 가옥으로 사랑채 안채 중문간채 등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상류주택의 형식을 보여주는 외에 당시 호남지역 부농의 가옥으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안채의 공간구성 중 부엌에 접한 정지방과 상부 다락방 및 부엌 뒤편의 목욕실 등은 기존 전통가옥의 평면과 다른 근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안채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각 실마다 뒷골방과 골마루를 구성한 것도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원래 세 가옥이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었고, 그러한 경관이 잘 유지되었다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본 가옥만이 원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아쉽다.

- 문화재 등록시에도 어차피 세 가옥이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아쉽기는 하지만 본 가옥(진사택)을 대상으로 하고 3남집(참봉택)은 제외시켜 문화재 영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현재 영광농업기술센터에 보존되고 있는 조희양 관련 고문서는 그 카피본을 제작하여 본 가옥의 일부공간에 전시하여 당시 가옥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안중식 화백의 ‘영광풍경’ 그림 역시 카피본으로 이곳에 전시하는 것도 가능)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고택’
 - 최근 중요민속문화재 명칭 변경기준에 맞춰 관해공 고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등록신청 된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소유주의 고고조부인 조병무와 고조부인 조강환이 1880년대 전·후로 대를 이어 진사택(택호), 박사택(택호), 참봉택(택호)을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일곽을 구성하고 있다. 즉, 고고조부 조병무가 최초 진사택을 건립한 뒤 고조부인 조강환대에 이르러 세 아들(첫째 조희창, 둘째 조희경, 셋째 조희양)을 위해 첫째 아들이 거처하는 진사택에 인접하여 둘째 아들의 박사택과 셋째 아들의 참봉택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후, 현 소유주의 증조부인 조희경의 아들 조설현대에 이르러 가문이 몰락된 것을 생부인 조영규가 되찾았다고 한다. 조부인 조설현은 1920년대 독립운동가 신석우를 도와 ‘조선일보’의 이사진에 참여하였으며, 생부인 조영규는 중국 북경대 재학 중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조영규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선총독부 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진사택에 의원을 개업하여 1986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오늘날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경내에는 진사택과 참봉택만이 현존하여 그 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사택은 20세기 중반에 소실되어 빈 터만 남아 있다. 이밖에,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조선의 마지막 화원화가였던 안중식이 1915년에 조씨 형제들의 요청으로 그린 〈영광풍경〉 속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 이 작품이 실경 풍경임을 입증하는 사료로서 미술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가옥의 전체적인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진사택을 중심으로 서쪽편에 공지를 사이에 두고 참봉택이 위치하고 있다. 본래 이 공지에는 박사택이 있었으나 소실된 뒤 현재까지 그 터만 남아 있다.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진사택-박사택-참봉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 매우 독특한 배치 방식을 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진사택은 전형적인 호남지역의 상류주택 형식을 취하면서 곳곳에 근대시기 생활상의 흔적이 남아 있다. 먼저, 가옥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안대문채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여자들을 위한 공간인 안채, 남쪽으로는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어 남, 녀의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안채와 사랑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소위, ㄷ자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일반적인 배치형태라 할 수 있다. 안채는 본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채는 정면 7칸, 측면은 전·후 퇴칸이 있는 3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면 좌측 2칸의 앞으로 정면3칸, 측면 2칸의 부속채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좌측 2칸의 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의 전면과 우측면으로는 빗마루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각 방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측면 빗마루에 미서기 유리 창호를 달아내어 겨울철에도 실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근대시기의 한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며, 무엇보다도 소유자의 증언대로 안채 뒤편으로 목욕간이 있었던 것은 근대시기 한옥의 변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대청되게 안대문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서쪽편으로 첫갈을 숙성시키는 창고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영광이라는 지역적인 특징과 함께 근대기 생활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사랑채는 안대문채 남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로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4칸, 측면2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정면 4칸 중 우측 3칸의 전면에 빗마루를 놓고 동쪽 측면으로는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창호는 모두 세살 창호를 사용하였으며 정면 맨 우측 1칸에서는 창호 아래에 머리를 설치하지 않아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고 정면 맨 좌측 1칸은 상인방 위에 광창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부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통가옥의 사랑채 구성요소와 다른 점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사택의 사랑채는 소유자의 생부인 조형규가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곳인 만큼 근대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내용과 같은 일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적인 큰 변화 없이도 새로운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옥의 가변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사랑채가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은 상인방에 붙여진 입원실 번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랑채 동쪽편으로 대청되게 3칸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입원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공간이 근대시기에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랑채 남쪽편으로는 비교적 넓은 공터가 있는데 소유자의 증언에 의하면 본래 이곳에 증문채가 있었으며 또한 그 앞쪽으로 바깥대문채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그 자리에는 콘크리트 건물의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진사택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참봉택은 안채와 곳간채, 문간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채는 본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고 본채는 정면 4칸, 측면은 전면에 퇴칸이 있는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의 정면 좌측 1칸 앞으로는 정면3칸, 측면 2칸의 부속채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는 진사택의 안채와 같이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실의 구성방식에서는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 우에 방을 놓고 좌측 방의 정면으로 방과 부역을 달아내고 있는 등 진사택 안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청과 우측 방 전면에는 빗마루 설치하였으며 대청과 빗마루 사이에는 4짝 미서기 유리 창호를 달아내어 겨울철에도 대청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역 상부에는 방에서 직접 통하는 고미다락을 설치하여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부역은 연등천정으로 마감하여 상부 가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때 외기 중도리의 왕지부분에 달동자를 설치한 것은 집의 격식을 높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진사택과 참봉택 모두 전반적인 가옥의 배치와 규모, 개별 건물의 형태와 구조 등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 향후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안채, 사랑채, 대문채 등 개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7.1.24.)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함
 - 등록 예고일 : 2017. 2. 15.~2017. 3. 16. (문화재청 공고 제2017-64호)
 - 등록 예고기간 : 등록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등록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화여자대학교
- (2) 대상문화재명 :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체육관 A동)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소유자 : 학교법인 이화학당
 - 수량 및 면적 : 1동 / 연면적 899.51㎡
 - 건립시기 : 1935년
 - 구조 : 석조 / 목조트러스
- (3) 등록 사유 : 1935년 건립된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외관은 물론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음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11. 8.)>

- 문화재위원 ○○○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며, 체육관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한국 고등교육시설에서 가치에서 볼 때 시지정은 물론 사적지정도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건축의 전체적인 외관과 내부 마감 그리고 공간구조 모두가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위치한 백학리 일대는 영광읍의 중심부로서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소유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한옥 숙박 및 테마공원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홍보, 교육하는 테마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활용적 측면에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위치한 백학리 일대가 영광읍의 중심부로서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향후 가옥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시기 건립된 한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이 살림집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에서와 같이 한옥을 근대 병원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없다. 또한, 최근 들어 병원시설을 겸비한 일본식 가옥에 대한 등록 신청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자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현존하는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근대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진사택의 경우 근대시기 의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현 소유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므로 근대 한옥 의원의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동일한 경내에 위치한 참봉택은 건립 취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으므로 시·도문화재자료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전문위원 ○○○

- 1935년 감리교 부인선교부의 한국 사업간사 토머스(Mrs. Thomas)여사의 업적을 기념하며 세워진 건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노후화는 심하지 않음.

○ 문화재전문위원 ○○○

-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근대시기 조적조로 지어진 학교시설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기 교육의 역사적 현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 홀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로 함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체육관A동) (구)

2. 용 도 : (현) 무용실 (원) 체육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이화여대길 52)

4. 소유자 : 학교법인 이화학당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석재) 및 목조트러스
- 준 공 일 : 193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817.2㎡
- 층수(높이) : 3층(지하1층, 지상2층)

6. 조사자 의견(2016. 10. 26.)

<문화재위원 ○○○>

1) 개요

미국인 선교사로 일본에서 건축가로 활동한 윌리엄보리스의 설계로 지어졌다. 최초에는 체육관으로 건축되었으나, 현재는 무용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축 당시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관리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930년대 이땅의 고등교육시설에서 주로 채택되었던 스퀘어윈도우 튜더식 고딕의 양식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고딕건축의 대표적인 구법이자 의장적 특징인 애슬라쌍기도 제대로 사용된 완성도 높은 튜더식 고딕건축이다.

근대기 고등교육시설은 물론 초중등교육시설에서도 강당 등은 종종 지어졌지만, 체육관이 고딕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예는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교육시설의 유형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건축이다.

이화여자대학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1960년대 연접하게 체육관이 건축되었는데, 인접한 체육관 역시 시대적 특성을 잘 갖추면서 고딕건축양식의 체육관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신축당시의 건축양식은 물론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지하층 시설의 일부에서 실내 마감재가 바뀌고 개구부와 출입구 등에서 일부 변형이 있지만, 주요한 부분은 원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주 진입계단은 물론 2층의 발코니 등은 거의 완벽하게 원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관람석에 해당하는 2층의 파이프를 이용한 발코니 난간은 물론 객석은 재료와 형태의 보존이 매우 양호하다.

점검구를 통해서 확인한 지붕의 목조트러스도 매우 양호하다.

주진입레벨의 바닥은 화강석으로 바뀌었지만 정두리벽과 계단 등은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두리벽에서 습기에 의한 부식이 확인되지만 원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다.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노후화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보존관리가 매우 양호하며 주변 여건도 양호하다. 주출입구가 인접 대지보다 낮아 일반적으로는 습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체육관의 경우 통풍이 잘되어 습기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어 주변의 수목이 크게 성장해있고, 건물의 높이를 위협하는 수목이 그늘을 만들어 건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로 가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현재 건물의 보존관리와 사용 상황이 매우 양호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이화여대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파이프홀 등과 비교할 때 가치다 떨어지지 않는다. 체육관은 본관 및 대학원(구 음악관)과 함께 사적 지정을 추진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며, 체육관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한국 고등교육시설에서 가치에서 볼 때 시지정은 물론 사적지정도 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건축의 전체적인 외관과 내부 마감 그리고 공간구조 모두가 현 상태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관(체육관 A)은 1935년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은 감리교 부인선교부의 한국 사업간사 토머스(Mrs. Thomas)여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세웠다. 이후 인접하여 체육관 B, 체육관 C가 인접하여 차례로 증축되었다.

무용관(체육관 A)은 지하1층(128.93,51㎡) 1층(510.9151㎡), 2층(259.6751㎡)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석조건물로 지붕구조는 목조 트러스이다. 지붕제는 합석 패널블이, 계단실 및 각층 바닥 등은 목재장선구조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주요구조가 석조(석조 구조)이며 바닥 및 지붕은 목조이다. 1930년대 외국인에 의해 설계된 종교, 의료 학교건축의 아메리칸 콜로니엄 스타일(정창원, 2000. 9)의 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 건축물의 설계자로 연구된 보리스 건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리스(William Merrell Vorries, 1881-1964)는 1932년부터 1941년에 이르기까지 이화여대 캠퍼스 건립사업에 참여해 본관, 체육관, 음악관 등 총 10여 개의 건물을 설계 및 건축했다. 이화여대 캠퍼스는 보리스 자신이 각별한 애착을 갖는 작품이었으며 설계 당시에 한국인 기사를 둔 ‘보(오)리스 京城건축사무소’라는 경성지사가 있었다. 경성사무소 직원 중 강윤(姜琬, 1899-1975)은 보리스가 가장 신임했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강윤은 1930년대 일본유학 및 활동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

대 건축사업 현장감독을 지냈으며, 태화사회관 건축시부터 ‘보(오)리스 京城건축사무소’의 주임으로 근무했다. 강윤은 이후 독립해 남대문교회, 한국신학대학, 부산대학교 도서관, 중앙대학본관 등을 설계했다.

강윤은 1933-1935년까지 이화여전의 새 캠퍼스에 본관 등 4개의 교사를 준공시켰다. 1935년 5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 캠퍼스 현장에서 ‘이화여전 신교사 봉헌식’이 열리는데 이때 강윤은 건축현장 감독으로 소개된다. 보리스도 참석하였다. 이날 준공된 건축물은 본관(Pfeiffer Hall), 음악당(Case Hall), 대강당(Emerson Hall), 체육관(Thomas Gymnasium)이었고 이들 건축물은 1933년 정초식을 하였고 이날 준공된 것이다. (김정동,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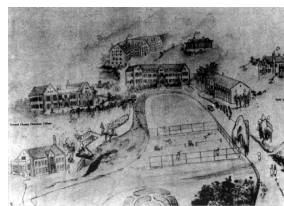
건축공사는 마종유(馬種濡)와 중국인 청부업자 왕공온(王公溫)이 했다. 마종유는 <조선과 건축>의 1926(대정15)년의 조선건축회 회원명부에 ‘토목건축재료상 병 토목건축청부업’의 영입종으로 ‘개성군 송도면 만월정’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개랑진통주택(도시형한옥)건설업자는 청부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마종유는 개성에서 영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또한 1937(소화12)년에도 동일하다. 그는 마공무소(馬工務所)대표로 있었다.(김란기, 박사학위 논문, 1989)

강윤은 이외에도 이화여전 캠퍼스에 4동의 건축물을 준공했는데 1936년 5월 30일에 준공된 기숙사, 보육원, 영어실습실, 가사실습실 등이 그것이다. 강윤은 이날 건축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김정동, 2008)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관(체육관 A)은 보리스가 설계하고 중국인 청부업자 왕공온(王公溫)이 공사하였으며 현장감독은 강윤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노후화는 심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출입문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보수 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후면에 빗물 등의 침투가 우려된다. 배수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붕 속 트러스 구조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무용실로 사용되면서 많은 전기설비 등에 의해 복잡한 편이다.



<그림 7> 1936년 이화여전 캠퍼스플랜, 보리스 작성(김정동 2008). 오른쪽의 건물이 체육관이다. (김정동 2008)

<그림 7> 강윤의 생전 모습. 1956년 경에 이화여대 강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김정동 2008)

<그림 7> 강윤 가족(1935년 이후) (김정동 2008)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캠퍼스 안에 존치되어 큰 문제없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이미 기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음.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상기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참조.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에는 등록문화재 제14호로 등록된 ‘파이퍼홀(본관, 1935년 건립)’이외에도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토마스홀(체육관A동, 1935년 건립)’을 비롯하여 ‘대학원관 중강당(1935년 건립)’, ‘진선미관(1936년 건립)’, ‘대학원 별관(1936년 건립)’, ‘영학관(1936년 건립)’, ‘아령당(1936년 건립)’ 등 동 시기 건립된 역사적 건축물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전이 정동에서 신촌 일대로 옮기게 되면서 신축된 것들로 외부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고전주의 양식을 모티브로 하는 등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인 보리스(William M. Vories, 1881~1964)가 운영하였던 ‘보리스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는 보리스건축사무소 일원으로서 한국인 건축가姜允(姜允, 1899~1974)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에는 모두 3동의 체육관 건물(체육관A·B·C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 ‘토마스홀’로 불리는 체육관A동이 이번 등록 신청된 것이다. 『근·현대 체육시설 일제조사 연구용역(문화재청, 2015)』에 의하면,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시설 중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건축조형미가 뛰어나 보존되어야 할 근대건축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1963년 체육대학 내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줄곧 ‘무용관’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817.2㎡ 규모로 외관상 근대시기 학교 건물에서 보여 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인 ‘파이퍼홀’과 비교할 때 서로 유사한 건축양식을 보이고 있다. 벽체는 조적조(석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돌을 쌓아 축조한 것인지 아니면 돌을 쌓고 그 뒤에 보강재(콘크리트 등)를 채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지붕은 목재 트러스를 전·후 벽체에 가로질러 설치하였고 체육관 특성상 실내에 넓은 공간(15m) 확보에 따른 구조적 보강을 위해 양 끝단에 헌치 형태의 구조물을 덧대어 보강하였으며 이에 맞춰 외벽면에는 별도의 부속벽을 세웠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경계에는 화강석으로 수평 돌림대를 두어 층을 구분하였는데 수직 방향의 부속벽과 입면상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수직 창호의 상·하부에는 화강암 창대석을 놓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창틀 좌·우면에는 화강석을 들쭉날쭉한 패턴으로 쌓아 의장적인 효과를 높여주고 있는데 ‘파이퍼홀(본관)’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사적 제276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정면 현관의 상부에는 소위, 고전주의 건축양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두아치 대신 튜더아치(Tudor Arch)를 사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장식하고 있다. 지하층에는 보일러실이 있

었으나 현재 연도는 훼손되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굴뚝은 건물 좌측면에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토마스홀(체육관A동)이 오랫동안 무용관으로 사용됨에 따라 방음문 설치와 천정의 무대조명, 벽체에 매입된 냉난방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에서 다소 변화가 있어 보이는 하지만 건물의 구조와 형태, 내부 마감재 등은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간이 현재에도 무용연습실과 교수연구실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상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초기 이화학당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기 등록문화재인 파이퍼홀(본관)관 함께 이번 등록 신청한 토마스홀(체육관A동)를 비롯하여 동 시기에 건립된 다수의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학교 관계자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학교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등록문화재인 파이퍼홀(본관) 및 사적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사적 제285호)’, ‘서울 연세대학교 스탬슨관(사적 제275호)’ 등과 비교할 때 근대건축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등록문화재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6)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토마스홀(체육관A동)은 근대시기 조적조로 건립된 학교 시설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기 교육의 역사적 현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시기에 건립된 다수의 건물 역시 동일한 시대적 배경과 건축적 특징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어 기준에 따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 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7.1.24.)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함
 - 등록 예고일 : 2017. 2. 15.~2017. 3. 16. (문화재청 공고 제2017-64호)
 - 등록 예고기간 : 등록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등록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 대상문화재명 :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육군 98병원)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항로 88번길 82-22
 - 소 유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133.71㎡
 - 건립시기 : 1952년(추정)
 - 구 조 : 석조 기와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11. 7.)>

- 문화재위원 ○○○
 - 6.25 전쟁 당시 세워졌던 50여 채 병동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니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교정 내에 있었던 병동건물과 인근에 전사자 화장장(파궤)과 의무대 기념비(현존) 등, 관련시설물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지표조사를 행하여 유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 건물과 연관하여 과거의 의무부대 상황을 파악할 수 그거들을 찾아내어 장차 문화재 등록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주도 육군제1훈련소 군사시설의 소수 현존사례 중 하나이자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한 현존사례로 한국전쟁사, 제주지역사, 군의료사 등에서 높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대정면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군사유적 등록문화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던 반면에,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다는 차별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단, 등록을 위해서는 군훈련소 및 의료시설로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의 수립과 보완이 필요하며, 등록 후에는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은 제주지역의 대표적 건축요소이므로 원형복원과 지속적 보존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1952년에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한 98육군병원의 병동으로 제1훈련소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98육군병원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주민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마.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
- 구 육군 98병원 병동
- 제주 구 98육군병원 병동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병동)」로 함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제주 대정여고 실습실 (구) 육군 98병원 병동

2. 용 도 : (현)교육시설 (원) 육군병원

3. 소재지 : 제주특별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4.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5)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석조, 목조 트러스 위 기와잇기
- 준 공 일 : 1952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33.71㎡, 연면적 133.71㎡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 11. 8.)

<문화재위원 ○○○>

1) 개요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의무대와 전쟁 부상병 후송병원을 겸하여 설치된 육군98병원이 주둔하였다. 6.25 당시 50여개의 병동이 이어졌는데 1964년 3월 이곳에 재정여고가 개교하면서 병동 건물들은 차례차례 철거되고 현재 본 건물 한 채가 남아 있다. 의무대가 주둔했던 당시, 군인뿐 아니라 제주도민과 피난민도 치료를 위하여 이용하였던 군 시설로, 내부는 변형되었으나 외부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줄기초 위에 석재로 외벽을 쌓고 지붕은 간단한 트러스 구조를 올리고 기와를 올린 전형적 군 막사 형태의 건물이다. 육지에서 격렬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부상치료와 잠깐의 회복을 위한 시설이 이 일대에 건립되어 있음을 전해 주는 구조물로서 최소한의 장비와 재료로 단시간에 건립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에 편한 기능적 건물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외부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는 교육시설로, 시기에 따라 알맞게 개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형을 상실하였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고등학교 교정 내에 위치하며 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한정된 사용자와 공간 내에서 크게 훼손에 대한 염려 없이 잘 유지 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학교의 교육시설로 계속 사용하거나, 6.25 때 의무대가 설립될 당시의 상황을 이곳에서 배워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교육시설로 할 것인가, 옛 군 시설 때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실 또는 기념관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청과 군사 관련 기관 사이에서 잘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전(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6.25 전쟁 당시 세워졌던 50여 채 병동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니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교정 내에 있었던 병동건물과 인근에 전사자 화장장(파쇄)과 의무대 기념비(현존) 등, 관련시설물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지표조사를 행하여 유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 건물과 연관하여 과거의 의무부대 상황을 파악할 수 그거들을 찾아내어 장차 문화재 등록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제주 대정여고 실습실

*구 육군 98병원 병동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조사대상 건물이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면 지역은 본래 일제강점기 1930년대부터 일본군 군사기지가 조성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면서 1950년대 대규모 군사기지를 형성하였던 지역.
- 한국전쟁 당시 병사를 양성할 훈련소가 급하게 필요해 1951년 1월 대정면 모슬포 지역에 육군제1훈련소(통칭 강병대強兵臺, 일명 모슬포훈련소)가 면적 198만㎡(약 60만 평), 병력 10만명 수용 규모로 창설된 후 1956년 1월 해체될 때까지 약 50만명의 병력을 배출.
-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서 또는 훈련소에서 부상당한 많은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육군제1훈련소 의무참모실에서 제98육군병원을 창설하였으며 195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52년 6월 9일에 완공.
- 제98육군병원은 당시 50여동의 건물과 주변에 화장터가 있었으나 1956년 폐쇄 후 방치되던 중 1964년 대정여고가 그 자리에 설립되면서 교사로 활용되다가 대부분이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조사대상 건물만이 유일하게 현존.
- 제98육군병원은 의료시설이 매우 빈약하였던 당시 제주도 상황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많은 병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치료하며 제주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 현재 대정면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서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병거(제312호),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제313호), 제주 모슬봉 일제군사시설(제314호), 제주 이교동 일제군사시설(제315호),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동굴진지(제317호)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 또한 현재 대정면 일대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시설로서 남제주 강병대교회(제38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제409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제410호)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1952년 제주 서귀포시 대정면 모슬포 지역에서 창설된 제98육군병원의 병동 건물로 당시 건설되었던 50여동의 건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
-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51년 창설된 육군제1훈련소 소속 의무참모실이 제98육군병원을 195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1952년 6월 9일에 완공, 창설하였으므로 당시 건축된 것으로 추정 가능.
- 1964년 대정여고가 현 위치 제98육군병원 자리에 개교하면서 초기에 제98육군병원 건물들은 개축하여 일부 교사로 활용되다 이후 대부분이 철거되었으며, 현재 조사대상 건물만 유일하게 현존.
-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을 구성하고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외벽을 쌓은 후 상부에 박공지붕을 가설하고 내부에 통간(通間) 형식의 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한 건축형식의 기능주의적 소규모 건물.
- 벽체 구축 등 전반적 건축형식은 이 지역에서 동시기에 건축된 한국전쟁 관련 군사시설 건물(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교회, 등록문화재 제409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등록문화재 제410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및 인근의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등록문화재 제157호, 1955년 건축)와 유사.
- 조사대상 건물은 단순한 건축형식의 소규모 건물로 그동안 내외부 일부가 증축되고 개조되었지만,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원형복원도 가능한 상태.
- 한국전쟁 당시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면 지역의 대규모 군사시설 중 현존하는 소수 사례 중 하나로 한국전쟁사, 제주지역사, 군의료사 등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2년 제98육군병원 창설 당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6년 병원 해체 이후 방치되던 중 1964년 그 자리에 대정여고가 설립되면서 다른 건물들과 함께 임시 교사로 개축,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 그동안 대정여고 다목적실로 사용되며 우측면에 부속실이 증축되고 정면 입면 등 내외부가 개보수되었지만,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을 비롯하여 건축원형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
- 그동안 다목적실로 활용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는 다소 미흡하며, 내부는 개보수되어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지만 외관은 그동안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조사대상 건물은 현재 대정여고 부지내에서 교사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시 문화재 보존관리를 저해할만한 주변환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육군본부의 요청에 의해 소유주인 제주도교육청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 소유주, 관계기관,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시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등록신청서에 소유주 제주도교육청은 등록 후에도 기존 용도인 다목적실로 지속

적으로 사용하며 학생 및 학부모 교육행사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구체성이 미흡하고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활용계획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계획보다는 한국전쟁 당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역할을 하였던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한 현존 건물유적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함.
- 또한 대정여고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상 공공적 개방 및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적 개방 및 접근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로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육군제1훈련소 유적으로 대정면 일대에 현존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교회, 제409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제410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근대유적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군사의료시설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구 진해해군통제부 병원장사택(제193호), 구 진해요항부 병원(제197호)이 있으나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시설로 건축된 반면에,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군사시설로 건축되었다는 차별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 등 전반적 건축형식은 대정읍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 건축된 군사시설 건물(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교회, 등록문화재 제409호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등록문화재 제410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및 인근의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등록문화재 제157호, 1955년 건축)와 유사.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군사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주도 육군제1훈련소 군사시설의 소수 현존사례 중 하나이자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한 현존사례로 한국전쟁사, 제주지역사, 군의료사 등에서 높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대정면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군사유적 등록문화재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던 반면에, 조사대상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다는 차별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단, 등록을 위해서는 군훈련소 및 의료시설로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의 수립과 보완이 필요하며, 등록 후에는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은 제주지역의 대표적 건축요소이므로 원형복원과 지속적 보존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동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1952년에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한 98육군병원의 병동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당시에는 50여개의 병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1964년 3월 대정여자고등학교가 이곳에 개교함에 따라 대부분의 병동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는 1동만이 남아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동 건물은 제주석(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 기와를 올렸으며 외부 벽체에는 부축벽을 설치하여 벽체를 지지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실내 역시 별도의 구획 없이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지붕 구조는 천정 마감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지만 트러스 구조로 추정된다.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98육군병원 내 대부분의 병동 건물이 제주석으로 벽체를 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형태로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건물 역시 비교적 건립 당시의 외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내부 마감재와 정면 출입구 부분에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 우측면의 콘크리트조 건물은 이후에 증·개축된 것이며, 창호 및 출입문 역시 본래의 형태와 마감재가 아닌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실내 마감재 교체와 정면 출입구 부분에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 우측면의 콘크리트조 건물 등 이후에 증·개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대정여자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학교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상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본래 98육군병원 병동 건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소유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오늘날에도 대정여자고등학교 시설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역사교훈여행(다크투어리즘)의 역사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등록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동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정지역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시설(제1훈련소 정문, 지휘소, 강병대 교회) 이외에도 과거 일본군들에 의한 수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므로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군 관련 시설로서의 등록문화재는 다수 존재하며, 또한 동 건물과 인접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시설로 ‘남제주 강병대교회(등록문화재 제38호)’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나 군병원의 의무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동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제주도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됨에 따라 그 다음해인 1952년에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현재의 위치에 주둔한 98육군병원 병동으로 인접해 있는 제1훈련소와 역사적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98육군병원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주민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 건물은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중요

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제주 구 98육군병원 병동’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2017.1.24.) 검토를 거쳐 등록 예고함
 - 등록 예고일 : 2017. 2. 15.~2017. 3. 16. (문화재청 공고 제2017-64호)
 - 등록 예고기간 : 등록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등록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 소 유 자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815.14㎡
 - 건립시기 : 1961년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12. 22.)>

- 문화재위원 ○○○
 - 1960년대 초의 건축기술과 학교건축의 공간구성 등을 잘 담아내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구로서 동시대의 타 대학교 시설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재료 사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
 - 또한 1961년 신축될 때 같이 지어진 현재의 본관, 헨리관, 식당은 약간의 증개축, 변형이 가해졌기에 등록신청에 제외하고 원형 대부분이 남아 있는 브레디관만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건물들도 증축된 부분 외에는 원형이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음.

- 특히 본관의 지하층은 건립당시에는 쉽게 만들지 못했던 공법과 상당히 넓은 지하면적 확보, 드라이 에어리어 마린, 방수와 구조구법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유구들을 하나의 보존대상 건물로 확정하여 같이 등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브레디관은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적벽돌을 마감한 ‘ㅅ’ 자형 건물로 1960년대 기숙사의 독특한 구조와 당시의 생활 형태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세면실과 화장실, 계단실의 구조, 방서의 역할을 위해 만든 옥상수조 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징임.
- 또한 브레디관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건물에 대하여도 등록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브레디관이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미국 출신 브레디 신부가 기금을 모금하고 호주 출신 신부(미상)의 설계를 통해 한국인이 시공하였다는 독특한 건립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정한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역사적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브레디관과 동시대에 건립된 헨리관, 본관, 식당의 경우에도 비록 후대에 일부 증·개축이 있었지만 원형의 모습은 간직하고 있으므로 ‘대전신학교’라는 근대문화유산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일괄 등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 광주 구 대전신학교 교사
- 광주 카톨릭대학교 구 교사
-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광주 광주천주교대교구청 구 브레디관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구) 대건신학교 브레디관

2. 용 도 : (현)천주교 광주대교구 부속시설 (원) 기숙사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

4. 소유자 :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조
- 준 공 일 : 1961년 12월 15일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660㎡, 연면적 1,980㎡
- 층수(높이) : 3층

6. 조사자 의견(2016. 12. 22.)

<문화재위원 ○○○>

1) 개요

1958년, 서울의 카톨릭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졸업생들만으로는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성직자 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한 교황대사(Lamgertini)가 지방에 신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1959년에 교황청으로부터 광주에 신학교 설립을 허가받았다. 이에 광주교구장 헨리 주교가 미국에서 학교부지 마련과 교사신축을 위한 모금을 하고 1960년에 부지확보, 1961년에 교사신축, 1962년에 신입생 모집, 신학교육 시작하여 대건신학교의 대교를 보게 되었다. 1994년에 교명을 광주 가톨릭 대학교로 바꾸었고 1998년 광주 가톨릭 대학교가 남평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고 이 건물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의 시설물로 사용하게 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기본 뼈대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하고 외벽을 붉은 벽돌 치장쌓기로 마감한 모더니즘의 건축이다. 원래의 용도가 기숙사였으며 현재까지도 기숙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평면은 Y자 모양으로 세 방향 윙이 만나는 중앙 부분에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실 등이 있어 1960년대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아울러 이 기숙사는 건립 초기에 한 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개인침상이 열지어 놓여 있게 하여 수십명이 큰 방에서 취침하게 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2인 1실의 침실로 구획하여 개별실들로 변화하게 되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외벽 장호는 원형이 잘 남아 있어, 방법 샤워, 모기장, 오르내리 창고 철물, 멈추는 장치 등이 변형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개방형 공동침실에서 개별 침실로 바뀌면서 바닥과 내부 벽에는 일률적인 변형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비교적 한적한 캠퍼스 내의 시설물로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신학교가 이전한 뒤 교구청의 부속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모든 계획은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가톨릭 교구청 소속 제단체의 사무실을 위주로 공간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계획대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1960년대 초의 건축기술과 학교건축의 공간구성 등을 잘 담아내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구로서 동시대의 타 대학교 시설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재료 사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이 학교 교사는 1961년 신축될 때, 이번에 등록 신청한 브레디관 외에 현재의 본관, 헨리관, 식당까지도 같이 지어졌다. 소유주는 브레디관 이외의 건물은 약간의 증개축, 변형이 가해졌기에 등록신청에 제외하고 원형 대부분이 남아 있는 브레디관만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건물들도 증축된 부분 외에는 원형이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다. 특히 본관의 지하층은 건립당시에는 쉽게 만들지 못했던 공법과 상당히 넓은 지하면적 확보, 드라이 에어리어 마련, 방수와 구조구법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유구들을 하나의 보존대상 건물로 확정하여 같이 등록할 것을 소유주에게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① 광주 구 대건신학교 교사
- ② 광주 가톨릭대학교 구 교사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신청 건물(건물명 ‘브레디관’)은 1961년 준공되었으며 광주가톨릭대학교 학생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1962년 ‘대건신학교’로 설립인가 되면서 신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1998년 나주 남평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천주교 광주대교청 부속건물로 사용되어 왔다. 1994년 광주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캠퍼스를 이전하기까지 36년간 광주 및 대구관구, 청주, 수도회 소속 신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여 사제로 배출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

1961년 캠퍼스의 주요 건물(본관, 헨리관, 브레디관, 식당)이 완공되었는데 이들중에 브레디관이 기숙사동이다. 건물 전체는 호주출신의 신부(미상)가 설계하였고 시공은 지역사회의 건설업자가 맡았다. 건축 기금모금을 위해 미국의 브레디(Brady) 주교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붙여 브레디관(Brady Hall)이라 칭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건물배치는 본관을 북쪽에 정면을 두고 있으며 브레디관은 남쪽에 위치한 다. 설계자가 호주출신이어서 무더운 계절인 여름철을 대응하기 위해 본관을 북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청 건물인 브레디관은 본관에 연결된 ‘人’자형 평면을 이루는 3층 건물이다. 자습실 및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여러차례 바닥, 내벽수리가 있었다.

<연혁>

1961.12.15. 학교설립 준비완료, 이사장 헨리(Harold W. Henry) 주교
1962.03.07. 대건신학교 설립인가, 초대 교장 박후버(Andrew H. Bachhuber) 신부
1984.05.04. 교황 요한바오로2세 대건신학교 방문
1994.03.01. 광주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8.01.06. 나주 남평 교사로 이전
1999.04.09.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개원
2014.07.08.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으로 개원
2014.08.11. 천주교광주대교구청으로 변경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브레디관은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슬라브 구조이다.

평면은 ‘人’자형으로 중앙복도를 따라 좌우측으로 각 실이 배치되어 있다. 초기에는 넓은 공간이었으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 중앙복도와 칸막이를 설치하여 자습실과 침실 등의 공간을 만들었다. 평면상의 ‘人’자 중앙에는 홀을 두고 화장실, 휴게실, 창고로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였다. 바닥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실의 배분을 위해 복도와 칸막이벽을 설치하고 복도는 인조석물갈기, 침실은 마루널로 마감하였다. 각 실에는 라지에이터 난방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창문은 상하인방을 두고 그 사이에 4쪽의 창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밀어올림의 방식에 따른 철물사용이 근대건축의 특징을 이룬다. 건물의 지붕은 평슬라브 구조로 하절기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슬라브 상부가 수조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점이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계단은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조적으로 벽체와 난간의 구성, 수직창 배분 등이 근대건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드럽고 편안한 감을 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브레디관은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넓은 공간의 공동자습실을 1-2인용의 소규모 침실을 확보하기 위해 1970년대초 칸막이 공사가 시행되었다. 중앙복도 형태의 평면구조로 변경하고 복도는 인조석물갈기로 마감하고 각 침실은 마루널을 마감하였다. 각 실의 칸막이벽과 마루널은 부분적으로 노후화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동세면실과 화장실은 196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설비배관이 노출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난방을 위한 라지에이터가 창가의 세면대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급수관의 교체와 동파에 의한 수리가 행하여졌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옥상 슬라브의 수조는 건물의 누수문제로 폐쇄되었고 배수를 위한 흡통은 남아있어 우수를 배출하고 있다. 창문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폐에 사용되는 철물과 방범쇠창살은 녹이 슬어있는 상황이다. 1층은 수장고와 평생교육원 연습실로 사용중에 있으며 상층부도 일부는 단체 사무실로 사용중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마감과 설비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있어 원활한 건물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건물의 활용 방법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캠퍼스로 사용되던 곳으로 전체적인 건물의 조화와 조경의 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광주대교구청의 입주로 현대교구장의 역사성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점을 들 수 있다. 도심지 내부에 근대건축물과 녹지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광주대교구청과 시민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원의 설립으로 종교와 문화생성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 이상적인 환경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브레디관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은 그 자체가 종교의 가치실현이 되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로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브레디관은 광주대교구청 부속건물로 과거 사제양성의 요람으로 교회사적 가치가 큰 장소이다. 이제 시민들의 내적외적인 수양과 교육의 장소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활용되는 공간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변건물과 연결된 지하통로와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영화촬영이나 설치미술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다. 기타사항

브레디관 뿐만 아니라 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 건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건축된 것이어서 이들 건물들을 동일한 문화재구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브레디관은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적벽돌을 마감한 ‘人’ 자형 건물로 1960년대 기숙사의 독특한 구조와 당시의 생활 형태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세면실과 화장실, 계단실의 구조, 방서의 역할을 위해 만든 옥상수조 등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된다.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우선 브레디관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건물에 대하여도 등록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명칭 :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본 건물은 1961년 대건신학교 브레디관(기숙사)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대건신학교는 1994년 3월 1일 교명이 광주가톨릭대학교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98년 1월 6일 오늘날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으로 캠퍼스가 이전함에 따라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으로 사용 중에 있다. 오늘날 천주교광주대교구청 경내에는 대건신학교 시절 기숙사로 사용된 브레디관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건립된 본관(사무실, 도서관, 교실) 및 헨리관(기숙사), 식당 등의 기타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건물 모두는 호주 출신 신부(미상)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하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전반적으로 브레디관은 1961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 형태는 신학교의 초성인 ‘ㅅ’자를 이미지 한 형태로 크게 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공간에서는 주변 지형의 경사에 맞춰 1층을 반지하 공간으로 처리하여 입면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숙사 시설인 만큼 내부공간은 대부분 생활공간으로 구성되었는데 1층은 체력단련장과 휴게실, 2층과 3층은 자습실과 공동숙소로 사용되었다. 2층과 3층에서는 세 영역이 만나는 ‘ㅅ’자 중앙부에 홀을 두고 공동화장실, 세면장, 휴게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배치한 독특한 평면의 구성방식을 보이고 있다. 건립 당시 2층·3층은 모두 개방된 공간이었으나 1970년대에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해 가변성 있는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 우에 각각의 실들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건물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각 층의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를 하였으나 2층·3층의 각 실들에 한해서는 슬라브 위에 직접 장선을 놓고 장마루를 깔았다. 외벽은 붉은 벽돌로 치장 쌓기를 하였고 내벽은 몰탈 또는 회반죽 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창호는 위, 아래에 창대석을 놓고 그 사이에 목재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나 건립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건물 옥상에 일정한 양의 물을 채워 실내온도를 낮추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옥상부에는 우수 배수를 위한 홈 구멍 이외에 파라펫 하부에 일정한 높이의 배수구멍이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실내 벽면 모서리에도 배수관 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수량 유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일부 바닥 마감재 등의 교체가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건립 당시의 형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활용 등을 감안할 때 화장실 설비(배관, 방열기 등), 목재 창호, 바닥 마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기숙사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소유자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이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므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브레디관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천주교 관련 유물 보관 수장고 및 관련 단체 사무 공간, 평생교육원의 학습장(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서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오늘날에도 브레디관이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의 사제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등록문화재가 아닌 사적(제520호)의 경우 ‘서울 용산신학교’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

초의 신학교 건물로서 보존, 관리되고 있지만 과거 신학교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없으므로 브레디관이 갖는 건축사 및 종교사적인 가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브레디관이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미국 출신 브레디 신부가 기금을 모금하고 호주 출신 신부(미상)의 설계를 통해 한국인이 시공하였다는 독특한 건립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정한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역사적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레디관과 동시대에 건립된 헨리관, 본관, 식당의 경우에도 비록 후대에 일부 증·개축이 있었지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대진신학교’라는 근대 문화유산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일괄 등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광주 광주천주교대교구청 구 브레디관’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 광주시’와 구별을 위한 별도의 명칭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의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으로 지반조사 및 지하수위 계측을 위한 굴착공사를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답동성당」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으로 지반조사 및 지하수위 계측을 위한 굴착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답동성당 (사적 287호, 1981.9.25. 지정)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일원 (보호구역내)
 - 신청내용 : 지반조사, 지하수위 계측 위한 굴착공사

<지반조사 : 3개소> * 기타 1개소는 기존자료 활용

- 굴착심도 : 30m 이내
- 굴착구경 : 직경 58~75mm

<지하수위 계측 : 5개소 (보호구역내 3개소)>

- 굴착심도 : 30m 이내
- 굴착구경 : 직경 58mm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7.3.15.) / 문화재전문위원 ○○○, ○○○>
 - 성당 전면에 지하주차장 4개층과 지상 경사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본래의 지형을 회복하고 성당의 경관 및 진입을 개선하고자 하는 현상변경 공사를 계획 중임
 - 현상변경 공사 시행전에 성당 및 주변의 지하수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지하수위 계측 5개소,

지반조사 3개소)를 시행할 예정임

- 금번 굴착공사는 현상변경 공사에 대비하여 선행하는 것으로 성당의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 검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굴착 규모가 각각 58~75mm, 깊이 30m 정도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성당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예측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7. 사적 제465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에 병원시설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경교장」 주변 병원시설 증축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2016년 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6.12.1.) 심의 결과 : 부결
 - 사업시행자가 경교장 훼손부분 복구 및 주변의 경관 복원·보호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 차수계획 등 시공시 안전 검토 필요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장
- 대상문화재명 : 구 경교장 (사적 제465호, 2005.06.13 지정)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평동 1
-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일원 (1구역 / 22m 이격)
 - ※ 현상변경허용 기준 : 1구역(심의구역)
 - 신청내용 : 병원시설(외래동, 복지동, 주차장동) 증축 및 조정
<건축물 증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기존 현황	증축 후	비고
규 모	지하 3층, 지상 15층	지하 4층, 지상 15층	* 금회 사업규모 ○ 외래동 증축 : 지하4층, 지상 8층(41m) ○ 지하주차장 증축 : 지하 3층 ○ 엘리베이터홀 증축 : 지하3층, 지상1층 (소아과동 철거 후) ○ 복지동 증축 : 지상2층(지상1개층 증축)
건축면적	7,555.65㎡	8,513.66㎡	증) 958.01㎡
연 면 적	56,639.86㎡	72,203.92㎡	증) 15,564.06㎡
최고높이	61.2m	61.2m	

<광장조성 : 888.03㎡>

- 잔디식재 542.97㎡
- 보도블럭포장 : 690.40㎡

<조경수 식재 : 2,545.58㎡>

- 교목류(540주) : 소나무 100주, 꽃복숭아 55주, 매화나무 60주,
산수유 150주, 왕벚나무 80주, 이팝나무 35주, 청단풍 60주
- 관목류(3,400주) : 남천 500주, 수수꽃다리 300주, 앵두나무 200주,
사철나무 600주, 철쭉류 1,800주
- 지피류(6,600본) : 감국 1,000본, 돌단풍 500본, 맥문동 2,000본,
별개미취 1,500본, 부처꽃 600본, 수크령 1,000본

<휴게공간 시설 : 299.84㎡>

- 목재데크 299.84㎡, 회랑 1개 소(36m)
- 등벤치 15개소, 통석벤치 12개소, 화강석플랜터 35m

라. 경교장 및 주변 종합정비계획(안)

※ 2016년 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6.12.1.) 결과,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구분	단기(4년)				중장기(2021년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교장			주출입구 복원, 경사로		
			부출입구 복원_소맷돌		
			좌측면 복원_외벽, 창호		
					배면 복원_외벽, 창호
					굴뚝 복원
					지붕 복원_코너스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정비			
경교장 주변			경교장과 본관 분리_좌측면		
					경교장과 본관 분리_배면
				경교장 전면 보행 공간 확보	
			경교장 우측 경관_응급실 주변 개선		
			경교장 우측 경관_아름다리 이전·철거		
			경교장 좌측 경관_소아과동 철거		
			경교장 좌측 경관_본관 전면 디자인 개선		본관 전면 디자인 개선
		경교장 뒤 경관_간판 개선			
	경교장 지하수위 계속 삼성병원 증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계획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6.11.16.) / 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현 사업계획안은 철거 건축물과 신축건물 외에 외부공간의 변화와 자동차 동선 등에서 종합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국가사적인 경교장 주변의 문화재 경관 보존과 경관 향상 측면에서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복잡한 건물 배치 현황은 재해 시 피난의 문제가 문화재 보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버퍼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 참고의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관련 문화재보존 영향성 의견) < 보존정책과(2016.11.17.) >

- '경희궁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의 범위에 있는 병원 '복지동' 증축(1층->2층) 건은 이미 바로 옆에 9층 높이의 본관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희궁지의 경관에 저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제출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변정비를 실시
- 출석 7명, 원안가결 6명, 제척 1명

안전번호 근대 2017-03-08

8. 등록 제302호 「부산 송정역」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등록문화재 제302호 「부산 송정역」 등록 구역 내 건축물 신축과 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송정역」 등록 구역 내 건축물 신축과 공원 조성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해운대 블루라인(주)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송정역 (등록문화재 제302호, 2006.12.4. 등록)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8번길 60 외
 - ※ 문화재 현황 : 역사 1동, 노천대합실 1동, 철로 및 승강장(역사 좌우측 각 150m)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8번길 60 외 등록 구역내
 - 신청내용 : 건축물 신축 2동(복합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조성
- <신청사업 계획>

구 분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공원 조성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6층	○ 개비온벤치 3개
건축면적	1,210㎡	2,678㎡	○ 바닥포장 약 950㎡
연 면 적	약 5,200㎡	약 10,713㎡	○ 쇄석포장 약 1,800㎡
최고높이	24m	17.5m	○ 플랫폼 약 920㎡
문화재구역 점용면적	약 920㎡	약 1,130㎡	그 외 식재 및 기존 녹지 보존
구 조	철골+경량철골조	철골조	화강석, 사고석, 마사토, 미송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7.3.20.)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내 복합문화센터 및 주차시설 조성은 과도한 상업기능 유치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존 송정역사 및 노천대합실 등 기존 문화재에 대한 정비활용계획이기보다는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과도한 계획이라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필요
- 출석 7명, 부결 7명

안전번호 근대 2017-03-09

9.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 변경

가. 제안사항

- 전북 익산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과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본 건은 이전과 관련, 다음과 같은 심의 검토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1차 회의(2016.1.26) 심의 : 보류
· 사유 :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2차 회의(2016.3.22) 심의 : 부결
· 사유 :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등록 말소는 타당하지 않으며, 등록문화재로서 보존·활용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익산시가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적극 모색 마련할 필요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7년 1차 회의(2017.1.24.) 심의 : 조건부가결
· 사유 : 이전 및 등록 변경 사항은 원안가결, 등록문화재 이전 사업은 별도 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익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문화재 제180호, '05.6.18등록)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2-253(중앙동3가 114-2)
 - 등록구조/규모 : 조적조 / 1동 2층, 289.26㎡
- (3) 신청내용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 변경
 - 주요 변경사항
 - 이전부지 추가 확보 (당초 456㎡ → 변경 866.1㎡)
 - 이전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배치계획 변경
 - 기초공법 보강(팽이기초)
 - 철골 기둥 및 트러스 세부계획 추가
 - 절단부위 해체, 접합 및 해체부재 이전 세부계획
 - 벽체보강 지지 세부계획 추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7.1.12) / 문화재위원 ○○○, ○○○, ○○○, ○○○, 문화재전문위원 ○○○, ○○○>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은 2005년 6월18일 등록문화재 제180호로 등록, 보존 관리 되어 왔으나 2016년 소유주가 동 문화재 인접 필지에 대한 재개발 시행(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등록 말소 요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 (2016.3.22.)를 포함 관계전문가들의 다각적 검토 결과 동 문화재를 이전하여 복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이에, 익산시가 소유주로부터 무상 기부 받아 동 문화재를 인근 지역(기존 위치에서 직선거리 175m 이격)으로 이전, 복원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기존 등록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전 부지가 익산 구 도심 내 '근대문화역사거리'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성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개발 압력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문화재 후면부에 후에 증축된 일부 시설이 기 등록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번 이전, 복원과 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짐.
- 또한, 동 문화재의 벽체 절단, 해체, 운반, 조립 등 전반적인 이전,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 채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들로 '기술지도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2017.3.16.) 결과 : 조건부가결
 - 설계승인서의 보완사항을 조속히 보완 후 우리 청 확인(설계심사필-문화재 전자행정)을 받아 사업 시행하도록 함
 - 설계승인서의 행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구성(○○○, ○○○, ○○○, ○○○, ○○○) 검토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안건번호 근대 2017-03-10

10.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11.25.)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 년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비고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1점	[전체] 세로 137.0 × 가로 254.3(cm), [그림] 세로 122.0 × 가로 244.8(cm)	1892년	전기, 정연, 문성, 창운, 상오	면에 채색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 산 순 환 길 147, 관음사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1.25.)>

- ○○○ 강사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는 동시대 치성광여래도와 비교해 독특한 화면구성과 사실적 표현의 추구 등 근대적 성격을 지닌 불화이며, 더불어 근대기 경상도 지역 화승간 화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전문위원
 - 이 칠성도는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典琪 등의 제작자, 그리고 증명, 송주, 지전, 시주 등 제작체계와 후원자를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이다. 이 작품은 칠성도로서의 형식과 구성이 특색이 있고, 인물의 얼굴과 옷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하여 입체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었으며, 배경을 이룬 병풍은 실제 사용

했을 법한 것을 화면의 중요 장치로 등장시킴으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작자의 재치와 실험 정신도 돋보인다 하겠다.

- 또한 주존과 권속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등장시킨 파격적인 시도와 병풍을 배경으로 마치 단체 사진을 찍듯 존상들을 배치한 구도와 형식은 개화기 전후의 신문물의 영향도 간취된다. 이 작품은 조선 말 근대기의 작가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결들여진 불화로 판단되므로,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전문위원

- 진정성이 있으며 제작연도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보다는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추천함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 ○ 전문위원 : 고령 관음사 칠성도
* 주존은 치성광여래도이나 부속들이 비교적 대등하게 있어 칠성도라 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보임
- ○ ○ ○ 강사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 ○ ○ ○ 전문위원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고령 관음사 칠성도」로 함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조사보고서 1부.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

2. 소재지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47, 관음사

3. 소유자 : ○ ○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4. 조사자 의견

<○ ○ ○ 강사>

1) 현상

- 이 불화는 가로로 긴 화폭으로 98.0cm, 50.0cm의 면 두 폭을 상하로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 아래쪽 화기란에 조성 인연이 기록되어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확인 가능하다.
- 화면에 하단부에 촛농에 의한 오염이 두루 보이며, 촛불로 인해 화폭에 구멍이 뚫린 곳도 두 곳 육안으로 확인된다. 화면의 위쪽에는 누수에 의해 오염된 곳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또 화폭 가장자리에 못자국이 군데군데 확인되지만 대체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2) 내용 및 특징

- 이 불화는 화기를 통해 1892년(光緒十八年) 합천 해인사 국일암에서 조성·불안하였으며, 서암전기(棲庵典珙)가 수화승으로 참여하고 19세기 말 당시 주로 충청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련(正蓮)과 문성(文性), 그리고 창운(暢雲), 상오(尙昨)가 함께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수화승 서암전기는 현재 19세기 후반의 작품이 20점 가량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전라도 지역에도 불화를 남겼다.

○ 화면구성의 특징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는 한 폭의 화면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불교 존격인 치성광여래와 칠여래, 그리고 도교 존격인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을 상하로 나누어 병렬하고 그 주위에 권속들을 작게 배치하였다. 그 뒤로는 담목의 12폭 산수병풍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치성광여래와 칠여래, 그리고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은 얼핏 보기에는 주존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모두 대등한 비중으로 그려진 점이 독특하며, 주존인 치성광여래의 양쪽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그리고 자미대제의 양쪽에 일월성군이 있어 주존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전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치성광여래도는 매우 다양한 화면구성과 화폭의 구성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그림과 같이 마치 단체 사진을 찍은 듯 균등한 비중으로 존상들을 배치한 화면구성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화면구성을 한 작품으로는 1866년에 제작된 양산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의 <치성광여래도>와 <칠성도> 각 폭, 그리고 1893년에 제작된 경남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치성광여래도>를 들 수 있다.
- 1866년에 제작된 통도사 안양암의 작품은 원래는 총 9폭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5폭만이 남아 있다. 즉, 담목의 산수 병풍을 배경으로 불교 존격과 도교 존격을 상하로 배치하여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와 거의 유사한 구성이지만 여러 폭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이 작품은 경상도 지역에서 19세기 후반 활동했던 실력 있는 화승 하은위상(霞隱偉祥)이 급어

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 또 1893년에 제작된 경남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치성광여래도>는 관음사 작품과 마찬가지로 한 폭으로 제작되었으며, 배경의 병풍 폭수와 권속의 수만 다를 뿐 사실상 거의 동일한 화면구성을 보인다. 이 작품의 수화승은 봉의(琿巖; 奉宜)로 역시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이다.
- 그런데, 화면구성이 매우 유사한 이 세 작품의 수화승이 각기 작품을 함께한 화면관계가 있어 밑그림의 전승과 변용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한 폭의 <치성광여래도>를 그린 고령 관음사 작품의 수화승 서암전기와 통도사 안양암 작품을 제작한 봉의는 현전하는 작품을 조사해본 결과 1873년 경남 진주 청곡사 <삼장보살도>와 <지장보살도>, 1882년 전남 남원 실상사 약사전의 <약사여래도>와 <신중도>, 1891년 경남 함양 벽송사 <신중도>, 1891년 경남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도>의 제작에 수화승을 번갈아가며 함께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러 폭으로 제작된 1866년의 통도사 안양암 <치성광여래도>에는 봉의가 참여하고 있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배화승 하은 위상의 치성광여래도의 밑그림을 봉의가 인식할 수 있었고, 봉의와 함께 여러 작품을 제작한 서암전기 역시 고령 관음사의 <치성광여래도>의 밑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령 관음사의 <치성광여래도>는 여러 폭으로 제작되었던 치성광여래도를 전각의 규모에 맞게 한 폭의 화면에 재구성한 것으로, 경상도 지역 불화제작에 있어 밑그림의 화승 간 전승과 변용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 도상과 표현기법상의 특징

- 주존인 치성광여래는 보통 손에 金輪을 들고 있으나 이 관음사 작품에서는 금륜을 들지 않고 왼손은 배 앞에,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다. 양쪽의 칠여래는 다양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 아래쪽의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은 연화대와 위에 가부좌한 불교의 존격들과 달리 모두 천을 덮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홀을 들고 있다.
- 설채나 존상의 상호, 세부표현이 정세한 편은 아니지만 몇몇 인물의 얼굴과 옷에는 윤곽선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선염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려 시도하고 있는 점과 의자에 드리운 천의 주름을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려 한 점이 흥미롭다. 또 중간색인 올리브그린에 가까운 색을 붉은색, 녹색 등의 주조색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도 동시대 다른 불화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또 코발트 블루의 두드러지는 사용은 당시 불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뒷배경의 병풍에 그린 산수화는 열은 먹으로 제법 자연스러운 필치로 능숙하게 그려 화승들의 산수화 솜씨를 가늠해볼 수 있다.

○ 기 타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는 동시대 치성광여래도와 비교해 독특한 화면구성과 사실적 표현의 추구 등 근대적 성격을 지닌 불화이며, 더불어 근대기 경상도 지역 화승간 화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고령 관음사 <치성광여래도>는 칠성각의 후불화로서 봉안되어 있는 만큼, 聖寶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오염은 제거하고 촛불로 인한 화

폭의 손상을 보수하여 안료의 박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존처리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4)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겠음

<○○○ 전문위원>

1) 내용 및 특징

- 고령 관음사는 1911년 해인사 포교당으로 창건되었고 당시에는 봉두동에 있었다. 1956년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의 말사로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칠성도는 관음전 우측(서편)에 위치한 칠성각에 봉안되어 있으며, 칠성각내에 걸려있는 「七星稷聯名記」(1932년) 현판에 따르면, 칠성각은 1931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 이 칠성도는 먼 바탕에 채색한 것으로, 화면은 2폭을 상·하로 이어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장황은 이 시기에 유행한 액자식이며, 테두리는 백색과 군청색을 칠하여 마감하였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붉은색 바탕에 먹글씨로 화기를 남겼다. 화기에 의하면, 이 칠성도는 1892년에 해인사 국일암에서 제작하여 本菴(국일암)에 봉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 졌는데, 참여한 畵員은 수화원 典琪¹⁾를 비롯하여, 正連²⁾, 文性³⁾, 暢雲⁴⁾, 尙旸⁵⁾ 등 19세기 말

1) 수화승 전기는 용문사 캐불(1870, 改造), 청곡사 삼장보살도(1873), 청곡사 지장도(1873), 범어사 대웅전 석가모니불도(1882), 범어사 대웅전 신중도(1882), 실상사 약사전 약사불도(1882), 실상사 약사전 신중도(1882), 실상사 보광전 아미타불도(1886), 실상사 보광전 신중도(1886), 중봉암 칠성도(1890), 해인사 흥제암 석가모니불도(1890), 해인사 경학원 아미타불도(1890), 벽송사 신중도(1891), 경취암 칠성도(1891), **관음사 칠성도(1892)**, 해인사 캐불도(1892),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1892), 동화사 사천왕도(1896) 등의 화적을 남기고 있다.

2) 차화원 전려는 금산사 미륵전 신중도(1890)를 비롯하여 현재 100여점의 작품이 남아 있다.

3) 문성은 관음사 칠성도(1892)를 비롯하여, 현재 80여점의 작품이 남아 있다.

4) 창운은 관음사 칠성도, 해인사 캐불(1892),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도(1892), 천황사 대웅전 삼세불도(1897), 위봉사 보광명전 삼세불도(1897), 선운사 참담암 아미타불도(1900) 등의 화적을 남기고 있다.

5) 상오는 대승사 신중도(1868)을 비롯하여 30여점의 작품이 남아 있다.

에서 20세기 초에 크게 활약했던 화승들이다. 병풍의 겉면의 稜雲文과 ‘富’와 ‘喜喜’字는 당시 실제 사용되던 병풍을 모델로 한 듯 사실적으로 그려 넣었다. 도상의 배치는 그림의 주존인 치성광여래 삼존과 칠성여래, 28수 중 일부를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치성광여래에 대응되는 존재로서 도교의 복두칠원성군을 통괄하는 紫微大帝와 左·右 補弼星, 도교의 칠원성군 등이 배치되었다.

- 칠성도는 하늘에 수놓은 여러 성수(星宿)와 북극성, 복두칠성을 도해한 그림으로, 불교와 도교의 교섭을 보여주는 대표적 불화이며, 칠성각에 봉안한다. 칠성도의 주불인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을 여래화한 것이다. 치성광여래의 전체 이름은 ‘金輪佛頂熾盛光如來’로 『阿婆縛抄』에 등장하며, 관련된 경전으로는 『大妙金剛大甘露軍荼利焰熾盛佛頂經』과 『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災一切災難陀羅尼經』, 복두칠성과 관련해서는 『北斗七星念誦儀軌』, 『佛說北斗七星延命經』, 『北斗七星護魔秘要儀軌』 등이 있어 있다. 이들 경전에는 질병퇴지, 재앙소멸, 무병장수, 자손번창 등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의 위쪽에는 본존인 치광광여래와 일광·월광보살 삼존을 중앙에 두고, 좌측에 1·3·5·7의 칠성여래를, 우측에 2·4·6의 칠성여래를 나누어 그렸다. 화면의 아래쪽에도 중앙에 자미대제와 좌우보필성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칠원성군을 홀짝으로 상호 대응되게끔 배치하였다. 치성광여래와 칠성여래의 상·하 좁은 공간에는 拱手자세로 홀을 잡고 있는 18구의 도교적 인물을 배치하였는데, 28수(宿) 중의 일부만을 그려낸 것으로 생각된다. 산수병풍을 배경으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주로 시왕도(十王圖)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칠성도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와같이 병풍을 배경으로 그려진 예로는 1866년에 그려진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칠성도(경남 유형문화재 제381호)가 있으나, 등장인물을 여러 폭으로 나눠 그린 것이므로 관음사 칠성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 이 작품보다 1년 늦게 그려진 옥천사 연대암 칠성도(1893년)는 등장 인물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배경, 구도와 도상, 색채 등 모든 면에서 유사점이 인정되므로, 같은 지역 내에서의 교류와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 치성광여래와 칠성여래는 녹색의 두광과 화염이 표현된 신광을 갖추고 결가부좌하였으며, 붉은색 가사를 걸치고 수인은 설법인, 합장인 공수인 등 약간씩 변화를 두었으나 설법인을 결하고 있는 像이 가장 많다. 머리와 육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경계지점에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나타내었으며, 육계의 정상에는 구슬모양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콧날이 주먹코처럼 큼직하게 표현하여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었으며, 상·하체의 높낮이와 너비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안정된 비례감을 보인다. 얼굴과 육신부의 선은 육색보다 짙은 갈색 계통의 선을 사용하여 윤곽을 잡았으나, 다소 거칠게 구사한 느낌이 든다. 채색은 명·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을 대비시켜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짙은 코발트 계통의 청색을 포인트로 사용한 점은 이 시기 유행한 채색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청색과 녹색을 짙고 열게 톤을 달리처리하여 음영의 변화를 주었다. 칠성여래의 측면 위아래에 조그맣게 배치된 28수는 솟이 작은 머리를 쏘여 올려 상투를 묶었으며, 긴 수염이 바람에 휘날리듯 표현되었다. 호분으로 처리한 듯 새하얀 피부에는 먹바림으로 명암을 넣었으며, 미세한 붓질로 세밀한 표정을 드러내고자 했다.
- 하단에는 이에 대응해 제왕의 모습으로 표현된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이 묘사되

었다. 자미대제는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었고, 다른 성군과 구별되게 頭光 없이 질푸른 천으로 등받이를 장식한 의자에 앉아 차별을 두었다. 그의 좌우측에는 日·月冠을 쓴 左右補弼星을 배치하였다. 칠원성군은 의자에 앉아 원류관을 썼고, 녹색을 두광을 갖추고, 정면향을 취하였다. 성군과 성군 사이의 좁은 공간에는 7구의冠을 쓴 도교적 인물이 조그맣게 묘사되었는데, 이는 道佛習合 이전의 칠원성군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 윤곽선은 중간 정도 굵기의 선을 사용하였고, 좀 더 세밀한 표정과 표현을 연출하는 데는 가는 선을 사용하였고, 색채는 짙은 적색과 녹색을 주된 색으로 사용하였고, 짙은 청색을 강조색으로, 옅은 하늘색과 황토색, 주황색 등의 중간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19세기 후반기 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2) 종합의견

이 칠성도는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典琪 등의 제작자, 그리고 증명, 송주, 지진, 시주 등 제작체제와 후원자를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이다. 이 작품은 칠성도로서의 형식과 구성이 특색이 있고, 인물의 얼굴과 옷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하여 입체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었으며, 배경을 이룬 병풍은 실제 사용했을 법한 것을 화면의 중요 장치로 등장시킴으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작자의 재치와 실험 정신도 돋보인다 하겠다.

또한 주존과 권속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등장시킨 과격적인 시도와 병풍을 배경으로 마치 단체 사진을 찍듯 존상들을 배치한 구도와 형식은 개화기 전후의 신문물의 영향도 간취된다. 이 작품은 조선 말 근대기의 작가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결여진 불화로 판단되므로, 등록문화제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기]

光緒十八年壬」
 辰五月日造成」
 于伽倻山海印」
 寺國一菴奉」
 安于本菴」
 緣化秩」
 證明比丘 茵峰堂」
 學在」
 誦呪比丘 敬月有直」
 持殿比丘 敬龍學字」
 金魚秩」
 片手比丘 捷庵典琪」
 正連」
 文性」
 暢雲」
 尙昨」
 鍾頭 斗明」
 化主比丘 海訓」
 施主秩」
 童子丙戌生林永」
 旭保體永無災厄」
 壽命長願」

 乾辛巳生李尙元」
 乾辛卯生李重元」
 童子辛巳生朴重根」
 乾乙巳生李命根」
 坤甲寅生俞 氏」

率子壬申生學求」
婦壬申生李 氏」
次子戊子生學基」
各亡保休壽命長願」

同見無壽皆共」
成佛道

<○○○ 전문위원>

- 1) 현상
 - 유물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로 긴 화면과 그 아래에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화기란이 있다. 전반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쏠불로 인한 지름이 5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곳곳에 얼룩이 있다.
- 2)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가로로 긴 화폭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불교 존격인 치성광여래와 칠여래, 도교 존격인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을 상하로 나누어 병렬하고 그 주위에 권속들을 작게 배치한 <칠성광여래도>이다. 주존을 크게 표현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병렬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기란에는 1892년의 제작연도와 정련, 문성, 창운, 상오의 제작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존상들을 단체 사진을 찍듯이 배열하는 방식, 존상들 뒤에 수목화로 된 병풍의 묘사가 흥미로우며 채색에서도 흔히 사용하지 않던 올리브 그린의 중간색톤이 사용된 점이 이채롭다. 입체감을 표현이나 흘러내리는 천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는 근대적인 표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조성연도와 조성자가 밝혀져 있을뿐 아니라 보존상태로 양호한 편이고 제작기법에서 근대적 요소가 있음.
- 3) 종합의견
 - 진정성이 있으며 제작연도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보다는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추천함

안건번호 근대 2017-03-11

11. 「고령 관음사 신중도」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고령 관음사 신중도」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관음사 신중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11.25.)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 년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비고
고령 관음사 신중도	1점	[전체] 세로 121.0 × 가로 120.0(cm) [그림] 세로 113.0 ×가로 112.2(cm)	1908년	원일, 진규	면에 채색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47, 관음사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1.25.)>

- ○○○ 강사
 - 이 불화는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안정된 구성과 섬세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시기의 비슷한 유형의 불화들이 다수 남아 있고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이나 도상과 화풍에서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아 근대적 성격을 보여주는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 전문위원
 - 이 신중도는 1908년에 화승 원일과 진규가 해인사 백련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한 하단불화, 도상과 구도, 색채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신중도 형식과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으면서, 길은 적색과 녹색의 대비를 통해 다소 무겁지만, 군청과 금박을 많이 군청색과 금박을 사용하여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조선말 근대기 전통 불화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4위의 신장 등에는 바림을 통한 입체적인 명암법을 선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바림기법이며, 근대적 화풍은 거리가 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 ○ ○ 전문위원

- 화면의 중앙에는 황금투구를 쓰고 금강저를 든 위태천이 자리를 하고 있음. 그 앞으로 4位の 신장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위태천의 뒤편으로는 범천과 제석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천동과 천녀, 제왕형의 존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신중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도임. 전체적으로 존상들의 상호와 문양의 시문, 무구의 표현, 설채법 등 섬세하고 보존 상태로 양호한 편이지만 근대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움.

마. 의결사항

- 부결
 - 근대적 요소 미흡
- 출석 7명, 부결 7명

붙임 : 「고령 관음사 신중도」 조사보고서 1부.

「고령 관음사 신중도」 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령 관음사 신중도
2. 소재지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47, 관음사
3. 소유자 : ○ ○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4. 조사자 의견 <○ ○ ○ 강사>

1) 현상

- 이 불화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폭으로 89.5cm, 31.5cm의 면 두 폭을 상하로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 아래쪽에 화기란 두 곳에 조성 인연이 기록되어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확인 가능하다.
- 화면에 하단부에 두루 촛농이 튀어 오염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또 화폭 가장자리에 못자국이 군데군데 확인되지만 대체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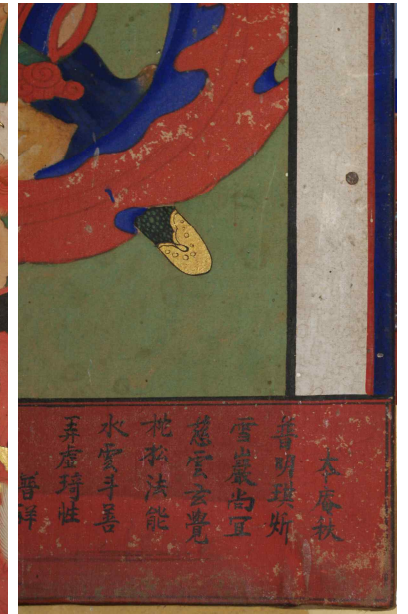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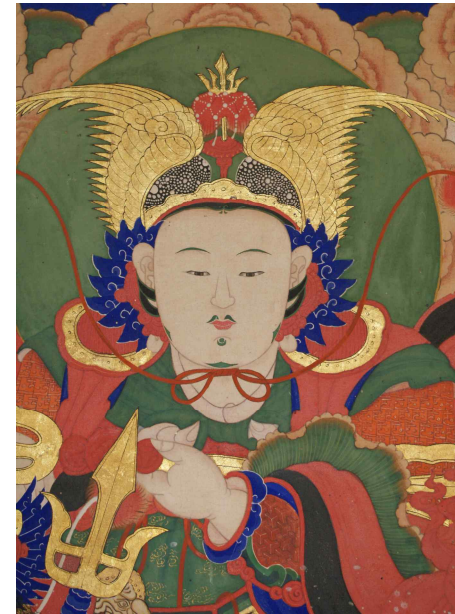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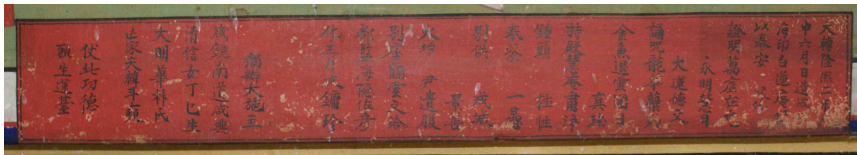
- 이 불화는 화기에 의해 1908년(隆熙二年) 6월에 제작하여 합천 해인사 백련암에 봉안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현재 관음전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도>와 함께 조성되었던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수화승으로는 <아미타여래도>와 마찬가지로 퇴운원일(退雲圓日)이 참여하고 진규(眞珪)가 함께 제작하였으며, 함경남도 함흥의 여신도인 박씨가 시주하였다. 퇴운원일이 제작한 불화가 이 두 작품을 포함해 대여섯 점 알려져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화면의 중앙에는 황금투구를 쓴 위태천이 금강저를 가로 들고 서 있고 그 앞으로 무장한 4位の 신장들이 병렬로 배치되었다. 위태천의 뒤편 화면의 위쪽에는 연꽃을 든 제석과 범천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 천동과 천녀, 그리고 홀을 든 제왕형의 존상이 있다. 즉, 화면의 중앙과 아래쪽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하는 호법신들의 군상과 화면의 위쪽에는 제석과 범천을 중심으로 하는 天部の 군상을 배치한 구성으로, 이와 같이 위태천을 중앙에 두고 V자의 구도로 제석과 범천을 배치하는 구도는 19세기 후반부터 보이는 전형적인 신중도의 구도 중 하나이다.
- 전체적으로 존상들의 상호와 문양의 시문, 무구의 표현, 설채법 등 매우 섬세하고 안정된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제작자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코발트 블루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불화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기타

- 이 불화는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안정된 구성과 섬세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시기의 비슷한 유형의 불화들이 다수 남아있고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이나 도상과 화풍에서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아 근대적 성격을 보여주는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주법당의 예배용 신중도로서 안정된 구성과 기법을 보여주는 불화인 만큼 보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근대적 성격이나 희귀성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음

<○○○ 전문위원>

1) 내용 및 특징

- 고령 관음사 신중도는 1909년 戊申 6月日 해인사 백련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한 제석·범천·천룡 불화이다. 그림을 그린 화원은 같은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설법도와 마찬가지로 圓日과 眞珪가 함께 그렸다. 그림의 증명은 萬虛在允, 永明慧日, 大蓮德文이, 化主는 月派鏞珍이 맡았다. 시주는 威鏡南道の 淸信女 大明華 朴氏의 獨辦施主(단독시주)로, 죽은 남편의 願生蓮臺(極樂往生)을 발원하였다. 장황형태는 액자식이며, 가장자리 여백은 백색 호분과 두터운 청색 선을 그어 마감하였다. 바탕은 2폭의 면을 상·하로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 제석·범천과 위태천을 역삼각 구도로 중심에 놓고, 그 주위를 호법신장과 면류관을 쓴 천자, 공양물을 올리는 천녀, 생황을 연주하는 천동 등을 배치한 간단한 형식의 신중도이다. 보살형의 제석과 범천은 두광을 갖추고 화려한 화염보관을 썼으며, 양손으로 白蓮을 들고 있다. 얼굴은 등금 넘적하며 이목구비는 단정하게 묘사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진 위태천은 날개를 펼친 투구를 쓰고 두 손을 가슴에 들어 금강저를 움켜쥐었다. 화면의 하단에는 4위의 무장한 호법 신중들이 자유롭고 위엄 있는 기세로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눈을 부라려 위협하거나 단호함을 드러난 얼굴표정에는 깊은 음영과 세필로 섬세하게 터치한 수염을 통해 호법신장의 위엄 있는 성격을 잘 드러내었으며, 손에는 장검과 화살, 三叉戟, 椎 등의 지물을 들었다. 아마도 팔부중 가운데 4위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하늘과 천의자락 등에는 짙은 군청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투구와 지물 등에는 금박으로 강조하였다. 화살통의 표면에는 원점문을 高粉채색으로 오돌토돌하게 올려 입체적인 효과를 내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채도가 높은 적색과 녹색을 대비시켜 밝고 화사한 느낌의 화취를 풍기며, 여기에 군청색과 금색, 연두색 등을 조화롭게 조채하여 온화한 화풍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제석·범천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점하며 역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 위태천의 배치는 1904년 양산 비로암 신중도 등 19세기 말에 제작된 신중도의 양식과 형식을 잘 계승하고 있다.

2)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신중도는 1908년에 화승 원일과 진규가 해인사 백련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한 하단불화, 도상과 구도, 색채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신중도 형식과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으면서, 짙은 적색과 녹색의 대비를 통해 다소 무겁지만, 군청과 금박을 많이 군청색과 금박을 사용하여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조선말 근대기 전통 불화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4위의 신장 등에는 바람을 통한 입체적인 명암법을 선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바람기법이며, 근대적 화풍은 거리가 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화기]

①

本庵秩
普明瑛圻
雪巖尙宜
慈雲玄覺
枕松法能
水雲斗善
弄虛琦性
普祥

②

大韓隆熙二年戊
申六月日造成于
海印寺白蓮庵仍
以奉安 緣化
證明 萬虛在允
永明慧日
大蓮德文
誦呪 龍華藥助
金魚 退雲圓日
眞珪
持殿 慧庵肅淨
鍾頭 桂性

奉茶 一愚」
 別供 戒城」
 景善」
 火埕 尹遺腹」
 別座 鶴雲文洽」
 都監 海隱佐彦」
 化主 月波鏞珍」

獨辦大施主」
 咸鏡南道咸興」
 清信女丁巳生」
 大明華朴氏」
 亡家夫韓斗甌」

仗此功德」
 願生蓮臺」

- 3)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근대적 성격이나 희귀성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음

<○○○ 전문위원>

- 1) 현상
 ○ 이 불화는 거의 정사각형이며 화면 아래의 화기란에 조성자와 조성연대가 기록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곳곳에 얼룩이 있음.
- 2) 내용 및 특징
 ○ 화면의 중앙에는 황금투구를 쓰고 금강저를 든 위태천이 자리를 하고 있음. 그 앞으로 4位の 신장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위태천의 뒤편으로는 범천과 제석의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 천동과 천녀, 제왕형의 존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신중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도임. 전체적으로 존상들의 상호와 문양의 시문, 무구의 표현, 설채법 등 섬세하고 보존 상태로 양호한 편이지만 근대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움.
- 3) 종합의견
 ○ 새로운 요소나 근대성으로 규정할만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움.

안건번호 근대 2017-03-12

12.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1.25.)**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 년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비고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1점	[전체] 세로 116.8 × 가로 164.7(cm), [그림] 세로 109.3 × 가로 157.3(cm)	1908년	원일, 진규	면에 채색	박근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 산 순 환 길 147, 관음사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1.25.)>

- ○ ○ ○ 강사
- 이 불화는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안정된 구성과 섬세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시기의 비슷한 유형의 불화들이 다수 남아 있고 오염과 손상이 있으며, 제작자의 개성적 특징이나 사실적 기법 혹은 도상과 화풍에서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아 근대적 성격을 보여주는 등록 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 ○ ○ 전문위원

- 이 불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도와 색채, 필선, 도상의 배치, 협시 권속의 자세, 단조로운 황갈색의 채운(彩雲) 등은 전반적으로 19세기 후반기 불화의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20세기의 요소를 담아 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유입된 근대적 화풍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전환기 새로운 화풍과 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 보다는 전통적인 불화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 ○ ○ 전문위원

- 화면의 정중앙에 아미타여래가 연화대좌에 앉아 있으며 좌우협시로 관음보살, 세지보살을 비롯한 4위가 반자좌의 자세로 자리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가섭, 아난, 지장보살을 포함한 4위의 보살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세부묘사에는 공을 들였으나 전반적으로 근대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움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 ○ 전문위원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설법도
 - * 아미타여래도로 명칭을 정할 경우 아미타여래 단일 상에 대한 그림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 ○ ○ 강사 : 고령 관음사 아미타설법도
- ○ ○ ○ 전문위원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바. 의결사항

- 부결
 - 근대적 요소 미흡
- 출석 7명, 부결 7명

붙임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조사보고서 1부.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2. 소재지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147, 관음사

3. 소유자 : 박근태(심담)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4. 조사자 의견

<○ ○ ○ 강사>

1) 현상

- 이 불화는 가로가 긴 화폭으로 68.2cm, 96.5cm의 면 두 폭을 좌우로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 아래쪽에는 화기란에 조성 인연이 기록되어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확인 가능하다.
- 본존인 아미타여래의 붉은 법의의 안료박락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청색 안료의 박락도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아미타여래 얼굴 항우측에 누수 등에 의한 세로 얼룩이 화면 위쪽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슴께까지 이어진다. 세지보살의 어깨에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큰 구멍이 뚫려있고 본존의 오른쪽 팔꿈치에도 손상이 있어 추후 보수가 요망된다. 또 화폭 상단에 못자국이 군데군데 확인된다. 화폭의 뒷면에는 목제패널 위로 종이를 바르고 붉은 색으로 다라니를 적었는데, 해충과 오염 등에 의한 손상이 심하다.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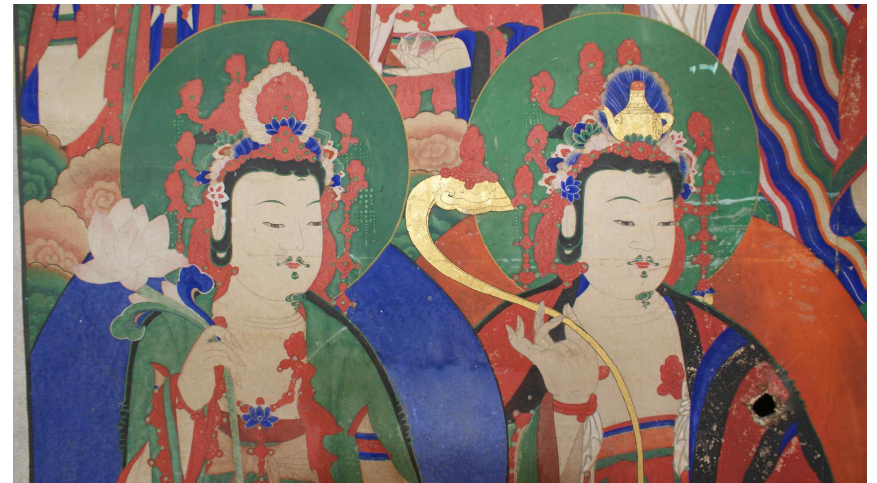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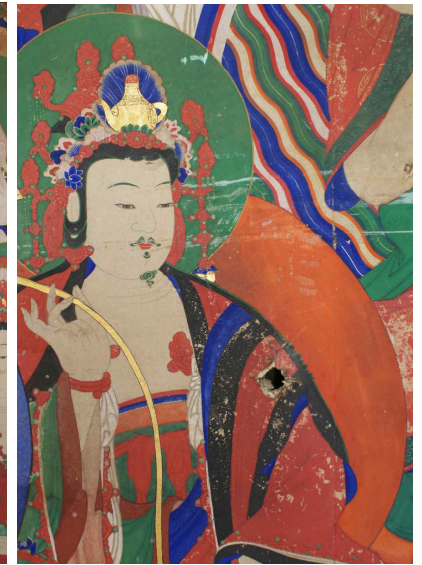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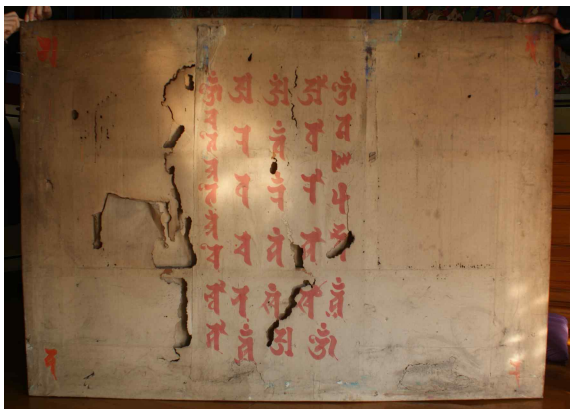
- 이 불화는 화기에 의해 1908년(隆熙二年) 6월에 제작하여 합천 해인사 백련암에 봉안했던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수화승으로는 퇴운원일(退雲圓日)이 참여하고 진규(眞珪)가 함께 제작하였으며, 함경남도 함흥 보문암의 사미니(沙彌尼) 대선(大善)이 시주하였다. 퇴운원일이 제작한 불화가 대여섯 점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화면의 중앙에는 아미타여래가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양쪽에는 협시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비롯한 4위의 보살이 반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그 뒤에는 가섭과 아난, 그리고 지장보살을 포함한 4위의 보살이 배치되어 있어 아미타팔대보살을 그린 불화임을 알 수 있다. 가로로 긴 화폭에 본존인 아미타여래와 불제자인 가섭과 아난 그리고 아미타팔대보살로 이루어진 간략한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본존의 법의에 장식된 원문과 화문을 제외하고는 시문된 것이 없어 다소 단순해 보이지만, 보살의 보관과 지물에 금을 사용하고 불보살의 상호를 비롯해 부분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안정된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제작자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코발트 블루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불화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불화는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안정된 구성과 섬세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시기의 비슷한 유형의 불화들이 다수 남아있고 오염과 손상이 있으며, 제작자의 개성적 특징이나 사실적 기법 혹은 도상과 화풍에서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아 근대적 성격을 보여주는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주법당의 후불화로서 안정된 구성과 기법을 보여주는 불화인 만큼, 聖寶로서의 보존을 위한 보수가 추후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안료박락, 화폭에 뚫린 구멍이나 뒷면의 해충에 의한 손상 등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수가 필요하다.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근대적 성격이나 보존 상태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음

<○○○ 위원>

1) 내용 및 특징

- ‘고령 관음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관음사의 주불전인 관음전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다. 그림의 장황은 액자식이며, 먼 바탕에 초를 내고 그 위에 채색을 올린 채색불화이다. 뒷면 네모통이에는 四方呪를 朱書하였고, 중앙부분에는 ‘六字大名王眞言’을 비롯하여 ‘一秘密悉地’, 次入悉地, 三出悉地 등 몇 가지 진언과 다라니를 朱書하였다. 화기에 따르면, 이 그림은 1908년 해인사 백련암에 봉안할 목적으로 그린 것이다. 작품 제작에는 虎隱文性(?-1918)을 증명으로 圓日과 眞珪가 화원으로 참여 하였고, 咸鏡南道 咸興 普門庵 沙彌尼 大善이 獨辦施主(단독시주)하였다. 특히 같은 해에 그려진 신증탱화와 함께 함경남도의 僧俗이 단독시주로 불화 제작에 참여한 점이 흥미롭다.
- 수화승 圓日은 용문사 상향각 아미타후불도(1884년)을 비롯하여 해인사 백련암 신증도(1908, 현 고령 관음사), 동화사 괘불(1924), 보살사 자운암 신증도(1930), 보살사 자운암 칠성도(1930) 등을 그렸다. 차화원 진규는 통도사 비로암 구품도(1904)를 비롯하여 10여점의 화적을 남기고 있으며, 초반기에는 원일과 같이 활동을 펼쳤다.
- 이 그림은 아미타여래가 서방 극락정토에서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다른 존상에 비해 크게 부각시킨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팔대보살, 가섭·아난 양대 존자만을 등장시킨 간단한 형식의 설법도이다. 중앙의 본존을 중심으로 2단 구도를 이루고 있다.
- 본존 아미타여래는 화면의 정중앙에 낮은 방형의 수미단 위에 연화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었으며, 테두리는 백·적·청 등 삼색으로 마감하였다. 신광의 안쪽에는 불신에서 放光하는 五色의 영롱한 빛을 표현하였다. 머리는 낮고 육계는 팽이모양으로 뽕족하게 솟았으며, 그 위에 둥근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본존의 얼굴은 둥글 납적하며, 이목구비는 단정하나 콧날이 큼직하여 개성이 뚜렷하다. 건장한 신체에는 짙은 적색바탕에 깊은 청색과 녹색으로 처리하였고, 오른쪽 어깨를 드리운 변형식 편단우견으로 걸쳐 입었다. 불의(佛衣)의 표면에는 黃色 圓文 속에 넝쿨문을 그려 넣었고, 녹색의 옷깃에는 백색의 蓮花雲文을 더하였다.
- 본존의 아래쪽 좌측에는 보관에 化佛을 갖추고 백련을 든 관음보살과 황색 여의들 든 문수보살이 자리 잡았고, 우측에는 보관에 보병을 갖추고 금색 여의를 든 대세지보살과 백련을 든 보현보살이 자리 잡았다. 이들은 모두 결가부좌를 풀어 헤치고 편안히 앉은 반가좌로 내린 발은 연꽃 위에 올려 놓았다. 모두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는데,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녹색과 두광과 주황색 신광으로 짝을 맞추었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身光색을 연보라색과 청색으로 달리 채색하여 변화를 주었다. 여기에 더해 안쪽에 앉은 관음과 대세지보살과 바깥쪽에 앉은 문수와 보현보살 크기를 달리하거나 오행감이 드러나게 겹쳐 미세한 원근감을 나타내었다. 위쪽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금강장보살과 제장예보살이 한층 작게 묘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녹색의 두광을 갖추고, 지장보살만 보주를 왼손으로 받쳐 들었고 나머지는 모두 합장하였다.
- 본존불의 앞쪽에 배치된 협시보살과 권속들이 반가좌로 앉은 형식과 길고 탁한 적색과 녹색의 대비시킨 점, 짙은 청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방광하는 오색광배, 천공을 가득 채운 단조로운 황갈색 구름, 지물 등에 금박을 과감하

게 사용한 점, 사천왕상과 권속들을 생략한 점, 면본채색이라는 점 등은 1879년 작 동화사 엽불암 아미타여래도나 1896년 선석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899년 양산 비로암 영산회상도 등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전통 불화의 형식과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2) 종합의견

- 이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908년에 원일과 진규가 함께 그린 작품으로,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색채는 주로 명·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속에 짙은 군청색과 금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였고, 필선은 비수가 두드러지지 않는 2-3가지의 먹선과 색선을 혼용하였다. 인물의 세부표현에는 바림과 색의 농담과 변화를 통한 입체적인 명암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 불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도와 색채, 필선, 도상의 배치, 협시 권속의 자세, 단조로운 황갈색의 채운(彩雲) 등은 전반적으로 19세기 후반기 불화의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20세기의 요소를 담아 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유입된 근대적 화풍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전환기 새로운 화풍과 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불화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화기]

大韓隆熙二年
戊申六月日造
于海印白蓮庵
仍以奉安
緣化
證明 虎隱文性
寶潭寶荷
應海大容
龍虛瑞雲
誦呪 龍華藥助
滿月琪蓮
在聖
金魚 退雲圓日
眞珪
持殿 東明斗寅
鍾頭 桂性
淨桶 白牛在明
供司 斗三
義文
別座 鶴雲文洽
都監 海隱佐彦
化主 月波鏞珍

獨辦施主
咸鏡南道咸興
普門庵
沙彌尼大善

願共諸衆生
同成正覺

<○○○ 위원>

1) 현상

- 이 불화는 직사각형의 화면에 그려져 있고 하단의 화기란에 조성자와 조성연대가 기록되어 있음. 구멍이 뚫렸으며 안료 박락이 심한 편이고 얼룩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화면의 정중앙에 아미타여래가 연화대좌에 앉아 있으며 좌우협시로 관음보살, 세지보살을 비롯한 4위가 반자좌의 자세로 자리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가섭, 아난, 지장보살을 포함한 4위의 보살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세부묘사에는 공을 들였으나 전반적으로 근대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움

3) 종합의견

- 새로운 요소 혹은 근대성으로 규정할만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움.

13. 「천로역정 목판」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천로역정 목판」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로역정 목판」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5. 3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 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비고
천로역정 목판	69점	44.0×21.5cm	1895년	목판	나무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19(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목록화(78건),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 5. 30.)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7. 2. 8.)>

- ○ ○ ○ 위원
 - 『턴로력당』 목판의 가치는 외국인이 간행한 한글 목판본이라는 점과 김준근이 그런 삽화 42점이 들어있다는 점이 크다. 곧 이 목판을 통해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 사상을 한글과 삽화를 통해 친밀하고 도착화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쪽 크기의 삽화 목판의 존재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어권 문학작품의 최초번역물을 생산한

목판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 다만 현재 전하는 69매(면수로는 122.5면)의 목판은 전체의 29.3%에 불과한 분량이고, 김준근의 삽화 목판은 한 점도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목판으로는 “20세기 초기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고, 근대화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목판 간행과 그 교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1종 691매의 『박문서관 목판 일괄』(제541호, 2013.04.17.)이 있다.
 - *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현존 목판이 전체 수량에 비해 적으며, 특히 김준근의 삽화목판은 1매도 없음. 논의가 필요함.

○ ○ ○ ○ 연구위원

- 1895년 목판본 『천로역정』을 발행했던 목판으로 개신교 관련 목판으로 최고 유일한 유물이며, 삽화 42면을 비롯한 유실된 면이 있기는 하나, 그런 대로라도 문화재로 등록 보존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 ○ ○ 교수

- 이 목판은 선교사 게일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선교를 위해 번역 출판한 『턴로력당』의 목판본으로써, 그 원저가 서양문화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 책도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선교, 문화, 역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첫 근대 번역 소설이라는 점에서 국어학 및 국문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 이 목판은 이와 같이 귀중한 책의 원판을 새긴 판목이라는 점에서 유일하며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전체 202점 가운데 삽화 부분은 전혀 없이 글씨부분 69매만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다른 목판본 존재 등 검토 필요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천로역정 목판」 조사보고서 1부.

「천로역정 목판」 조사보고서

1. 명 칭 : 천로역정 목판

2.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19(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 소유자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전체 목판의 29.3%인 69매이며, 간행시기에 비해 보존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함.

2) 내용 및 특징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턴로력당』 목판 69매이다. 이 목판은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 The Trilingual Press)에서 1895년에 『턴로력당』을 간행할 때의 목판이다. 이후 배재학당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08년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이관되었다고 한다.
- 처음 목판 수가 몇 매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남아있는 목판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면 또는 한 면에 판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전하는 인본의 전체 장수와 대비하면 결실된 장은 추정해 낼 수 있다. 목판본의 편성은 표지, 영문표제지 1장(신활자판), 한글표제지 1장(목판), 서문 4장(목판), 사람이름 해설 5장(목판), 지명이름 해설 2장(목판), 본문 202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활자로 찍은 영문 표제지를 제외한 목판의 전체 장수는 214장(418면)이다. 현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목판 수는 69매(면수로는 122.5면)이므로 대략 전체의 29.3%에 해당되며, 보존 상태는 마구리가 결실된 것이 있는 등 간행시기에 비해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⁶⁾
- 목판은 광곽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인본에서 그 차이가 제법 드러나며, 목재 역시 고급 수종은 아니다. 무게는 가벼운 것은 0.94kg(144/145장), 무거운 것은 1.53kg(127/128장) 등이 있으나 대개는 1.4-1.5kg 정도이다. 제144장과 제187장에는 오자(誤字)를 바로 잡고자 매목을 해 놓았는데 제144장에 매목된 “비를”이라는 작은 글자는 현재 탈락되어 있다.
- 현재 남아있는 목판 69매는 앞뒤 양면 모두 판각된 것, 한 면에만 판각된 것 그리고 한 면에 판각된 것 중 반쪽(좌우 어느 한쪽 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표1>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소장 『턴로력당』 목판 69매의 판각형식⁷⁾

양면 판각	한 면 판각	한 면 판각 반쪽
19/20, 22/24, 25/26, 28/46, 30/31, 33/34, 35/36, 37/39, 41/42, 43/44, 49/50, 54/56, 57/58, 62/64, 65/66, 67/68, 70/71, 73/75, 77/78, 79/80, 83/84, 86/87, 88/89, 90/92, 93/94, 101/103, 104/106, 107/109, 114/115, 117/118, 119/120, 123/124, 125/126, 127/128, 130/131, 132/134, 135/136, 144/145, 150/152, 153/154, 157/158, 159/160, 164/165, 166/168, 169/170, 171/172, 173/174, 175/176, 177/178, 181/182, 183/184, 185/186, 187/190, 193/194, 196/197, 198/200	138, 139, 161, 179, 180, 188, 189, 191	55, 85, 129, 143, 149
56매	8매	5매

- 이 중에서 양면 또는 한 면에 판각하는 것은 목판본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물론 한 면에만 판각한 것은 판각작업을 여럿이 나누어 할 때 발생하거나 판각하기 어려운 목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장의 차례대로 판각되지 않은 점도 현전하는 다른 목판에서도 제법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목판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점은 단면으로 판각된 목판 중에서 <사진 1>과 같은 반쪽크기의 목판 5매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인본을 통해 대비해보니 나머지 반쪽은 모두 삽화 면이었다.
- 이 목판들은 절단된 면을 보아 후대에 절단된 것이 아니고, 목판의 완성 때부터 절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목판의 완성 이전에 반쪽크기 목판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목판의 완성 이후 어떤 이유로 절단된 것인지는, 반쪽크기 목판과 목판본의 해당 면을 서로 대비하면 알 수 있다.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쪽크기의 목판에 해당되는 인본은 문자면과 삽화면의 테두리가 어긋나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국내전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전하는 반쪽크기 5매의 해당 면뿐 아니라 삽화가 수록된 42면 모두가 그렇다. 그렇다면 반쪽짜리 목판은 1895년 간행당시 이미 절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6)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개신교)분야 조사보고서』(2015)에 따르면, 목판 69매 중에는 부분적으로 흰색 곰팡이가 핀 목판이 15매(31, 43, 44, 67/68, 83/84, 90/92, 93/94, 104, 126, 134, 152, 153/154, 164, 171/172, 177), 마구리가 손상되거나 결실된 목판이 11매(41/42, 54/46, 65/66, 70/71, 125/126, 139, 173/174, 177/178, 180, 181/182, 190), 균열이 있는 목판이 13매(19/20, 62/64, 77/78, 114/115, 117/118, 135/136, 123/124, 153/154, 157, 180, 193/194, 196/197, 198/200), 나무에서 진이 나와 있는 목판 1매(76), 오자를 바로잡기 위해 매목한 목판 1매(187), 글씨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목판 1매(144)가 있다.

7) 아라비아 숫자는 장수를 나타냄.



<사진 1> 왼쪽은 반쪽크기의 인본(제 55장 문자면), 오른쪽은 해당면의 목판



<사진 2> 왼쪽은 제55장, 오른쪽은 제85장의 삽도면

- 이렇게 한 장의 목판이 절단된 이유는 문자면과 삽화면의 판각처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곧 삽화가와 삽화의 판각자가 문자의 판각자들과 함께 작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혹은 목판을 상호 이동하면서 판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나누어 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을 간행하기 전해인 1894년 연말에 원산에 거주하던 게일(Gale, J. S., 1863~1937)은 1895년 1월 5일 원산에서 “삽화를 준비하느라고 (김준근과)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고 장로회 선교부 총무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렇게 『턴로력당』에 편입될 삽화를 그린 화가, 번역의 책임자인 게일이 원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 우리나라의 목판본 중에서 불경의 변상도와 같이 삽화가 수록된 책은 적지 않으나 『턴로력당』과 같은 크기의 많은 삽화가 수록된 책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도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삽화와 관련된 주역들은 삽화 42점을 목판 1장 크기로 하지 않고, 목판의 좌우 어느 한 쪽에 둘 수 있는 반쪽의 크기로 정하였다. 곧 삽화가 들어가는 목판 42매는 반은 문자면, 반은 삽화면과 같이 꾸미고자 한 것이었다.
- 이렇게 간행일정은 정해져 있는데다 양쪽의 판각자들이 함께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쪽크기의 삽화를 판각하는 일은 미리 목판을 반으로 절단하여 판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삽화는 모두 반쪽크기의 목판에 판각되었고, 그에 상대되는 문자면 역시 반쪽크기의 목판이 된 것이다.
- 삽화를 위한 목판의 분리는 문자가 판각된 목판의 관심부분을 제외하고 절단하였다. 그래서 삽화가 있는 반쪽크기의 목판은 문자가 있는 반쪽크기의 목판보다 크기가 작을 것이다. 이 정도 크기의 목판이라면 휴대도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게일이 같은 해에 중국에서 발행된 신활자본을 위해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턴로력당』 목판의 가치는 외국인이 간행한 한글 목판본이라는 점과 김준근이 그린 삽화 42점이 들어있다는 점이 크다. 곧 이 목판을 통해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 사상을 한글과 삽화를 통해 친밀하고 토착화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쪽 크기의 삽화 목판의 존재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어권 문학작품의 최초번역물을 생산한 목판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 다만 현재 전하는 69매(면수로는 122.5면)의 목판은 전체의 29.3%에 불과한 분량이고, 김준근의 삽도 목판은 한 점도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목판으로는 “20세기 초기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고, 근대화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목판 간행과 그 교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1종 691매의 『박문서관 목판 일괄』(제 541호, 2013.04.17.)이 있다.
- 4) 종합의견
 -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현존 목판이 전체 수량에 비해 적으며, 특히 김준근의 삽화목판은 1매도 없음. 논의가 필요함.

<○○○ 연구위원>

1) 현상

- 대체로 한 판의 앞 뒷면에 글자가 양각되어 있으며, 앞면에 두 쪽(페이지), 뒷면에 두 쪽(페이지)으로 되어 있으나, 앞 면에만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없

는 경우도 있으며, 반쪽 크기에 한면만 글자가 새겨진 경우도 있다. 삽화가 들어간 목판은 없다. 판목에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쓴 것도 있으면, 판목이 휘어지거나 금이 가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 대부분 마구리(손잡이)가 붙어 있으나, 마구리가 손상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향온향습 시설에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2) 내용 및 특징

- [현존하는 목판] (숫자는 목판본『천로역정』의 면수, /는 판목의 앞뒤면 구분)
19/20, 22/24, 25/26, 28/46, 30/31, 33/34, 35/36, 37/39, 41/42, 43/44, 49/50, 54/56, 55, 57/58, 62/64, 65/66, 67/68, 70/71, 73/75, 77/78, 79/80, 83/84, 85, 86/87, 88/89, 90/92, 93/94, 101/103, 104/106, 107/109, 114/115, 117/118, 119/120, 123/124, 125/126, 127/128, 129, 130/131, 132/134, 135/136, 138, 139, 143, 144/145, 149, 150/152, 153/154, 157/158, 159/160, 161, 164/165, 166/168, 169/170, 171/172, 173/174, 175/176, 177/178, 179, 180, 181/182, 183/184, 185/186, 187/190, 188, 189, 191, 193/194, 196/197, 198/200
- [목판본『천로역정』]
번역대본 :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번역자 : Mr. and Mrs. James. S. Gale
교열 : 이창직(李昌植)
삽도 : 김준근(金俊根)
출판사 : Seoul, The Trilingual Press(三文出版社).
출판년도 : 1895년
반엽 11행 20자, 28.8×20.0(cm), 권지일 “일~일백장”, 권지이 “백일~이백이장”.
- [출판 경위] 이 책의 번역자 게일은 1888년 12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YMCA 파송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1년 8월 미북장로회 한국선교부로 소속을 옮기고 1892년 4월 의사 헤론의 미망인 김슨(Mrs. Harriet Gibson Heron)과 결혼하고 6월부터 원산선교지부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 책의 번역은 1890년 서울에서 언더우드의 권유로 시작하였으며, 부인 김슨도 1890년 7월 헤론이 죽은 후 이 책을 번역하고 있었다. 결혼 후 이들은 공동으로 번역하여 1892년 8월 6일 이 책 번역 중 절반 부분을 이미 서울 “Track Society”에 넘겨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책의 번역을 마치고 김준근과 함께 이 책의 삽화와 출판을 준비한 것은 1894년 12월 27일이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895년 서울 삼문출판사에서 목판본 2권으로 출판하였다.
- [내용 및 특징] 순한글 번역이며, 원본에는 인용된 성경 구절이 많으나 번역본에는 이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내용은 원문을 완역(完譯)한 것이 아니라 쉽게 서술체로 풀어쓴 초역(抄譯)이다.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중국어역본의 한자역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 많으나, 원문이나 중국어역과 다르게 창작하여 쓴 것도 있다.
- 특히 김준근이 그린 42편의 삽도는 한국 인물 풍속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인이 이질감 없이 친근하게 이 책을 접하고, 삽도만 보아도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친근한 이미지에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담아내고자 했던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라고 할만 하다.

3)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김병철, 『한국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75.
- 김동언, 『턴로력당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1998.
- 박기선, 「턴로력당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박기선, 「개화기 한자 어휘의 변천에 관한 小考-‘턴로력당’의 異本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37쪽~64쪽.
- 박효은, 「『턴로력당』 挿圖로 읽는 救援의 길」, 『턴로력당 삽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58쪽~67쪽.
-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한국기독교와 역사』 31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199쪽~227쪽.
- 박정세, 『기독교 문학과 삽화의 도착화』,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유영식, 『착한 글씨,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1, 2』, 도서출판 진흥, 2013.

4) 기타

- 1895년 목판본『천로역정』을 발행했던 미북감리회에서 운영하던 삼문출판사에서 이 책을 발행할 때 썼던 목판으로 그후 이 유물을 배재학당에서 관리하다가 2008년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수장고와 향온향습 시설을 갖추고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이관하여 소장 보관하고 있다.

5) 종합의견

- 1895년 목판본『천로역정』을 발행했던 목판으로 개신교 관련 목판으로 최고 유일한 유물이며, 삽화 42면을 비롯한 유실된 면이 있기는 하나, 그런 대로라도 문화재로 등록 보존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교수>

1) 현상

- 이 목판(하단 좌측)들은 배재대학교 역사박물관에 현재 69점(별지 참조)이 소장(하단 우측)되어 있다. 양쪽에 마구리가 있는 이 목판들은 앞뒤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과 단면만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 또한 일부는 좌우가 아니라 한쪽만 새겨져 있고, 목판자체가 반쪽으로 마구리 없이 만들어진 것들 있다. 수장고에서 향온향습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무서가에 세워 진열한 69점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목은 흰색 곰팡이가 핀 것이 있다. 또한 일부 판목은 마구리가 손상되거나 결실되어 있으며, 일부는 글씨의 오자를 바로잡느라고 후대에 따로 판각해서 보충해 넣은 것도 있다.(실사시 확인한 ‘배재학당 작성’ ‘천로역정 목판 상태 표’ 참조 : 다음 쪽 사진)



천로역정 목판 상태 표					
일련번호	목판번호	글자어	목판 일련번호	파우라 순서	기타
1	15/20		15/20		
2	22/24				
3	25/26				
4	28/48				
5	30/31	31			
6	33/34				
7	35/36				
8	37/38				
9	41/42			41/42	
10	43/44	43/44			
11	49/50				
12	54/56			54/56	
13	55				반면만 있음
14	57/58				
15	62/64		62/64		
16	65/66			65/66	
17	67/68	67/68			
18	70/71			70/71	
19	73/75				나뉘어 새것으로 보아 82도 부분 있음(리)
20	77/78		77/78		
21	79/80				
22	83/84	83/84			
23	85				반면만 있음
24	96/97				파우라 부분제 미완성 나뉨
25	98/99				
26	99/100	99/100			
27	99/104	99/104			
28	101/103				
29	104/106	104			
30	107/108				
31	114/115		114/115		
32	117/118		117/118		
33	119/120				

34	123/124		123/124		나뉘어 새것으로 보아 82도 부분 있음(리)
35	125/126	126		125/126	
36	127/128				
37	129				반면만 있음
38	130/131				
39	132/134	134			
40	135/136		135/136		
41	138				파우라 다 있음
42	139			139	파우라 다 있음
43	143				파우라 다 있음
44	144/145				144면 글씨 일부 탈락
45	149				반면만 있음
46	150/152	152			
47	153/154	153/154	153/154		
48	157/158		157		
49	159/160				
50	161				파우라 다 있음
51	164/165	164			
52	166/168				
53	169/170				
54	171/172	171/172			
55	173/174			173/174	
56	175/176				
57	177/178	177		177/178	
58	179				파우라 다 있음
59	180		180	180	파우라 다 있음
60	181/182			181/182	
61	183/184				한글박물관 대여 중
62	185/186				상설전시실 전시 중
63	187/188			190	187면 글씨 복원
64	188				파우라 다 있음
65	189				파우라 다 있음
66	191				파우라 다 있음
67	193/194		193/194		
68	196/197		196/197		
69	198/200		198/200		

<천로역정> 목판 상태 표

2) 내용 및 특징

- “천로역정 목판”의 원제목은 “턴로력당 목판”으로, 1895년 감리교에서 운영했던 삼문출판사에서 1895년에 『턴로력당』을 간행할 때 제작한 목판으로, 그 유물을 배재학당에서 간직하고 있다가 2008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 개관하자 이관한 것이다.
- 이 책의 원전인 『천로역정』(John Bunyan, Pilgrim's Progress, 1678)은 근대 서양 소설의 효시로, 제 4판(1680)부터 삽화가 들어가게 되어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기독교(Christian)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한 내용으로, 1830년에는 영국정전문학(English Literature Canon)으로 명명되었고,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히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895년에 『턴로력당』으로 번역되었는데, 번역자 게일(James Scrth Gale, 1863-1937, 奇一)은 1888년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당 대학 YMCA로부터 선교사로 임명받아 한국에 왔다 그는 먼저 수년간 당시 당시의 조선을 여행하고 한국의 고전을 공부한 후 성서번역과 더불어 이 책을 번역하였다. 원본에 맞추기 위해, 그는 당시 개항장의 풍속화가로 유명한 김준근(호箕山)과 협의하여 원본 삽화를 과감하게 토착화하여 함께 실었다.
- 이 책은 2부 구성에 맞추어 2권으로 간행되었는데, 1권은 서문과 목차 11면과 본문이 목판 96면까지 수록되어 있고, 제2권은 목판 97면부터 202면 까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글씨부분은 총 213면 이고 판화 목판은 42면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목판에는 김준근의 삽화 목판은 들어 있지 않고 글씨부분만 69점이 있는 상태이다.

3) 문헌자료

- 김동언, 『턴로력당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1988.
- 신선영, “기산 김준근 풍속화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20 (2006)
- 박효은, “『턴로력당』 삽화와 기산 풍속도” 숭실사학 21 (2008)
- 황정하, “개화기의 인쇄 출판문화와 『턴로력당』”,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 2 (2010.2)
- 한철호, “배재학당 삼문 출판사와 개화기 문화”,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연구집』 2 (2010.2)
- 박정세, 『기독교 문학과 삽화의 토착화-‘천로역정’에서 ‘만사성취’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4) 종합의견

- 이 목판은 선교사 게일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선교를 위해 번역 출판한 『턴로력당』의 목판본으로써, 그 원저가 서양문화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 책도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선교, 문화, 역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첫 근대 번역 소설이라는 점에서 국어학 및 국문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 이 목판은 이와 같이 귀중한 책의 원판을 새긴 판목이라는 점에서 유일하며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전체 202점 가운데 삽화 부분은 전혀 없이 글씨부분 69매만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4. 「천로역정」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천로역정」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로역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7. 2. 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천로역정	5권 (목판본:2집 4책, 신활자본:1책)	목판본 (286×19.9cm), 신활자본 (281×20.1cm)	1895년	목판본, 신활자본	목판본 : 닥종이 신활자본 : 중국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목록화(78건),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검토 현장조사 실시('16. 4~6월)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등록검토 현장조사 실시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검토 회의('16. 9. 21.)
 - 보다 완전한(삽화가 있는 점 등)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을 등록검토 대상으로 선정
-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본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7. 2. 8.)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7. 2. 8.)>

○ ○ ○ ○ 위원

- 『턴로력당』은 최초의 번역 문학서이자 19세기 말기의 한글 정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현대식 인쇄출판을 통한 기독교문화와 복음전파 그리고 외래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김준근의 삽도는 토착적인 전통이 반영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가 된다. 이렇게 『턴로력당』은 국어학, 개신교,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다.
- 또한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발행한 사례는 우리나라 인쇄 출판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한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 5책을 『천로역정(합집)』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 ○ ○ 연구위원

- 『천로역정』(1895년)은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서(같은 해에 『아라비안 나이트』를 일본어 역에서 중역한 필사 초고본 『유옥역전』이 있으나, 출간된 것은 아니다) 국어국문학사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한국화적인 삽화가 들어 있어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된다. 더욱이 목판본은 송실대 박물관 소장본보다 보존 상태가 더 양호할뿐 아니라, 같은 해 출판된 활자본 『천로역정』도 함께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묶어서 하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한국기독교 초기 신앙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 ○ ○ 전문위원

- 게일이 편찬한 『턴로력당』(1895)은 기독교 선교와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국문체로 번역한 한국 최초의 서양소설 번역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문학적으로 당시의 한글 문체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책자이다.
- 연세대 학술원에는 『턴로력당』 목판본 2집이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인쇄본 1책이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 하지만, 향후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턴로력당』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할 지 여부를 판단되어야만 한다.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위원 : 천로역정(합질)
 - *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동시에 발행된 사례는 우리나라 인쇄 출판사상 초유의 일로 추정되며, 『턴로력당』 초판본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을 완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희소적 가치가 크므로 ‘합질’이라 표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천로역정(합질)」로 함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천로역정」 조사보고서 1부.

「천로역정」 조사보고서

1. 명 칭 : 천로역정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4. 조사자 의견

<○○○ 위원>

- 1) 현상
 - 목판본은 온전함. 신활자본은 개장되었으나 본문은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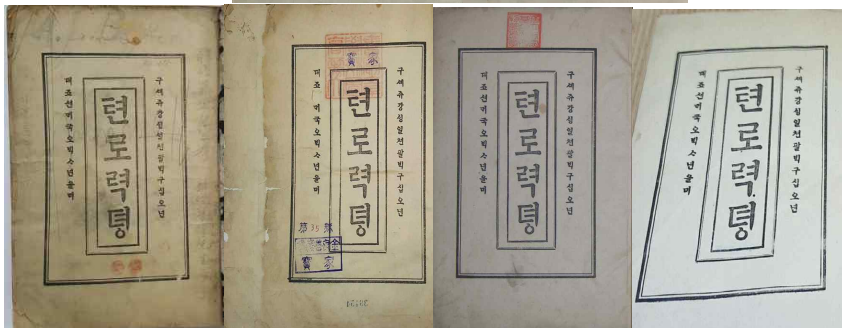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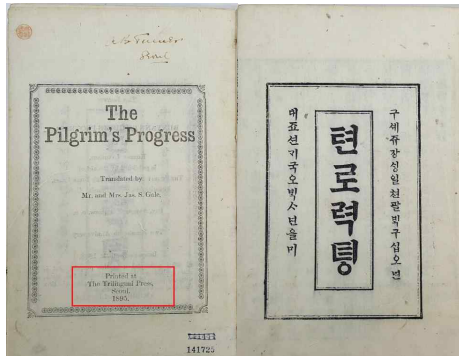
<목판본>

턴로력당 / 제일부부 역; 김준근 삽화
목판본
서울: 삼문, 고종 32(1895)
2책: 삼도, 사주쌍변, 반곽 21.7×16.1cm, 유계, 반엽 11행20자, 내향3엽화문어미; 28.6×19.9 cm
표제(標題), 권수제, 판심제: 『턴로력당』
원서명: Pilgrim's progress
간기: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대조선기국오백스년을미(1895)
서: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스년 원산성회괴일서

<신활자본>

턴로력당. 권상 / 제일부부 역; 김준근 삽화
신활자본
[상해]: [미상], 1895
1책: 삼도, 사주쌍변, 반곽 21.7×16.2cm, 유계, 반엽 18행33자, 상흑어미; 28.1×20.1 cm
권수제, 판심제: 『턴로력당』
원서명: Pilgrim's progress
간기: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대조선기국오백스년을미(1895)
서: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스년 원산성회괴일서

- 『턴로력당』은 영국 설교가이자 작가인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17세기 영국 청교도 문학 대표작인 『The Pilgrim's Progress』의 한글번역서이다. 초판은 1678년, 제2판은 1684년에 간행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 선교사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부부가 한국인 이창직(李昌植, 1866~1936)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1895년에 출판한 것이 처음이다. 이 『턴로력당』은 번연의 작품 중 제1부(『크리스천의 순례』)만을 번역한 것이다. 내용은 크리스찬이란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이야기이다. 『天路歷程』이라는 서명은 1853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번스(W. C. Burns, 1815~1868)가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붙인 것이다. 이 초판본은 약간의 이설은 있으나 우리나라 서양문학의 번역물의 효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중국어역본을 많이 참조했다는 평가도 있다.
- 게일이 쓴 초판본 서문에는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삼년원산성회기일서”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번역은 한 해전인 1894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일은 1888년에 조선에 입국한 뒤 1891년에는 원산에 교회를 설립하였고, 1927년 조선을 떠날 때까지 선교 활동과 더불어 신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다. 그는 특히 “god”의 번역에 대해 일본의 번역어인 “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번역하였다.
- 이 번역본은 1895년에 배재학당의 출판기관인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 The Trilingual Press)에서 『턴로력당』이라는 서명으로 목판본(사진 <1>의 위), 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동일한 서명의 신활자본(사진 <1>의 아래) 등 2종으로 발행되었다.



<사진 1> 위는 목판본의 韓英文 표제지.

아래는 신활자본의 표제지(왼쪽부터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 서울대소장본)

- 목판본은 국내의 삼문출판사에서 간행된 사실이 목판본에 표시되어 있으나 신활자본이 어디에서 간행되었는지는 신활자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Richard Rutt(1925~2011)의 글이 단서가 된다. 곧 Rutt는 두 종류의 『턴로력당』의 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게일은 이창직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완성하였고, 1895년에 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서울에서 발행되었다. 그것은 감리교인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에서 한지에 찍은 목판본 두 책으로 전통적인 멋진 장정(선장본)이었다. 금속활자로 찍은 또 다른 판은 1893년 여름 게일이 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상해(上海)에서 신식 중국종이에 인쇄되었다.”⁸⁾

- 그러므로 신활자본은 상하이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신 1893년에 간행되었다는 내용은 삼도가 1895년 초에 거의 완성되었다는 게일의 편지로 볼 때 오류인 셈이다.
- 두 판본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판식형태로 인쇄되었고, 선장으로 장책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으나 차이도 없지 않다. 곧 목판본 2책은 능화문양의 황색표지 왼쪽에 각각 『턴로력당 상·하』라는 제침이 붙어 있고, 붉은 실로 꿰맨 4침본이다. 첫 장은 영문 표제지(Title page)인데 여기에는 “『The Pilgrim's Progress』, Translated Mr. and Mrs. Jas. S. Gale, Printed at The Trilingual Press, Seoul. 1895”와 같이 원서명과 번역자, 출판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후면에는 이 『턴로력당』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일학교교사 성경연구회”(The Sunday School Teacher's Bible Class)의 지원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음 장은 한글판 표제지인데 가운데에 『턴로력당』이라는 세로의 한글 서명이 있고, 오른 쪽에는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삼년”, 왼쪽에는 “대조선 지국오백스년을미”와 같이 표시해 놓았다. 다음은 게일의 서문과 목차에 이어 본문은 “턴로력당권지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권상”이란 한글본의 권차(卷次)가 아니라 영문판 원본의 제1부(『크리스천의 순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책은 권하로 시작되지 않고 제1책에 이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제1책은 모두 113장, 제2책은 102장이다.
- 현재 국내에 전하는 동일한 판본 중에서 완본(2책)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2권),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예장한국교회기념관, 기독교문서, 범우사 등에도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이외에도 발행된 지 1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전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 이에 비해 신활자본은 목판본과 내용이나 표기는 동일하나 작은 활자를 사용하

8) Richard Rutt (1925-2011),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72), p.27, “Gale completed this with help of Yi Ch'angjik, and the book was published in Seoul by the presbyterian mission in 1895. It was a woodblock edition printed on Korean paper by the Trilingual Press at the methodist Paejae School, in two handsome old-style Korean volumes. Another edition, in metal type, was printed on modern Chinese paper in Shang-hai, where Gale had taken the whole family for a visit in the summer of 1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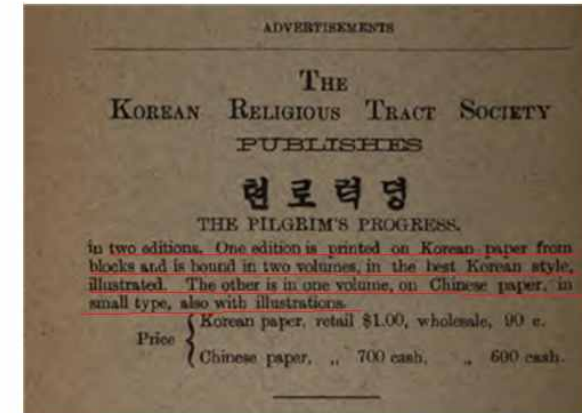
9)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에도 완본 2책이 있고, 결본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하권), 울산대학교(1책), 화봉문고(상권), 미국 하버드대학엔칭도서관(1권)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였기 때문에 전체가 1책이다.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사진 2>의 왼쪽과 같이 원문과 삽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93장이다.



<사진 2> 신활자본(왼쪽)과 목판본(오른쪽)의 삽도

- 이에 비해 숭실대학교 소장본은 삽도 없이 원문만으로 편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원문만으로 발행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발행이후 삽도를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1890년 6월 25일에 설립된 장로교와 감리교의 초교파 연합 문서선교 기관인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朝鮮聖敎書會)¹⁰⁾”의 기관지인 『The Korean Repository』(1896, p.38)에 “illustrated”라고 되어 있고, <사진 3>에서 보듯이 같은 책의 광고에서도 “also with illustrations”라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소장본이 신활자본으로는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신활자본도 공개되지 않은 전본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질 등이 좋지 못한 탓에 전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판본에 비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 초판인 두 종의 판본은 한글의 표기방식뿐 아니라 지명은 그 오른쪽에 두 줄, 인명은 그 오른쪽에 한 줄을 그어놓아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독자들이 쉽게 구분하도록 해 놓았다. 이러한 방식은 이 판본을 발행한 삼문출판사에서 간행물에서 보이는 방식이다. 두 종의 초판본에 보이는 42장의 삽도는 각자의 인쇄방식의 차이 때문인지 배치상의 차이가 있다. 곧 목판본은 해당내용에 맞추어 한 장씩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 신활자본은 두 장씩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3> 『The Korean Repository』(1896)의 『턴로력덩』 광고

- 한편 두 판본은 모두 1895년의 간행사실만 표기되어 있을 뿐 간행의 선후 기록은 없다. 그런데 <사진 3>과 같이 『The Korean Repository』(1896)의 광고를 통해 상호간의 연관성 등에 대해 알 수가 있다. 곧 『턴로력덩』의 발행과 판매 가격에 대해 광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 “『턴로력덩』은 두 종류의 판이 있다. 한 판은 조선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다. 삽도가 있는 최고수준의 조선(전래의) 형식이며, 두 책으로 장책되었다. 다른 판은 작은 활자로 중국종이에 찍은 한 책으로 역시 삽도가 있다. 조선종이에 찍은 책은 소매(날권)로는 1\$, 도매(대량)로는 90c.이다. 중국종이에 찍은 책은 소매(날권)로는 700cash(전), 도매(대량)로는 600cash(전)이다.”
- 이렇게 『턴로력덩』 초판본은 고급판인 목판본(2책)과 보급판인 신활자본(1책)으로 나누어 동시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두 종의 초판본이 발행된 이후 『천로역정』은 해방이전에만도 제1부가 여섯 번, 제2부가 한 번 간행되었다. 제 1부는 초판본에 이어 약간의 수정을 더한 신활자본 재판본(1910)과 삼판본(1919)이 있고, 또 이전과 다른 신활자를 사용한 사판본(1926)이 있다. 그 외에 1918년에 밀러(Miller, E. H.= 密義斗)가 번역한 신활자본, 1939년에 연동교회 제8대 장로였던 오천영이 번역한 신활자본 등의 별본도 전한다. 제2부는 1920년에 언더우드 부인(Mrs. H. G. Underwood=元杜尤 婦人, 1851~1921)이 번역한 신활자본이 있다.
 - 이 책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 번역 소개 되었지만 그 발간 시기와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계는 물론 국어학, 미술사학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명과 등장인물의 이름 등이 모두 순 한글인데다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삽도 42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어학계에서는 최초의 번역소설로서의 문체와 개화기 국어 및 이본 등이 주 연구대상이 되었다. 국어학적

10) 현재의 大韓基督敎書會.

가치에 대해 김동언은 “『턴로력덕』의 서지적 고찰”에서 19세기 말의 언어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 황해도를 비롯한 북부의 방언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번역문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장인물간의 대화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 이본(異本)간의 대비적 고찰을 통해 언어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외래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언해체 문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통성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한편 미술사학계에서는 풍속화가인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삽도 42장을 아직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연구하고 있다. 김준근은 1889년에서 1890년 사이에 선교사 계일을 부산에서 알게 된 뒤 1892년 계일이 선교임무를 띠고 원산에 체류하자 그를 따라 원산에 가서 한역 『턴로력덕』의 삽도를 맡아 그렸다. 이 삽도는 국내 최초로 서양식 원근법을 적용하면서 인물과 배경은 한국적 기법으로 그려 한국식과 서양식 그림을 절묘하게 결합한 독특한 양식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삽도의 내용은 전통적 소재를 다수 취하면서도 19세기 말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 소재 면에서는 놀이, 풍속 등을 넘어 주생활, 식생활, 가내수공업, 교육, 기생, 관리, 형벌, 장님, 거지, 무속, 감옥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김준근의 삽도는 당시 조선의 풍경과 인물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신분제 사회의 변화모습 등 당대의 문화를 기록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삽도는 서양의 기독교 삽도를 조선의 풍속화 형식으로 번안하고, 우리나라의 전통화법 중 수묵화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삽도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은 것이다.
- 현재 국내에서 초판본 『턴로력덕』 2종(목판본과 신화자본)을 함께 갖추고 있는 기관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이 있다. 그 중에서 목판본은 연세대학교가 2질, 숭실대학교가 1질을 소장하고 있다.



<사진 4> 연세대학교 소장 목판본
(왼쪽 2책은 옛 端雅德소장본, 오른쪽 2책은 옛 海觀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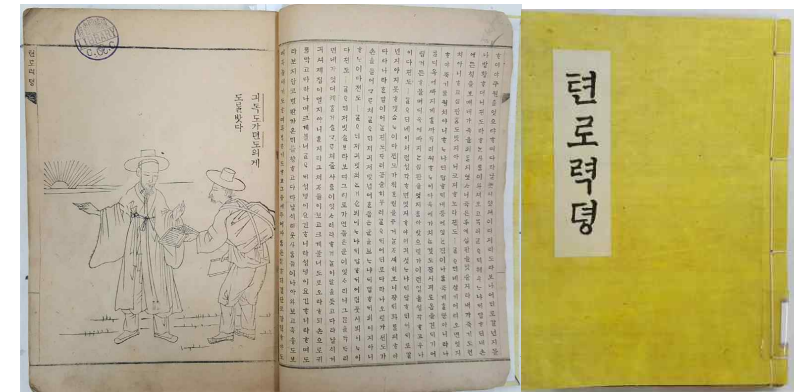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목판본 2질은 <사진 4>와 같이 모두 원래의 표지와 제첨(題簽)이 남아 있는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한 질[청구기호:고서 (1)/275.1/천로역/기1-2. 등록번호:141725, 149224]은 제첨 아래 부분에 「端雅德章」이라는 작은 원형의 인장이 찍혀 있고, 각 책의 첫 장 뒷부분에는 인장과 함께 그의 사인이 있다. “端雅德”이란 베레스포드 터너(Arthur Beresford Turner, 1862~1910)의 한글 이름이다. 그는 1896년 12월 2일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내한해 제2대 주교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에 서거하였다.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의 옛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 다른 한 질[고서(해관)/275.1/천로역/기1-2. 등록번호:50022, 141726]은 두 책의 마지막 장에 “海觀文庫 年 月 日”이라는 청색 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사이에 “1937 12 16”이라는 연월일이 필사되어 있다. 해관은 장로교 장로이자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에 앞장선 김일선(金一善, 1872~1935)의 호(號)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해관 김일선의 옛 소장본으로 1937년 12월 16일에 연세대에 기증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의 목판본은 동교의 김양선 교수가 1967년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5>와 같이 두 책 모두 『턴로력덕 권지일』, 『턴로력덕 권지이』이라고 쓴 제첨을 이후에 다시 만들어 붙여 놓았다. 그러나 두 책은 권1의 상하에 해당되므로 “권지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표제지 등에는 「獨立紀念基督教博物館長章」과 「基督教博物館」이라는 장서인이 있는 점으로 보아 서울 남산의 구 조선신궁 자리에 기독교박물관을 개관한 1948년 4월 이전부터 김양선 교수가 소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또 다른 초판본인 신화자본은 두 소장본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곧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본은 표지는 개장되었으나 원문과 삽도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비해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은 원문만 수록되어 있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발행된 직후의 광고문에서 신화자본도 삽도를 수록하고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은 완본(完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진 5> 연세대학교 소장의 신화자본의 개장된 표지와 삽화면

-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터로력당』 초판본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 완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밖에 없다. 또한 이 소장본은 보존 상태도 좋은데다 목판본의 경우, 옛 소장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목판본 두 질(4책)과 신활자본 1책 등 5책을 『천로역정(합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참고문헌

- 『터로력당』 초판 목판본(송실대, 연세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터로력당』 초판 신활자본(연세대, 서울대, 송실대, 프린스턴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소장본)
- 『터로력당』: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2, 서울, 동박물관, 2010.
- 『터로력당삽도: 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 서울, 송실대 기독교박물관, 2016
- 김동언, “『터로력당』의 서지적 고찰”, 『한남어문학』 제20집, 1995.
- 김동언, “『터로력당』의 대본과 국어학적 특징”, 『한국어학』 29집, 2005.
- 강희정, “기산 김준근의 『터로력당』 삽화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정세, “번역의 『천로역정』 삽화와 그 변천”, 『미술사문화비평』 제3집, 2012.
- 김나원, “한국 근대 초기 기독교 삽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디지털 한글박물관』 (<http://hangeulmuseum.org>)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터로력당』은 최초의 번역 문학서이자 19세기 말기의 한글 정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현대식 인쇄출판을 통한 기독교문화와 복음전파 그리고 외래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김준근의 삽도는 토착적인 전통이 반영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가 된다. 이렇게 『터로력당』은 국어학, 개신교,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다.
- 또한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발행한 사례는 우리나라 인쇄 출판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한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소장의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 5책을 『천로역정(합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5) 종합의견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1895년 발행 초판본(목판본과 신활자본) 2종은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연구위원>

1) 현상

- 목판본 2질은 표제 하단이 약간 떨어져 나갔으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활자본은 표지는 새로 만들어 붙였으나, 그 나머지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단 페이지 접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낡아 분리된 것도 있음. 활자본 내 표지 상단에 연회전문학교 설립이사 중 한 사람인 “A. L. Becker” 선교사의 이름이 쓰여 있어 그의 소장본으로 추정됨.

2) 내용 및 특징

- 목판본
 - 번역대본 :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 번역자 : Mr. and Mrs. James. S. Gale

- 교열 : 이창직(李昌植)
- 삽도 : 김준근(金俊根)
- 출판사 : Seoul, The Trilingual Press(三文出版社).
- 출판년도 : 1895년
- 반엽 11행 20자, 29.8×19.8(cm), 상 “일~일백장”, 하 “백일~이백이장”.

○ 활자본

- 번역대본 :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 번역자 : Mr. and Mrs. James. S. Gale
- 출판사 : Seoul, The Trilingual Press(三文出版社). (이 책에는 출판년도만 내 표지에 표기되어 있을 뿐 출판사와 출판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출판지가 원산 또는 상해라는 주장도 있으나, 활자체와 제본 양식(선장 4침)으로 볼 때 서울일 가능성이 더 높음)
- 출판년도 : 1895년
- 접어서 선장 4침으로 제본 26.4 ×19(cm), 본문 67장

- [출판 경위] 이 책의 번역자 계일은 1888년 12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YMCA 파송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1년 8월 미북장로회 한국선교부로 소속을 옮기고 1892년 4월 의사 헤론의 미망인 김슨(Mrs. Harriet Gibson Heron)과 결혼하고 6월부터 원산선교지부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 책의 번역은 1890년 서울에서 언더우드와 권유로 시작하였으며, 부인 김슨도 1890년 7월 헤론이 죽은 후 이 책을 번역하고 있었다. 결혼 후 이들은 공동으로 번역하여 1892년 8월 6일 이 책 번역 중 절반 부분을 이미 서울 “Track Society”에 넘겨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책의 번역을 마치고 김준근과 함께 이 책의 삽화와 출판을 준비한 것은 1894년 12월 27일이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895년 서울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에서 목판본 상, 하 2책으로 출판하였다. 같은 해 이 책은 활자본 단행본으로도 발행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순한글 번역이며, 원본에는 인용된 성경 구절이 많으나 번역본에는 이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내용은 원문을 완역(完譯)한 것이 아니라 쉽게 서술체로 풀어쓴 초역(抄譯)이다.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중국어역본의 한자역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 많으나, 원문이나 중국어역과 다르게 창작하여 쓴 것도 있다. 특히 김준근이 그린 42편의 삽도는 한국 인물 풍속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인이 이질감 없이 친근하게 이 책을 접하고, 삽도만 보아도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친근한 이미지에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담아내고자 했던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라고 할만하다.

3) 문헌자료

- 김병철, 『한국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75.
- 김동언, 『터로력당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1998.
- 박기선, 「터로력당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박기선, 「개화기 한자 어휘의 변천에 관한 小考-『터로력당』의 異本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37쪽~64쪽.
- 박효은, 「『터로력당』 挿圖로 읽는 救援의 길」, 『터로력당 삽도』,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58쪽~67쪽.
- 김성은, 「선교사 계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한국기독교와 역사』 31호,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199쪽~227쪽.

- 박정세, 『기독교 문학과 삽화의 토착화』,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유명식, 『착한 · 나쁜 자 계일의 삶과 선교 1, 2』, 도서출판 진흥, 2013.

4) 기타

- 활자본의 경우 내 표지 상단에 연회전문학교 설립이사 중 한 사람인 “A. L. Becker” 선교사의 이름이 찍어있어 그의 소장본으로 추정된다. 목판본들도 연회전문학교 도서관 소장인이 찍혀 있어 일제강점기부터 소장된 책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문화재가 없고, 타 기관 소장본보다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천로역정』(1895년)은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서(같은 해에 『아라비안 나이트』를 일본어 역에서 중역한 필사 초고본 『유옥역전』이 있으나, 출간된 것은 아니다) 국어국문학사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한국화적인 삽화가 들어 있어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된다. 더욱이 목판본은 숭실대 박물관 소장본보다 보존 상태가 더 양호할뿐 아니라, 같은 해 출판된 활자본 『천로역정』도 함께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묶어서 하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천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한국기독교 초기 신앙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 있음. 목판본과 활자본을 묶어서 하나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음.

<○○○ 전문위원>

1) 현상

- 목판본 : 상·하권 2질 모두 원형 그대로 변질이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인쇄본 : 1책 원형 그대로 변질이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2) 내용 및 특징

- 『턴로력턴』은 한말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이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 소설을 순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 『턴로력턴』 목판본 1질에는 ‘해관문고(海觀文庫) 1937년 12월 16일’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본 책의 소장자를 알 수 있다. 해관(海觀)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오궁선(吳兢善)의 아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오궁선을 소장하고 있던 것을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 『턴로력턴』(하권) 목판본 표지에는 ‘단아덕(端雅德)’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단아덕’은 영국 성공회 제2대 주교를 역임한 ‘아서 베레스포드 터너(Arthur Beresford Turner)’의 한문명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아덕’이 소장하고 있다가 연세대에 기증된 것으로 사료된다.
- 『턴로력턴』 인쇄본 1책에도 개인 소장자의 도장이 두 개 찍혀 있어 소장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회전문학교 도서관(C. C. C)인장이 찍혀 있어, 연세전문학교 도서관에 기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 『턴로력턴』은 기독교 선교와 신앙심을 고취한 목적으로 번역되었다. 그러지만 한글로 번역하면서 고소설적인 형식을 취해 계몽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며, 한말 근대문학에 중요항 영향을 끼쳤다.
- 게일의 번역본 『턴로력턴』에는 삽화도 함께 실어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삽화의 인물들도 한복 차림에 갓을 쓰고 있어 마치 한국인의 이야기처럼 책을 편집하였다. 삽화는 김준근에 의해 전통적인 화풍으로 그려진 42점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삽화는 선원근법(線遠近法) 등 당대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기법을 사용되고 있다.

- 『턴로력턴』은 개화기에 서양소설 번역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에 필독서로 사용되어 기독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문학적으로 한국 최초로 번역된 서구의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 『턴로력턴』(1895)은 『Pilgrim's Progress, 1678』을 저본으로 번역하였으며, 중국 어본을 주요 진본으로 삼았다. 게일이 번역에 관여하였지만 한문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게일은 『턴로력턴』외에도 외국어로 된 각종 책자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책 『사과지남(辭課指南)』과, 『한영사전』, 『중영사전』 등을 편찬하였다. 또한 한국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책자도 여러 권 편찬하였다.

3) 문헌자료

- 『턴로력턴』에 대해서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있다.
 - 장문석, 「관식의 증언-『턴로력턴』 번역과 19세기말 조선어문의 전통들」, 『대동문화연구』 78, 2012.
 - 김성은, 「한일 근대어 성립과 번역 : 종교소설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93, 한국일본학회, 2012.
 - 李知訓, 「『天路歷程』(턴로력턴) 번역과 근대적 공간 표상」, 『어문연구』 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009.
 - 김성은, 양현혜,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87, 2009.7.

4) 기타

- 『턴로력턴』 목판본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쇄본 『턴로력턴』은 현재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게일이 편찬한 『턴로력턴』(1895)은 기독교 선교와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국문체로 번역한 한국 최초의 서양소설 번역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문학적으로 당시의 한글 문체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책자이다.
- 연세대 학술원에는 『턴로력턴』 목판본 2질이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또한 인쇄본 1책이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 하지만, 향후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턴로력턴』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할 지 여부를 판단되어야만 한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턴로력턴』 2질과 인쇄본 1책은 보존 양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15. 「조선요리제법」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조선요리제법」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요리제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6.1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조선요리제법	1권	22.0×15.5cm	1917년	신활자본	종이 (양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중앙

-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식생활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1월)
 - 식생활 유물 목록화(263건),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식생활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2.2.)
 - 목록화 263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6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6.10.)
 - 근·현대문화유산 식생활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검토의견 : 한글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고 대중성에 기여한 조리서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6.10.)>

- ○ ○ ○ 위원
 - 방신영이 저술한 『조선요리제법』(1917)은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요리서이다. 저자는 재료의 분량을 계량화하여 소개하는 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 전통의 조리법을 설명해

7)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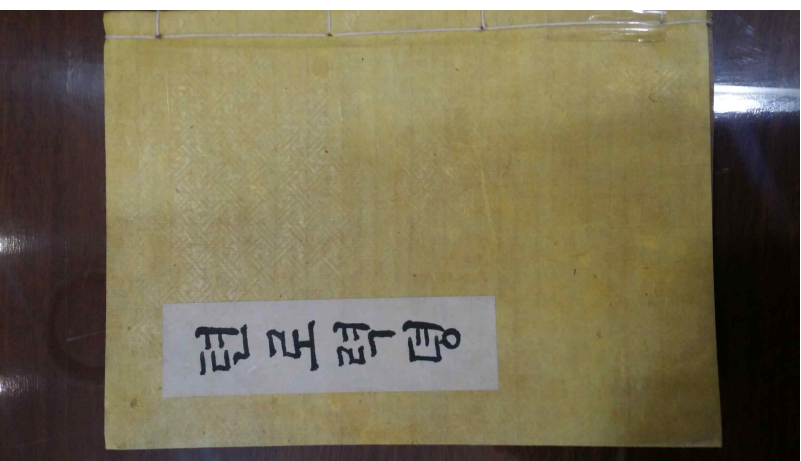
- 존 버니언(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한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G. S. Gale)이 순한글로 번역한 한국 최초의 서양소설이다. 이 책은 1895년 간행한 것으로 한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연세대 학술정보에는 『턴로력당』 목판본 상·하권 2질과, 인쇄본 1책이 소장되어 있다. 목판본의 표지는 『턴로력당』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 번역과 함께 삼도 42장이 함께 수록되어 이해하기 좋게 편집되어 있다. 목판본 2질과 인쇄본 1책도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현재 목판본은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을 비롯하여 소장되어 있고, 앞으로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인쇄본은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사진>

1. 『턴로력당』 목판본 2질 4책



2. 『턴로력당』 인쇄본 1책



놓았다. 이후 증보 발행되면서 우리 전통요리의 방향을 줄곧 제시해주었고, 또 우리 음식의 조리과학적인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911년 또는 1913년에 발행하였다는 저자의 『요리제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소실(消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요리를 우리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해놓은 이 책이 현전하는 책으로는 가장 앞선 것이 된다.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교수

- 근대기 발행된 조리서는 현재 비교적 다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1917년에 출판된 『조선요리제법』이다. 이후 33판까지 증보출간한 조리서로서 가장 귀중한 초판이다. 이후 이 조리서는 개정증보를 거듭하는 동안 일제 강점기의 실정을 반영한 식단 및 그 후 개정판에서는 서양음식의 수용에 의한 크리스마스 명절식단도 소개되어 있어 초판본과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초판본이기 때문에 조선을 지나서 근대기의 조리법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도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한국음식문화의 근대기 사조를 잘 반영한 조선 요리제법은 근대기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 ○ ○ 전문위원

- 『조선요리제법』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정리한 최초의 조리서이다. 일제하에 우리 전통 음식문화를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은 1917년 신문관에서서 출판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 발행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책명을 바꾸어 발행되어 1960년 33판까지 발간되는 등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조선요리제법」 조사보고서 1부.

「조선요리제법」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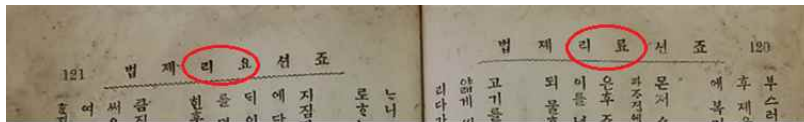
1. 명 칭 : 조선요리제법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3. 소유자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4. 조사자 의견

<○ ○ ○ ○ 위원>

- 1) 현상
 - 개장된 앞뒤 표지를 투명코팅필름을 붙여 놓았음. 내용은 대체로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은 교사였던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이 저술하여 1917년에 발행한 우리말 전통요리서이다. 이 책은 방신영이 17세 때 어머니에게서 음식 재료와 분량, 만드는 법 등의 조리법을 전수받아 우리말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만가필비(萬家必備)”라는 권수제(卷首題)의 관제(冠題)에서 보듯이 이 책은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17년 간본에는 저자의 서문이 없어서 이 책의 저술 의도 등에 대해 알 수가 없으나 이후 증보판의 서문에서 “그런고로 과학이 발달되고 위생이 보급된 각국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연구와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하여 크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는 이에 대한 책자도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겨서 천견을 불구하고 책을 저술하였습니다.”라고 밝혀 놓았다.
 - 그런데 저자의 요리저술은 이 책의 발행 이전에 신문관에서 발행된 『요리제법』이 있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인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요리제법』은 1957년판의 저자 서문에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사십육 년간이 지났다.”고 하였으므로 1911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본의 「朝鮮の料理本一覽」에는 “『料理製法』 方信榮 1913年 新式料理書”라고 소개되어 있다.
 - 1917년 발행본은 서문, 목록에 이어 본문이 이어진다. 장과 초 만드는 법, 국 끓이는 법, 찌개 만드는 법, 지짐이 만드는 법, 나물 만드는 법, 무침 만드는 법, 포 만드는 법, 전유어 만드는 법, 산적 만드는 법, 찜하는 법, 회치는 법, 잡종, 다식 만드는 법, 어채와 화채 만드는 법, 유밀과 만드는 법, 강정 만드는 법, 밥 짓는 법, 죽 쑺는 법, 미음 쑺는 법, 암죽 쑺는 법, 떡 만드는 법, 침채 만드는 법, 짓 담그는 법, 차 만드는 법, 상극류 등에 대해 해설해 놓았다. 또 우리 요리 외에도 일본요리 만드는 법, 서양요리 만드는 법, 지나요리 만드는 법 등도 있다. 부록으로는 도화주, 연엽주, 와송주, 국화주 등 13-4종의 약주제조법과 함께 광주 백당법, 연안 식혜법, 용인 외지법 등도 소개해 놓았다. 또한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재료의 분량에 대해 계량화함으로써 우리 음식의 조리과학적인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근대 한식의 풍경』(한식재단 저)에서는 이 책의 가치에 대해 “옛 조리서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조리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 음식에 적용되는 계량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재료를 세세히 설명하였으며,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제조법의 방대한 양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 책은 요리서의 개념을 넘어 조리 과학서라 할 수 있다. 또 『동아일보』 1933년 9월 7일 문담형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정고문(家庭顧問)」의 “조선요리법”이라는 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이 책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곧 “『조선요리법』을 기록한 서적의 발행소와 요금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독자의 질문에 “방신영씨의 『조선요리제법』이 있습니다. 경성 견지동 한성도서주식회사로 물어 보십시오. 정가는 1원 20전입니다.”라고 기자가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조선요리제법』은 후일 한성도서에서 발행한 증보판이기는 하지만 이 책이 당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인 요리서이자 우리 음식과 관련된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는 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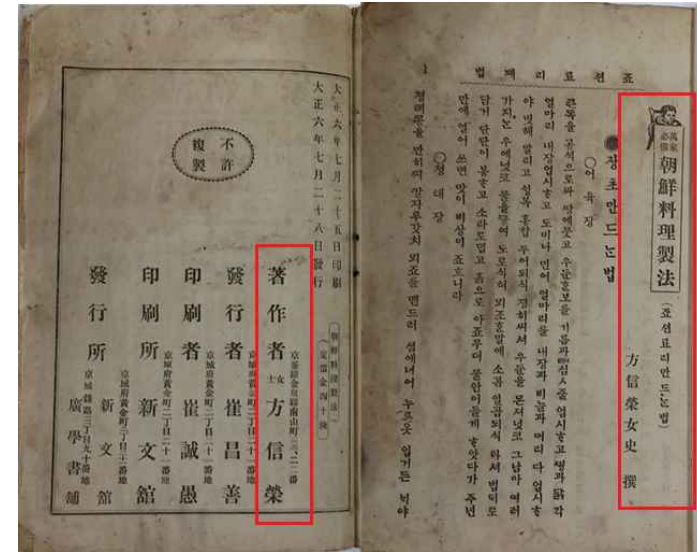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다른 표지로 개장해 놓은 탓에 원래 표지와 표제지의 표기와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책을 펼치면 정사(1917) 백종날(음력 7월 15일)에 위관 이용기(李用基, 1870~1933?)가 쓴 “조선요리 만드는 법 서문”(4면)이 있다. 그는 가요 1400여 편을 집대성한 악부(樂府)를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1924년에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을 저술한 요리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아마 이 책이 간행된 1917년경에 이미 우리 요리에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음을 이 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에는 목록(6면)이 있는데 “...법” 아래에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소개되어 있다.
- 판권지의 발행일은 대정 6년(1917) 7월 28일이고 정가는 금(金) 40전이었다. 발행소는 신문관(新文館)과 광학서포(廣學書鋪)가 병기되어 있으나 발행자와 인쇄자의 주소가 신문관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신문관에서 인쇄 발행하고, 광학서포는 신문관과 함께 판매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관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1907년에 그의 최남선이 형 최창선 명의로 설립하였고, 광학서포는 1906년 4월에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한편 이 책의 서명은 여러 곳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먼저 서제(序題)는 『조선요리 만드는 법』, 목록제는 『조선요리제법』, 권수제는 『萬家必備 朝鮮料理製法』(『조선요리 만드는 법』), 권미제는 『조선요리제법』, 판권지에는 『朝鮮料理製法』 등이다. 이외에도 본문 모든 장의 윗부분에도 가로로 서명이 있는데, <사진 1>과 같이 목록제 제1면과 본문 제52, 53, 58, 63, 79, 80, 83, 108, 121, 131면의 윗부분에는 『조선요리제법』이고, 나머지는 『조선요리제법』이다. 이렇게 “요리”와 “료리”가 혼용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선요리제법』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 1> 본문 윗부분의 서명 표기

- 그리고 <사진 2>과 같이 이 책의 저자표시와 관련 기록은 흥미롭다. 곧 권수제

면의 서명아래에는 “方信榮女史 撰”으로 되어 있고, 판권지에는 “著作者 女士 方信榮”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결혼한 여자의 높은 말” 또는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의 높은 말”인 여사(女史), 마지막에는 여성 학자가 드문 시절에 여성이 지은 저술이어서인지 “학덕이 높고 어진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인 “여사(女士)”로 표기한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 저자의 주소지를 경상도 김천이 아닌 “京釜線 金泉驛 南山町 三六, 二二番”로 표기한 점도 흥미롭다. 이렇게 이 책은 내용뿐 아니라 개화기 서적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사진 2> 『조선요리제법』의 권수제면과 판권지의 저자와 주소표기

- 고려대 소장본은 서문 첫째 장에 “寄贈 金約瑟先生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이라는 타원형의 청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장서가인 김약슬(1913~1971)의 옛 소장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사망한 뒤 1,612종 2,305책의 장서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되어 신암문고(新菴文庫)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중의 하나이다.
- 『조선요리제법』은 1917년에 발행된 후 1943년까지 24판이 발행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조선요리 만드는 법』(194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2) 등으로 서명을 바꾸어 증보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열화당 한국근현대서적 복각총서”(2011)라는 총서 중에 1937년판 『조선요리제법』(한성도서)을 포함하여 영인 발행되었다.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방신영이 저술한 『조선요리제법』(1917)은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요리서이다. 저자는 재료의 분량을 계량화하여 소개하는 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 전통의 조리법을 설명해 놓았다. 이후 증

보 발행되면서 우리 전통요리의 방향을 줄곧 제시해주었고, 또 우리 음식의 조리과학적인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911년 또는 1913년에 발행하였다는 저자의 『요리제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소실(消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요리를 우리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해놓은 이 책이 현전하는 책으로는 가장 앞선 것이 된다.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수>

1) 현황

- 한국 최초의 근대적 조리법을 소개한 조리서로서 이화여전 교수이던 방신영(1870-1977)에 의해 저술된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으로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2) 현상

- 방신영저, 『조선요리제법』(초판)의 상태는 현재 비닐류의 포장과 붉은 색의 선장을 하고 있으며 낡은 상태이다. 이 책은 이전에 선 묶음등의 흔적등이 보여 여러 차례 장정을 보완한 것으로 파악된다. 책의 배부 종이의 상태는 매우 낡은 상태로 잘 보존하지 않으면 바스러질 듯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 내용 및 특징

- 『조선요리제법』은 이화여전교수였던 방신영(1890-1977)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우리나라 근대의 조리법을 담고 있는 조리서의 초판본이다. 이 책은 1917년에 발행되어 일제 강점기 초기의 조리법을 잘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요리만드는법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위관 이용기(1870-1933?)가 쓴 4쪽의 서문이 나온다. 위관 이용기는 이후 역시 일제 강점기 유명한 조리서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이라는 조리서를 쓴 사람으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의 출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 서문 다음으로는 ‘조선요리제법목록’이 총 6쪽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장과 초만드는법, 국끓이는 법, 찌개만드는법, 지짐이만드는법, 나물만드는법, 못침만드는법, 포만드는법, 전유어만드는법, 산적만드는법, 찜하는법, 회치는법, 잡종, 다식만드는법, 정과만드는법, 어채와 화채만드는법, 유밀과만드는법, 강정만드는법, 밥짓는법, 죽꾸는법, 미음꾸는법, 암죽꾸는법, 떡만드는법, 침채만드는법, 젓담그는법, 차만드는 법, 과일과 채소 두는법, 기름짜는 법과 쓰는법, 상극류, 법류, 일본요리만드는법, 서양요리만드는법, 지나요리만드는법이 나온다. 그리고 부록으로 약주제조법 8가지가 나오고 잡록으로 광주백당법과 연안식혜법과 용인외지법이 나온다. 마지막에는 광고가 실려있다
-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조리서와 마찬가지로 술담그는 법을 함께 실고 있으며 그냥 조리법을 소개했던 조선조리서와는 달리 조리법으로 분류를 세워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요리법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일본요리, 서양요리, 중국요리를 함께 담고 있어 이 당시의 외국요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광주, 연안, 용인의 유명한 향토요리도 소개하고 있다.

4) 문헌자료

-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 한식재단 한식아카이브 www.archive.hansik.org 중 근대문헌 아카이브

- 정혜경, 『천년한식건문록』, 생각의 나무, 2009

- 한식재단, 『근대 한식의 풍경』, 한식문화총서3. 소와당, 2014

- 방신영, 『조선요리제법』 복간본, 열화당, 2011

5) 기타

- 본 서는 근대기 서지학자인 김약술(1913-1971)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1970년대에 고려대에 기증되어 현재 신암문고로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소장장위도 분명하다. 그리고 근대기 조리서들은 『조선요리제법』이외에도 물론 다수 있으나 이 조리서는 연대기면에서 가장 빠르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1960년 33판까지 개정되고 또한 가장 많이 보급된 조리서의 초판본으로서의 대중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보인다. 그래서 한식진흥과 관련하여 조리서를 근대 등록 문화재로 검토한다면 『조선요리제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6)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조선요리제법』은 근대 등록문화재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식진흥 및 세계화로 인해서 전통 한식원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시대 고조리서외에도 근대조리서들은 가장 가깝게 한식원형 발굴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근대기 발행된 조리서는 현재 비교적 다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1917년에 출판된 『조선요리제법』이다. 이후 33판까지 증보출간 한 조리서로서 가장 귀중한 초판이다. 이후 이 조리서는 개정증보를 거듭하는 동안 일제 강점기의 실정을 반영한 식단 및 그후 개정판에서는 서양음식의 수용에 의한 크리스마스 명절식단도 소개되어 있어 초판본과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초판본이기 때문에 조선을 지나서 근대기의 조리법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도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한국음식문화의 근대기 사조를 잘 반영한 조선 요리제법은 근대기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7)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본 서는 현재 한식진흥이나 세계화 사업의 기초가 되는 한식 원형 발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생각된다. 현재, 조리서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조선시대 고조리서들 중 『음식디미방』이나 『수운잡방』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경북지역 고조리서들은 현재 조리서가 나온 지역인 경상북도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준비를 하고 있다.
- 방신영 선생의 『조선요리제법』은 조선시대 고조리서의 맥을 잇는 근대조리서 중 가장 가치가 뛰어난 조리서이다. 근대적 조리법을 처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조리법을 받아 적었음을 그후의 재판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동일한 저서명으로 1943년 24판까지 발행하고, 1952년에는 『우리나라 음식만드는 법』으로 서명을 변경하여 33판까지 발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대조리서 중 가장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조리서로 판단된다.
- 현재 증보 8판(소화12년)인 『조선요리제법』이 2011년 열화당에서 한정판으로 복간출판되었다. 이 증보판은 상당히 많이 증보개정된 것으로서 초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1910년대에 출판된 초판본이 한식원형발굴을 위한 조리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인다
- 따라서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그대로 잘 보존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복간하여 출판하는 것도 이 조리서의 활용에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

단된다.

8) 종합의견

- 근대 조리법을 수록하여 한국음식문화의 근대기 사조를 잘 반영한 회귀문헌매체로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은 근대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전문위원>

1) 현상

- 『조선요리제법』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원형을 아주 잘 보존되어 있음. 표지에 훼손된 부분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조선요리제법』은 한식 연구가 방신영(方信英, 1870~1977)이 저술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재료 분량법을 도입한 조리서이다. 1917년 7월 25일 인쇄되어, 그해 7월 28일자로 발행되었다. 발행자는 최창선(崔昌善), 인쇄자는 최성우(崔誠愚), 발행소는 신문관(新文館), 발행소는 광학서포(廣學書舖)이다.
- 『조선요리제법』은 서지학자 김약술(金約瑟, 1913~1971)이 소장하였던 것을 1970년 고려대학교에 기증되어 신암문고로 보존되고 있다. 현재 비닐 포장과 붉은 색 선장을 하고 있다.
- 『조선요리제법』은 1917년에 출간 이후 1960년 33판까지 발행된 한국 음식 조리법을 다룬 가장 널리 출판된 책자이다. 책은 위관 이용기가 쓴 서문이 있고, 목록, 본문 14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방신영은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등지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1929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가 창설됨에 교수로 부임하여 1952년 정년 때까지 근무하였다.
- 1913년 『요리제법』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1917년 7월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이 발간된 이후, 1918년 9월 재판을 발간하였다. 1921년 광익서관에서 『조선요리제법』을 다시 펴내 지형과 행관을 바꾸어야 했으므로 3판이라고 하지 않고 초판이라고 하였다. 1924년에는 수정 증보가 이루어지고 조선도서주식회사로 판권이 넘어갔다. 1931년 판은 6판이고, 1937년에는 개정 증보를 거쳐 8판까지 돌파했다.
- 『조선요리제법』은 1943년 24판까지 발행하였고, 1946년 『조선 요리 만드는 법』, 1952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출판되었고 내용도 계속 개정 증보되어 1960년 33판까지 발간되었다. 또한 1945년 헤리엇 모리스(Harriett Morris, 1894년~미상)에 의해 영역되어 미국에서 출판되어 외국에 한국의 음식을 처음 소개한 책이기도 하다.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은 2011년 열화당에서 복각본으로 출간되어 널리 소개하게 되었다(1937년 제8판7,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본)

2) 문헌자료

-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 방신영, 『조선요리집법』, 열화당, 2011.
- 조자호 지음, 정양완 풀어썬, 『조선요리법』, 책미래, 2014.

3) 기타

- 『조선요리제법』은 최초의 근대 한국 음식 조리서로서,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은 1917년부터 1960년대까지 33판이 출판되어 근·현대기 조리서의 수요를 반증하고 있다.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은 한국 전통 음식문화를 정리한 귀중한 책자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전통음식 조리법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 『조선요리제법』은 1917년 초판본이 발간된 이후, 일제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이 발행되었다. 해방이후 1946년 『조선 요리 만드는 법』, 1952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꾸준히 출판되었고 내용도 계속 개정 증보되어 1960년 33판까지 발간되었다.
- 그러나, 『조선요리제법』은 1917년에 초판본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초판본이 다 수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5) 종합의견

- 『조선요리제법』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정리한 최초의 조리서이다. 일제하에 우리 전통 음식문화를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조선요리제법』 초판본은 1917년 신문관에서서 출판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 발행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책명을 바꾸어 발행되어 1960년 33판까지 발간되는 등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

16. 「만국사기」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만국사기」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만국사기」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12. 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만국사기	1권 (14책)	23.0×15.5cm	1906년	신화자본	종이 (양지)	대전역사박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대전 역사박물관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2.9.)>

- ○ ○ ○ 위원
 - 『만국사기』는 국가존립의 위기에서 자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사와 세계사를 알아야 한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발행되었다. 국한문 혼용이기는 하나 그때까지 내국인이 알지 못했던 세계의 역사를 국내에 두루 알렸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는 내국인들이 식견이 고루하고 자각이 없음을 한탄하면서도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곧 그는 주체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로 발행된 세계사를 바탕으로 간추렸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사관까지 그대로 수용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후일 박은식 등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 이렇게 편자의 지식의 한계와 지식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국내 지식인의 세계 각국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곧 당시로서는 이 책이 가장 완비된 세계 역사서이며, 또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어를 포함한 20세기 초기의 한글 표기를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재 『만국사기』 완질은 대전역사박물관(2014. 9. 2. 대전근현대사박물관 당시 기탁)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전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역사박물관 소장본은 표지의 제침이 결락되어 근자에 복사하여 붙이는 등 보존상태가 국회도서관 소장본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므로 대전역사박물관 소장본을 등록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소장본들을 모두 살핀 뒤 그 중에서 보존상태가 뛰어난 1-2집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 위원

- 현재가 역술(譯述)한 『만국사기』는 대한제국이 발간된 세계사로 사학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대전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국사기』 1권 14책은 발간 당시와 거의 동일하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현재 여러 곳에 『만국사기』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만 한다.

○ ○ ○ ○ 교수

- 이 대전역사박물관소장본인 현재(玄采)의 만국사기(萬國史記)는 근대시기 역사서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현존본이 여러 본 남아 있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가치 미흡
- 출석 6명, 부결 6명

붙임 : 「만국사기」 조사보고서 1부.

「만국사기」 조사보고서

1. 명 칭 : 만국사기
2.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대전역사박물관
3. 소유자 : ○○○
4. 조사자 의견

<○○○ 위원>

- 1) 현상
 - 전 14책 중에서 13책은 표지의 제침이 결락되어 근자에 복사하여 붙여 놓았음.
- 2) 내용 및 특징
 - 개략
 - 『만국사기』는 국민계몽 운동가인 백당(白堂) 현채(玄采, 1886~1925)가 편역하여 1906년에 간행한 세계사이다. 일본의 오카모도 칸스케(岡本監輔)의 『萬國史記』(1879)와 영국의 마간서(馬懸西, Robert Mackenzie)가 영국에서 저술한 『19세기: 역사(The 19th Century: A History)』(London: T. Nelsan and Sons, 1880)를 이제마태(李提摩太, Timothy Richard)가 번역한 『泰西新史』(1895) 등 일본과 중국에서 발행된 역사서 14책을 참고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 편집한 것이다.
 - 현채가 이 책을 편집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정부기관인 학부에서 번역 일을 맡아 『중국전기(中國戰記)』(1899), 『보통교과동국역사(普通教科東國歷史)』(1899) 등의 역사서를 편집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국사기』 이외에도 『중등교과동국사략(中等教科東國史略)』(1906),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1906), 『유년필독(幼年必讀)』(1907), 『동서양역사(東西洋歷史)』(1907) 등의 편역서가 있다. 이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식민사학 정립에 역할을 맡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 『만국사기』가 언제 어디에서 발행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목록이나 해제에는 1905~6년에 보급 판매처인 발매소를 근거로 황성(皇城), 평양종로(平壤鐘路)의 대동서관(大同書觀)에서 발행된 것 또는 불명(不明)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 당시 이 책의 광고를 담은 신문 기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곧 『황성신문』 1906년 5월 3일자 3면에는 「만국사기 발매」라는 제목의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학부에서 신간한 『만국사기』는 동서양 만국의 고급 역사를 국한문으로 간요히 편집한 책이온대 문명에 유의하시는 침군자의 안두(案頭)에 부득불일필식(不得不一帙式) 저치공람(儲置供覽)할 만 하오니 유지(有志) 제군자는 속속구람(速速購覽)하시옵소서. 전질 14책 3650매. 정가 금 신화 7환. 김상만책사 주한영책사 평양 대동서관.”
 - 이후 이 광고는 26회에 걸쳐 6월 2일까지 쉬지 않고 게재되었다. 광고 끝의 “전질 14책 3650매. 정가 금 신화 7환. 김상만책사 주한영책사 평양 대동서관”과 같이 『만국사기』의 전체 책수, 가격 및 보급 판매사항은 국회도서관본의 제

14책에 소개된 <사진1>의 기록과 같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만국사기』는 신문 광고와 같이 1906년 5월에 대한제국의 학부에서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1> 국회도서관 소장본 제14책 표지와 책수, 가격, 보급 판매처 소개면

- 내용
 - 모두 [본편] 11책, 속편 2책, 목록 1책 등 모두 1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편] 29권과 속편 2권의 목록은 마지막 제14책에 수록되어 있다. 목록에 앞서 광무 9년(1905) 2월에 쓴 학부대신 이재극(李載克)의 서, 8월 상순에 쓴 정교(鄭喬)의 서, 5월에 쓴 장지연(張志淵)의 서, 8월에 쓴 안종화(安鍾和)의 서, 9월에 쓴 현채의 자서(自叙) 및 1906년 3월에 쓴 채범석(蔡範錫)의 “서만국사기(序萬國史記)”가 차례대로 있다. 다음에는 동반구(東半球)와 서반구(西半球)로 나누어 그린 「지구전도」에 이어 아시아(亞西亞), 유럽(歐羅巴), 아프리카(阿非利加), 북아메리카(北阿墨利加), 남아메리카(南阿墨利加), 오세아니아(亞塞亞尼亞) 등의 대륙지도가 있다. 다음에는 일본 발행의 『萬國史記』와 『泰西新史』 등 참고 문헌 14책의 원서전문(元書全文) 및 인용서목이 있다.
 - 내용의 전개는 사건 위주의 기사본말체의 형식이며, 범위는 정치·경제·사회·종교·관습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한 원서를 바탕으로 삼았으나 필요하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연호를 삽입하고, 주석과 총평을 달아 놓았다.
 - [본편] 11책은 모두 29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제1~4권은 아시아사이다. 권1은 중국, 조선 등, 권2는 일본, 권3은 인도와 페르시아(波斯), 중앙아시아(韃靼), 권4는 기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내용이다. 권5는 아프리카사로 이집트(埃及)를 비롯하여 아랍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다. 권6~26은 유럽사이다. 권6은 그리스(希臘)와 마케도니아(馬其頓), 권7은 로마(羅馬), 권8은 동로마(東羅馬), 이탈리아(意大利), 터키(土耳其) 등에 대한 내용이다. 권9~15는 프랑스(法蘭西), 권16은 독일(日耳

만), 권17은 프러시아(普魯士), 오스트리아(奧地利亞), 스위스(瑞西) 등, 권18은 폴란드(波蘭), 권19는 스웨덴(瑞典), 덴마크(丁抹), 스페인(西班牙), 포르투갈(葡萄牙), 네덜란드(荷蘭) 등, 권20-24는 영국(英吉利), 권25-26은 러시아(俄羅斯)에 대한 내용이다. 권27-28은 아메리카사이다. 권27은 미국(美國), 권28은 멕시코(墨西哥), 페루(秘魯), 브라질(巴西) 등에 대한 내용이다. 권29는 오세아니아사(亞塞亞尼亞史)에 대한 내용이다.

- 속편 2책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분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권1은 청나라의 무술정변, 권2는 의화단 사건 등 당시 급변하는 청나라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끝에는 광무 9년(1905) 10월 3일에 김상천(金相天)이 쓴 발문과 광무 10년(1906) 3월에 이관구(李觀九)가 쓴 “서만국사기후(書萬國史記後)”, 같은 해 청명절(4월 5일경)에 강진희(姜璉熙)가 쓴 “제만국사기후(題萬國史記後)”가 있다.

○ 발행목적과 영인발행

- 『만국사기』는 대한제국 말기에 14책으로 간행된 방대한 세계사이며, 학부에서 발행한 여러 나라의 역사서들을 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내의 관료와 학자들은 수구적 입장을 견지하자는 입장도 있었으나 대개는 서양의 사상과 지식을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는 역사서를 편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일(中日)에서 발행된 역사서를 바탕으로 국한문 혼용의 세계 역사서인 『만국사기』를 편역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시의 관료와 지식인들이 세계의 역사와 현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자료총서:10』으로 전책을 영인하여 발행(1996)한 바 있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만국사기』는 국가존립의 위기에서 자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사와 세계사를 알아야 한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발행되었다. 국한문 혼용이기는 하나 그때까지 내국인이 알지 못했던 세계의 역사를 국내에 두루 알렸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는 내국인들이 식견이 고루하고 자각이 없음을 한탄하면서도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곧 그는 주체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로 발행된 세계사를 바탕으로 간추렸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사관까지 그대로 수용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후일 박은식 등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 이렇게 편자의 지식의 한계와 지식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국내 지식인의 세계 각국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곧 당시로서는 이 책이 가장 완비된 세계 역사서이며, 또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어를 포함한 20세기 초기의 한글 표기를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재 『만국사기』 완질은 대전역사박물관(2014.9.2. 대전근현대사박물관 당시 기탁)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2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2>에서 보듯이 대전역사박물관 소장본은 표지의 제첩이 결락되어 근자에 복사하여 붙이는 등 보존상태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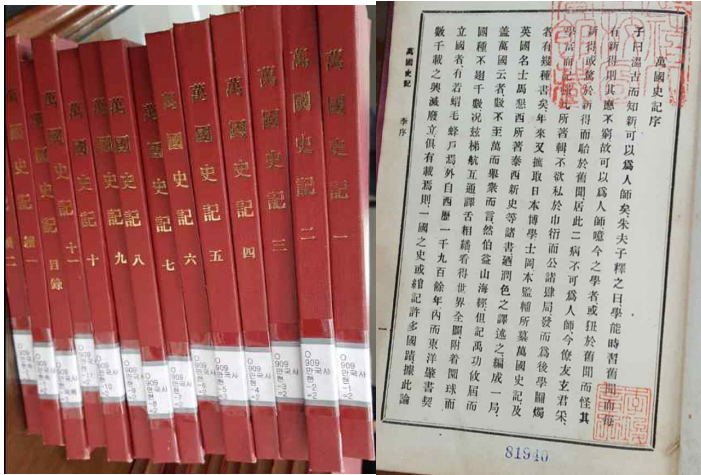
3>의 국회도서관 소장본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므로 대전역사박물관 소장본을 등록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소장본들을 모두 살핀 뒤 그 중에서 보존상태가 뛰어난 1-2질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2> 대전역사박물관 소장본



<사진3> 국회도서관 소장본 표지



<사진4> 연세대 소장본(완질 2부 중 1부)

4) 종합의견

- 대전역사박물관 소장본보다 국내 소장의 완질본들을 조사한 후 보존상태가 우등한 1-2질을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

1) 현상

- 14책 전질이 원형 그대로 변질이 없이 대전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잘 보존되어 있다.

2) 내용 및 특징

- 『만국사기』는 한말 학부의 역사 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현채가 역술(譯述)한 관찬(官撰)의 세계사이다.
- 『만국사기』는 현채가 일본인 오카모토 칸스케(岡本監輔)의 『만국사기(萬國史記)』(1879), 오모이노(重野安繹)의 『일본유신사(日本維新史)』, 영국인 R. Mackenzie의 『태서신사(泰西新史)』, A History of the Nineteenth Century』 등의 외국 역사서 14권을 참조 인용하여 역술한 것이다.
- 현채는 오카모토의 『만국사기』와 같은 이름의 책을 주 대본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기준대로 삭제하거나 보완하였다. 현채의 『만국사기』는 총 29권과 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오카모토의 『만국사기』는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서술 양으로 현채의 『만국사기』가 훨씬 더 많다.
- 오카모토의 『만국사기』에서는 일본은 '대일본(大日本)'으로 칭하면서 아시아 총설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으며, 일본의 신화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채는 일본 역사에서 상고의 사적(事跡)은 황당하고 여겨 제외하였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면서 '대(大)'자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 '현채 지(玄采 志)'라고 자신이 직접 글을 첨가하였다.

- 현채의 『만국사기』는 당시 세계사서들을 번역과 편집을 통해 세계 역사를 정리하였지만, 주체적인 시각에서 세계사 저술을 지향하여 민족의식의 일단을 보여 주기도 한다. 1905년 을사늑결로 인해 국권이 상실되어 가던 시기에, 이같은 세계사를 편찬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계몽운동에 일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한다.

3) 문헌자료

- 현채가 『만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동기에 대해 그의 자서(自敘)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국가의 안위가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후 통탄을 하기보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 한말 당시 대부분의 계몽운동자들은 사상적으로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었고, 『만국사기』의 저자 현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현채는 진보의 주체를 국가에 두고 있으며, 국가가 멸망하면 한국민족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세계의 정세를 올바르게 알려 한국민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를 저술하게 되었던 것이다.
- 현채의 『만국사기』에 대해서 적지않은 연구성과가 있다.
 - 홍영백, 「한말 세계사 관계사서의 내용과 그 한계」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태학사, 1984.
 - 박성수, 「『만국사기』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정구복·이영하, 「현채 편역 『만국사기』의 사학사적 성격」 『청계사학』 13, 1997.
 - 백옥경, 「한말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 인식」, 『한국사상사학』 35, 2010.
 - 노수자, 「백당 현채 연구」 『이대사원』 8, 1969.
 - 권순철, 「대한제국에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소개되었나 : 대한제국의 번역서, 그원전을 찾아서」 『근대서지』 8, 2013.

4) 기타

- 현채의 『만국사기』 1질 14책은 2014년 9월 2일 대전근현대사박물관에 기탁되어, 2015년 대전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어 관리 중에 있다. 『만국사기』 전질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특별한 보존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 당시 발간된 『만국사기』가 어느 정도 현존되어 있는지는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연세대 학술정보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국회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대전역사박물관 소장 『만국사기』외에 다른 곳에 소장된 자료를 함께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등록문화재로 심의에 상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현채가 역술한 『만국사기』는 사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서임에 틀림이 없다. 『만국사기』는 을사늑결로 인해 국권이 상실되어 가던 시기, 국민들에게 세계사를 소개함으로써 계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 대전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채의 역술한 『만국사기』 1질 14책은,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매우 양호하다.
- 하지만, 향후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만국사기』와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할 지 여부를 판단되어야만 한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전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국사기』 1질 14책은 보존 양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7) 종합의견

- 현재가 역술(譯述)한 『만국사기』는 대한제국기 발간된 세계사로 사학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대전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국사기』 1질 14책은 발간 당시와 거의 동일하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현재 여러 곳에 『만국사기』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기관 소장본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만 한다.

<사진>

1. 『만국사기』 1질 14책



2. 목차 표지



3. 제1권 표지



<ㅇㅇㅇ 교수>

- 1) 현상
- 장정의 형태는 선장이며, 총14책인데 표지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제첩(題簽)은 제10책의 것만 온전하며, 나머지는 모두 제10책의 제첩을 복사해서 보충해 놓은 것이다. 보존 상태는 제6책의 경우 하단 일부가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 2) 내용 및 특징
- 현채(玄采)의 만국사기(萬國史記)는 일본인 강본감보(剛本監輔)가 지은 『만국사기(萬國史記)』와 중야안역(重野安繹)의 『일본유신사(日本維新史)』, 영국인 매켄지(Mackenzie, R.)의 『태서신사(泰西新史, A History of the Nineteenth)』 등 외국의 여러 역사서를 운문·번역하여 출판한 것이다.
 - 현채가 주로 저술활동에 전념하던 광무·융희 연간의 우리나라는 안으로 근대화 를 위한 제반 개혁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 특히 노골화 되어 가던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국권 수호를 위한 애국심과 애족심이 앙양 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사교육이 강조되 면서 여러 종류의 역사서들이 간행되고 있었다. 현채는 중국과 일본의 세계사서 가 번거롭고 착오가 많아 독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을 개탄하여 국한문 혼용의 모범적인 세계사를 의도하고 간행한 책이 바로 『만국사기』이다.
 - 서술방식을 보면, 각 국의 역사를 모국(某國), 모년(某年), 모사건(某事件)에 대 해 각 조로 세분하여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문 에서 각 기(各記) 대부분의 내용은 원서(原書)에 토대하였으나 현채는 각 국의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 아래 자주(自註)를 넣어, 해당시기 한국과 중국의 연호를 표기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각 기의 마지막 부분에 전통적인 사서의 예처럼 총평, 즉 사론(史論)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원문의 일부를 편 의에 따라 개역(改譯)하고 있다.
 - 제1책~11책(제1권~제29권)은 본편으로서 여기에는 아시아사, 아프리카사, 유럽 사, 아메리카사, 오세아니아사가 기재되어 있고, 제12, 13책(2권)은 속편으로서 청국무술정변기(淸國戊戌政變記)와 청국단비기사(淸國團匪記事)가 수록되어 있 으며, 부록 격인 목록 1책에는 서(序)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3) 문헌자료
- 정구복·이영화, “玄采 編譯 『萬國史記』의 史學史的 性格”, 『청계사학』 13, 한 국학중앙연구원, 1997. 2.

- 4) 기타(동일 판본의 현존본 상황)
- 완질본(총14책) 소장처
 -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① 국회도서관

제어번호	OLDP1201300020
자료실	귀중서고(1층 대출대)
청구기호	古 900 ㅎ194ㄷ
자료명/저자사항	萬國史記(及)續. 冊1-14 / 玄采 譯編 ★★★
판사항	鉛印本
발행사항	皇城 : 金相萬冊肆. [光武10(1906)]
형태사항	14冊 : 23 x 15.4 cm

주기사항	跋: 光武十年(1906)...姜璉熙識于草自香室 序: 光武九年乙巳(1905)...李載克序 所藏印: 「臣金星圭」「寶衡字雲貴」 v.1-13: 續集.- v14: 目錄
------	---

②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請求記號	B06E-0009a 省軒文庫
書名	萬國史記
著者	玄采(1856-1906)
版種	新鉛活字本(新鉛活字)
刊寫地	한국
刊寫年	光武10(1906)刊
裝幀	線裝
卷冊數	14卷 14冊
匡郭	四周雙邊
半郭	17.8cm(縱) x 11.6cm(橫)
行字數	13行 28字
註釋	註雙行
크기	22.8cm(縱) x 15.4cm(橫)
紙質	洋紙
註記事項	序: 光武九年乙巳(1905)仲春學部大臣李載克序 自敘: 光武九年(1905)九月中旬漢水玄采自敘 跋: 光武十年(1906)丙午春三洲李觀九謹跋 跋: 光武十年(1906)清明節靑雲姜璉熙識于艸自香室 內容: 卷1-4, 亞細亞史. -- 卷5, 亞非利駕史. -- 卷6-26, 歐羅巴史. -- 卷27-28, 亞美理駕史. -- 卷29, 阿塞亞尼亞史. -- 續集 卷1, 淸國戊戌政變記. -- 續集 卷2, 淸國團匪記事

③ 연세대학교

서명/저자사항 萬國史記 / [玄采 譯]. 14卷 14冊

발행사항 平壤 :大東書觀,光武9[1905]

형태사항2, 202 p.(선장본) ;23 cm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현채(玄采)의 만국사기(萬國史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습에 얽매어 식견 이 고루하고 자각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방도로서 자립을 주장하며 자립을 위한 방편이 교육 이외에는 없다고 하여 자국사와 더불어 세계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일본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신라정벌설이나 임나일본부설의 인정하고 있어 일제의 식 민사관을 수용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사회의 지적 수준의 반영이 며 역사적 산물이었고, 근대 시기의 지식인들에게 세계사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단, 이 책의 현존본이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등에 소장

되어 있고, 등록 신청본(대전역사박물관소장본)보다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다.

- 따라서 이 대전역사박물관소장본인 현채(玄采)의 만국사기(萬國史記)는 근대시기 역사서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현존본이 여러 본 남아 있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종합의견

- 이 대전역사박물관소장본인 현채(玄采)의 만국사기(萬國史記)는 근대시기 역사서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현존본이 여러 본 남아 있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전번호 근대 2017-03-17

17.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2016년도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2016.5.24.) 검토 결과, 자료 추가 조사 후 재검토기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소유자)
- (2) 대상문화재명 :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구 십자의원)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1길 13(평화동)
 - 소유자 : ○○○
 - 수량 및 면적 : 2동 / 건축면적 153.85㎡, 연면적 208.92㎡
 - 건립시기 : 1936년
 - 구조 : 일본식 목구조
-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 (4)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소유자>
 - 1층 : 민박 및 진료실은 복식문화 전시 및 무명옷 짓기, 천연염색 체험교실
 - 2층 : 군산 최초의 소아과 전문병원이 특성을 살려 근대기 의료도구 및 서적 등 전시
 - 별채 : 민박 및 보릿고개 음식 체험관
 - <군산시>
 - 가옥 원형을 잘 보존토록 하여 소유자의 활용계획을 토대로 향후 원도심 내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토록 함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 7. 8.)>

○ 문화재위원 ○○○

- 본 건물은 2015년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서 등록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자료와 건축적 이력의 보완조사, 소유주의 보수·활용 과정에서의 진정성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기로 보류한 바 있음. 이번에 현황 건축도면과 상량문을 추가로 제출하였음
- 이 유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건립된 네거티브 유산으로서의 자료 활용과 광복 후 십자의원으로 35년간 사용되었던 지역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이바지한 점 등 지역의 집단기억의 매체로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건물의 상태는 현 건물의 상태는 2015년 조사 때와 같은 상황이며 그간 지붕 누수가 일어나 방수포를 전체적으로 덮어놓은 상태로 비어있음. 2015년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한 철거 위기에 처한 유구를 구입하여 보존·활용의 의지를 보인 소유주의 뜻은 매우 높으나 구입 후 적극적인 활용 이력이 없으며 현재 수립하고 있는 활용계획도 뚜렷하게 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 유구의 상태로는 대대적인 보수·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문화재 제도의 제정취지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근대기의 흔적이 쉬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이에 동참함으로써 겪는 불편에도 인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이 점을 잘 헤아려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2015년 조사 당시 불확실하였던 건축연대는 상량문이 적힌 부재를 통하여 1936년으로 밝혀졌고, 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황도면이 작성되었음.
- 본 가옥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본식 가옥이라는 측면보다 서구식 응접실과 현관 등이 증축되고 병원과 주거가 결합된 양식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여겨짐.
- 앞서 지적한 건축년대와 기본적인 자료는 충족되었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유자가 본 가옥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등록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

- 불확실하였던 건립 시기는 상량문 조사를 통해 1936년으로 밝혀졌으며, 건축물의 세부현황은 건축도면을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 단순한 일본식 주택이 아닌 서양식 공간(응접실, 현관 등)을 병용하였으며, 특히 해방 후에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건축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현 소유자가 제출한 활용계획을 보면 주용도가 민박과 의료사전시관, 음식체험관으로 하고 있지만 계획의 진정성과 명확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현지조사 의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건물 보존상태로 보아 활용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후 현재의 활용계획을 위해 적지않은 국가 예산(국고보조)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해당 지자체 일본식 가옥 전수조사 결과와 연계 검토 필요

○ 출석 6명, 보류 6명

문화재 등록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 (구) 십자의원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신영 1길 13(평화동)

4. 소유자 : ○○○○

○ 현소유자 주소 : 전북 군산시 팔마로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일본식 목조

○ 준 공 일: 미상

○ 면적·수량 : 3동, 건축면적 153.85㎡, 연면적 208.92㎡

○ 층수(높이) : 2층

6. 조사자 의견(2015. 1. 22.)

<○○○ 문화재위원>

1) 개요

군산의 구도심에 위치한, 서양식 주택형식이 가미되고 세부 디테일이 정교한 2층의 일식주택임. 건축 후 주택, 사무실, 개인병원(해방 후 34년간 십자의원)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소유자가 12명이나 바뀜)로 군산의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건물임. 노후화가 심해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한 건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스기야풍(數寄屋風)의 쇼인즈쿠리(書院造) 양식의 목조 2층에 1층의 서구식 응접실과 현관이 증축된 건물로 목조기둥에 이타카베(板壁)와 누리카베(塗壁)의 벽, 일식기와 지붕으로 외관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구조는 현관과 로카(廊下)로 연결된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1층, 연접한 2개의 자시키(座室)를 중심으로 엔가와(緣側)와 계단으로 구성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나 부엌과 방, 천장과 바닥의 마감재, 외벽일부 등이 교체 또는 변형되었으며, 노후화가 심해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함.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관광지로 정비된 군산 원도심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소유주의 보존의지가 확고하므로 군산 근대역사체험공간이나 민박, 또는 홈스테이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록183호, 381.66㎡), 김제 신평동 일본식 가옥(등록 187호, 99.1㎡)과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등록330호, 204.79㎡),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등록 349호, 341.52㎡)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하나 수리여하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중북도의 일본식 2층 주택에 1층 평지붕의 서구식 응접실과 현관이 덧붙은 건물로 구조와 형태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용도변경과 상당기간의 방치로

노후화가 심하고, 부엌과 방, 일부 마감재 등 변형된 부분도 있다. 원형보존은 물론이고 활용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철거위기에 놓인 본 건물을 수리하여 보존하기 위해 현 소유자가 매입하였다 하므로 멸실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유주의 보수활용과정에서의 진정성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여 등록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군산 평화동 일식가옥

<○○○ 문화재위원>

1) 개요

20세기 초에 건립된 일본인 가옥으로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주거, 사무실, 병원 등 기능 또한 여러 모양으로 바뀐 이력을 가진 건물이다. 광복 후, 십자병원으로 군산시민들에게 의료시설로서 이용되던 곳이다. 오랜 동안 병원을 운영하던 전 소유주가 공적인 공간인 병원부분 외에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병원의 기증을 접은 후에도 폐쇄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내부의 자세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소유주가 바뀌면서 수리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군산의 원도심에 남아 있는 대규모의 일본식 목조가옥으로 일부 서양식 주거의 요소가 들어 있는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부는 주거로, 길에서 접근하는 쪽은 업무공간 등 공적인 시설을 배치한 복합적인 기능의 건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주요 구조부들과 내외부의 공간과 마감들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단, 지붕은 퇴락 정도가 심하여 위험한 상태이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원형을 잘 복원하고 원래 기능인 주거와 병원영역을 잘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는 용도를 확보하면 그 사업의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군산 원도심의 반대편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일명 “히로스 가옥”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규모와 건축적 구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소유주가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하나의 일본가옥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를 확보한 것이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본 유구의 물리적 상황과 인문적 배경으로 문화재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 자료와 건축적 파악이 아직 미비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보완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등록을 재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군산에는 이미 많은 일본식 유구를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유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존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자세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보존을 확정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향토자료” 정도의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행하고 추가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문화재 등록을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 군산 평화동 일본식 가옥(구 십자의원)은 군산의 재래시장인 신영시장 인근에 위치한 가옥으로 원래는 일제강점기에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건축년대는 알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십자의원으로 오랜기간 사용되었기에 인근 주민들은 십자의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 1930년대 군산지도에 ‘松本次八郎’라고 기록되어 있고, 폐쇄등기부(토지대장)에 소화10년(1934) 송본차팔씨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1934년 일본인 송본차팔씨가 본 가옥을 토지와 함께 매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후 단기 4284년(1951) 오성규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본 가옥은 적산가옥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한국전쟁 기간 중 오성규씨가 불하받은 것으로 전한다.
- 그리고 그 이듬해인 단기 4285년(1952) 의학박사였던 노재홍씨가 매입하였고 이로부터 십자의원 상호로 진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 1970년에는 소유권이 권혁문씨에게로 넘어갔고, 1978년에는 다시 노재홍 박사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매입하였는데 1987년까지 십자의원으로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후 2014년에 현 소유주인 ㅇㅇㅇ씨가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비교적 큰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장방형 평면의 중층 목조건물로 1층은 중복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실을 배치하되 한쪽으로는 부엌과 화장실 등의 부속공간을 배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방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 2층은 계단실을 오르면 복도로 이어지는데 복도의 안쪽으로 하나의 큰 공간을 미서기문으로 구획하고 한쪽 벽면에 도꼬노마를 비롯한 중요공간을 배치하였다.
- 원래는 1층 평면은 2층 평면규모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제강점기 말 어느 시기엔가 1층 진입공간에 응접실을 부가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이들 응접실과 부엌 등의 공간을 개조하여 의원건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된 응접실은 기존의 목조건물과는 다르게 외벽을 스크래치 타일로 마감한 조적조이고 지붕과 현관은 평슬라브로 되어 근대적 성격의 공간과 의장마감으로 되어 있다.
- 응접실 내부마감도 기존 일본식 주택공간과는 다르게 천정은 석고플라스터로 마감하였고, 바닥은 장마루가 아닌 격자형 마루로 하고 내벽은 징두리벽 형식으로 장식적으로 처리하였다. 창호 역시 오르내리창으로 근대적인 요소를 반영하였다.
- 가옥으로의 주출입 현관은 인조석(테라쑈) 마감으로 4개의 기둥이 캐노피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타일벽 외부에 부가하였다. 이 현관이 응접실을 증축할 당시에 함께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이후 병원으로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 2층의 경우 복도의 외부에 눈썹지붕 형식으로 작은 지붕을 덧대어 처마가 짧은 본 건물의 우수 침해를 막고 있으며, 의장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눈썹지붕은 동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서까래의 단부와 추녀 마구리도 동판으로 덧대어 부식을 막고자 하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주택용도의 건물에서 단계적으로 응접실 공간을 증축하고 이후 병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본식 주거공간을 진료공간으로 개조하는 등의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2층과는 달리 1층 공간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많은 공간적 변화가 뒤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형을 되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일본인의 주택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거나 반드시 보존해야 할 건축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그 시점은 오히려 십자의원으로 지역민에게 알려진 시기가 기준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987년까지 진료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가족들이 거주하였다고 하였지만 현재의 상태로 보아서는 거주 개념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노후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부재가 활용할 수 없을 상태이다.
- 특히, 지붕상태가 불량하여 많은 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천정내부의 지붕구조와 건물 구조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증축된 부분의 연결부분과 기둥에도 부식된 곳이 많고 벽체에 누수된 물이 배어 있는 곳도 다수 발견된다.
- 1층 바닥마루 역시 많은 곳에서 처짐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식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군산시에서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군산시 근대문화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과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원도심 재생사업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이다.
- 본 건물이 위치한 영화동이 재래시장인 신영시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원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을 높여준다. 중요한 하나의 요소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가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10여개가 있다.

1	등록문화재 제118호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과 창고	전남 함평군
2	등록문화재 제130호	장흥 예암리 일본식 가옥	전남 장흥군
3	등록문화재 제131호	장흥 기암리 일본식 가옥	전남 장흥군
4	등록문화재 제183호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전북 군산시
5	등록문화재 제187호	김제 신흥동 일본식 가옥	전북 김제시
6	등록문화재 제225호	순천 옥천동 일본식 가옥	전남 순천시
7	등록문화재 제235호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경북 울릉군
8	등록문화재 제233호	영천 과전동 일본식 가옥	경북 영천시
9	등록문화재 제330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부산 동구
10	등록문화재 제348호	부산 초량동 일본식 가옥	부산 동구

- 이들중 관사를 제외한 일본식 가옥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대체로 건축적 가치가

18. 「광주 관덕정」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광주 관덕정(觀德亭)」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관덕정」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 2015년 ‘근현대 체육시설 목록화 조사’ 후 문화재 등록추진대상 선정 검토회의(2016.1.28.) 결과, 문화재 등록 추진 대상에 선정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광주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관덕정(觀德亭)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49(사동 177)
 - 소 유 자 : 광주광역시장
 - 관 리 자 : 광주광역시 체육회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189㎡
 - 건립시기 : 1963년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 (4)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궁도장으로 계속 활용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2.22.)>

- 문화재위원 ○○○
 - 근대 한국 체육시설로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구로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며, 관덕정과 활터의 부속시설인 당사, 과녁영역, 운시대 등 건조물 일곽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이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립 당시의 기록물 또한 동산 등록 문화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높은 것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가옥과 동일한 군산의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가옥으로 더 알려져 있음)의 경우 당시 일본인 거상의 주거양식과 이들의 조선침탈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 본 가옥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은 전남 장흥 기양리에 있는 일본식 가옥이다. 의원과 주택의 기능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본 가옥과 대비될 수 있는데, 본채와 부속채가 분리되어 있어 그 각각의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 본 가옥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연혁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점이 있고, 기본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적 가치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6)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가옥의 건축적 가치를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건물이라는 것에서 찾아야 할지 혹은 십자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 않다. 즉,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어떠한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창년대와 이후 응접실의 증축은 언제 이루어졌고, 또 병원으로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2층과 2층의 세부장식등은 당시 건축기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1층의 변형정도를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건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소유주는 본 건물 옆의 창고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본조사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의견없음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문화재전문위원 ○○○
 - 1960년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 사장(射場) 건물로 기존의 전통목 구조의 형태를 벗어난 근현대 체육시설 건축물로서 관덕정의 건축구조와 형태는 건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 이외 ‘규약서(1928)’와 ‘시중당(時中堂, 1967년 건축)’도 함께 보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궁장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체육시설에 걸맞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붕의 처마곡선, 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국체육대회 개최 과정에서 좌우측에 증축된 부분은 등록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국궁장이라는 전체적인 시설의 측면에서 볼 때, 관덕정을 포함한 부대시설(과녁, 사대, 시중대 등) 일괄을 등록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재 등록 범위(면단위) 검토
- 출석 6명, 보류 6명

- 1. 명 칭 : (원) 광주 관덕정 (구) 광주 관덕정
- 2. 용 도 : (원) 체육시설(사장) (원) 체육시설(사장)
-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49(사동117)
- 4. 소유자 : 광주광역시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 공 일 : 1963년 7월 2일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189㎡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016.12.22.)

<문화재위원 ○○○>

- 1) 개요
 - 광주의 활터는 조선조부터 시내의 부지 중 여건 맞는 곳에 건립하였는데 사회적 도시 여건이 바뀌에 따라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다가 1963년 10월경 광주시 사동 소재 사직공원 북변 약 1300평 지상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관덕정의 현 사장을 신축하고 서기 1967년 7월경 동 대지 안에 부속건물인 시중 당사를 신축하였다. 전국 체전이 전라남도과 광주에서 개최될 때는 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관덕정은 콘크리트 구조로 한옥의 지붕형태를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이며 196년대에 한국 전통건축미의 현대건축 적용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부속건물(당사), 과녁과 운시대(화살운반 장비) 또한 중요한 또한 활터의 중요한 시설이라 볼 수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보존상태 양호함.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궁장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보존의지가 강함.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국궁의 연마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본 유구의 취지와 부합함.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전통건축 양식으로 건립되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로 근대건축물로서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된 사례는 없음.
- 7) 등록가치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대 한국 체육시설로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구로서 문화재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며, 관덕정과 활터의 부속시설인 당사, 과녁영역, 운시대 등 건조물 일괄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이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립 당시의 기록물 또한 동산 등록문화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광주 관덕정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신청 건물 ‘광주 관덕정(光州 觀德亭)’은 1961년 7월 2일 준공되었으며 한국 전통 기예인 국궁장으로 광주활터의 중심이 되어 온 곳이다.

15세기부터 존재하던 사장(射場)이 광주 도심지, 천변, 광주공원 등의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현재의 사직공원 야산으로 이전·신축되었다. 화천기공의 권승관(權昇官) 회장 등의 주선으로 전라남도과 광주시로부터 건축허가와 지원을 받고 권 회장 자신도 120만원을 회사하여 관덕정을 신축하게 되었다. 건물은 김태만씨가 설계를 하고, 남화토건의 최상옥씨가 시공하였다.

관덕정은 사직공원을 바라보는 남향의 건물로 사장(射場)은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다. 건물구조는 1960년대초 다른 사장에서 볼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정면의 처마를 들어올려 곡면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처마부위의 서까래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처마의 아래 공간이 사대(射臺)가 된다.

준공 이후 건물은 전국대회 및 체전이 3차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는데 관련 종목 경기가 관덕정에서 있었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좌우측 및 배면 확장, 창호 교체 등의 수리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건물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본 건물은 전남공도협회가 관리해오다가 1984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였고,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관덕정의 프로그램 운영은 광주공도협회가 맡고 있다.

<수리연혁>

1967년 8월 6일 시중당 준공(설계 김태만, 시공 김성섭)
1982년 전국대회를 위한 수리
1987년 화장실증축(68회 전국체전)
1993년 본관 확장, 사무실 증축(74회 전국체전)
1997년 배면부 확장, 전면부 복도와 사대 증설
2008년 정면 접이문 교체수리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관덕정은 지상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시멘트벽돌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경사진 슬라브 형태이다.

건물의 정면은 처마 슬라브를 전면으로 확장하면서 치켜올려 곡면을 이룬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단면이 사각형을 이루는 서까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슬라브 하부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전통한옥구조의 서까래를 표현하고 있다.

평면은 2칸 규모의 장방형이었으나 전국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좌우측, 배면부가 확장되었다. 중앙에 홀을 두고 좌우측에 각각 화장실과 사무실을 배치하고, 전면에는 복도와 사대가 위치한다.

좌우측 및 배면 외벽은 시멘트벽돌+몰탈로 마감하였고 정면의 개구부는 중앙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6쪽(1쪽은 여닫이문, 5쪽은 들어걸개문)으로 된 전통형태의 목제문이 설치되었으나 2008년 수리시 알루미늄제문으로 교체되었다. 건축 당시의 목제 여닫이문과 들어걸개문은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전후면이 높고 중앙부위가 낮게 설계된 경사 슬라브 구조이다.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정면의 처마 하부를 곡면으로, 내부는 우물천장을 구성하였다. 슬라브의 하중을 지지하는 철근콘크리트보는 역방향인 건물 상부에 노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주요 구조부는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수리를 통한 증축이 시행되었다. 증축시 원형과는 다른 마감재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접합부분 및 마감재의 훼손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추후 수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면에서 표현하는 전통적인 요소들(처마형태, 사각단면의 서까래, 들어걸개문)이 일부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원형복원이 필요하다.

옥상 슬라브는 평면의 확장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배수관로 및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광주광역시가 소유자이고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광주공도협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어 광주시민의 심신수양의 장소로 지속적인 활용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사직산의 사직공원내에 위치하여 주변입지는 최적지이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관덕정은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사장(射場)으로 근현대시기의 체육시설이라는 정점을 지니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계획과의 부합성

관덕정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심신수양의 장소로써 공도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승급심사 및 공도시합, 선수 육성 및 훈련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 자체가 시민체육의 일환이 되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로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관덕정은 1963년 건축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전국대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도인의 참여로 친목과 기량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전통기예인 국궁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1967년에 건립된 시중당(時中堂)이 위치하고 있으며, 규약서(무진년3월, 1928년), 현판, 정초석, 권승관 공적비 등이 관덕정의 역사적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시중당은 소규모의 건물이나 관덕정의 슬라브 마감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규약서는 광주 관덕정의 국궁역사를 잘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다. 이외 온시대(리프트 구조물)와 과녁, 사장, 부속건물 등을 조화있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관덕정은 1960년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 사장(射場) 건물로 기존의 전통목구조의 형태를 벗어난 근현대식 건물이다. 체육시설 건축물로써 관덕정의 건축구조와 형태는 유일하다.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국민건강과 심신수양에 기여도가 크고 한국의 전통기예인 국궁장이면서 근대현대시기의 체육시설로써 관덕정은 건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외 보존해야 할 것으로는 ‘규약서(1928)’와 ‘시중당(時中堂, 1967년 건축)’으로 사료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명칭 : 광주 관덕정(光州 觀德亭)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관덕정(觀德亭)은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사장(射場), 즉 국궁장(國弓場)으로 광주시 서측편에 위치한 사직산(社稷山)의 사직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사직산은 과거 그곳에 사직단(社稷壇)이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광주에는 조선시대부터 사장이 만들어져 오늘날에까지 존·폐를 거듭하면서 그 맥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이번에 등록신청된 관덕정은 1963년 김태만이 설계하고, 최상옥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사직공원의 북측면으로 이루어진 경사진 높은 축대를 쌓고 남북방향으로 장방형의 긴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건립하였다. 정내에는 관덕정을 비롯하여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시중당(時中堂, 1967년 건립)과 과녁, 휴게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관덕정은 전남궁도협회가 관리하여 오다가 1984년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그 후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관덕정의 프로그램 운영을 광주궁도협회에 위임하여 현재 광주의 대표적인 국궁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관덕정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나, 전체적인 형태는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즉, 지붕 처마의 평면과 입면에 ‘안하리곡’과 ‘웃음’, ‘양각’을 주었으며 처마의 단부를 둥글게 말아 올려 한옥의 부드러운 처마곡선을 충실히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처마 아래에는 방형의 서까래를 형성화하여 장식하였다. 정면 상부에는 살대를 아(亞)자 형태로 짠 채광 창호를 설치하였으나 후에 창호 뒤편에 합판으로 막아 현재는 채광 창호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천정은 콘크리트 위에 석고 보드로 마감되어 있으나 과거의 사진기록으로 보아 본래는 우물반자로 장식하였으며 정면부에 설치된 창호 역시 본래 용자살 문양의 목재 창호에서 알루미늄 사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상 슬라브는 정면과 배면으로 역방향의 구배를 주었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 보를 역배근하여 슬라브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실내 배면의 벽체쪽에는 목재로 만든 단(段)을 두어 휴게시설로 사용하였으나 내부공간의 증축과정에서 소실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오늘날의 관덕정은 그 간 크고 작은 보수 및 증개축 공사가 있었는데 1987년과 1993년 두 차례의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장으로 사용되면서 내부공간의 확장과 함께 좌우측면으로 철골조건물을 증축하였으며 현재 정면에 설치된 콘크리트 사대(射臺) 역시 이 과정에서 증설된 것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일부 증축된 공간 및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당시 원형이 잘 남아 있고 또한 한국 전통목조건축 양식의 조형적인 특징이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구조 및 마감재는 수차례 교체, 수리 등을 통해 원형의 모습이 다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건립 당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계속해서 국궁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광주광역시와 위탁관리 주체인 광주광역시체육회는 근대시기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관덕정을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궁장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향후 국궁장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활용하는 등 등록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관덕정은 1984년 전남궁도협회가 광주광역시로의 기부채납 당시 조건이 영구히 국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시기 서양식 체육시설(체육관) 등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있지만, 관덕정과 같이 근대시기에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을 이미지화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체육 시설은 흔치 않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 등록문화재와의 차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5년에 실시한 ‘근현대 체육시설 일체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적, 건축적 가치 등이 높게 평가되어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국궁장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체육시설에 걸맞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붕의 처마곡선, 웃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개최 과정에서 좌우측에 증축된 부분은 등록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궁장이라는 전체적인 시설의 측면에서 볼 때, 관덕정을 포함한 부대시설(과녁, 사대, 시중대 등) 일괄을 등록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덕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충주 구 조선식산은행」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충주 구 조선식산은행」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주 구 조선식산은행」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충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구 조선식산은행
 -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4길 14(성내동)
 - 소 유 자 : 충주시장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320.66㎡
 - 건립시기 : 일제강점기
 - 구 조 : 목구조
-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 (4)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리모델링 후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2.26.)>

- 문화재위원회 ○○○
 - 타 지역에도 소규모 금융기관 건축을 문화재로 등록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본 유구는 충주지역의 지역사에 중요한 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관과 별채 모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전통적 중심 시가지에 1933년(추정) 건축된 이후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건물로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충주 시가지에서 근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일제강점기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충주 시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근대문화역사관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도 추진 중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등

록문화재의 기본방향과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본래 업무동과 부속동 중에서 업무동이 은행 본연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건축양식과 기법도 완성도가 더 높게 적용되었으므로, 등록시에 업무동의 원형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근대기 은행용도 건축물의 전형적인 평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 역시 공공시설로의 엄격성과 권위를 보이기 위해 좌우대칭의 정면과 돌출된 현관 그리고 꺾인 지붕형태를 가지고 있음
- 세부적 특징으로는 근대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직 창호와 코니스 등을 사용하였으며 시공재료로 주요 보안시설인 금고실을 제외하고는 목재가 주로 사용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근대문화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건물의 훼손도와 노후도를 감안할 때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함
- 훼손과 열화가 심한 편이나 해당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와 구조적 특징은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전면 파사드는 구조형식뿐 아니라 구법의 관점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높음

○ 문화재전문위원 ○○○

- 일제강점기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건물은 여러 도시에 걸쳐 현존하고 있으며 이중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등록문화재 제164호)’,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대구시유형문화재 제49호)’ 등이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음. 등록문화재인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과 비교할 때 은행시설과 일종의 관사로 볼 수 있는 부속공간이 결합된 것에서 보다 완전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동 건물인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과거 일제강점기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식민수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감안, 이를 통해 그 시대상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으로 함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2. 용 도 : (현) 충주근대문화전시관(리모델링공사중 중지) (원) 은행

3. 소재지 : 충주시 관아4길 14

4. 소유자 : 충주시장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 공 일 : 1933년 12월 (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320.66㎡, 연면적 320.66㎡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12.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06년 7월 내륙지방 관찰부소재지에 본점을 두는 지방은행으로 충주농공은행 설립
- 충주농공은행은 탁지부령에 따라 1907년 6월 한성, 공주, 충주의 3개 농공은행이 통폐합하여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으로 재출발
- 1908년 6월에 충청북도 관찰부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해 9월에는 출장소로 격하
- 병탄이후 일본인들의 이주증가와 함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1912년 8월부터 영업소 신축에 착수하여 11월에 현 성내동 428번지(현 안경나라)에 완공
- 1918년에 일제는 농공은행이 경영과탄에 직면하자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식민지 산업금융기관으로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은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으로 명칭 변경
- 1933년 12월 현재의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신축.
- 해방 후 조선상호은행 충주지점, 한국상공은행 충주지점, 한국흥업은행 충주지점, 한일은행충주지점 건물로 쓰이다가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30년대에 각 지역에 세워진 금융기관의 전형인 목골조 스테고 마감의 본관 건물과 사택에 해당되는 별관 건물(일본식 목조주택)이 이어져 있는 배치형태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만사르 지붕으로 지역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식민지배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아르데코 분위기의 장식과 수직으로 긴 창을 설치하여 193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모더니즘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용도가 여러 번 바뀌면서 변형과 퇴락된 부분은 있으나 복원을 거쳐 회복될 정도

라고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충주시와 시민사회에서 보존, 활용의 의지가 강하여 사회적 합의를 잘 찾아내어 충주시 근대역사의 사료로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시민문화공간으로 수립한 계획은 본 유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타 지역에도 소규모 금융기관 건축을 문화재로 등록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본 유구는 충주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관과 별채 모두 등록하기를 제안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과거 충주읍성의 중심부로 일제강점기 당시 혼마치(本町) 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관공서, 상가가 집중되며 중심적 시가지를 형성하였던 지역에서 사거리 모퉁이 대지에 건축.
- 건축연도는 1933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933년 8월 착공하여 12월 완공된 것으로 추정 가능.
- 해방후 조선상호은행 충주지점, 한국상공은행 충주지점, 한국은행 충주지점, 한일은행 충주지점을 거쳐 1981년 민간에게 불하되어 가구점으로 활용되다 2015년 충주시에서 매입.
- 충주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을 근대문화역사관으로 보존, 활용하려 2016년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지역에서 네가티브 유산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의견이 상호 대립중.
- 충주시는 2016년 12월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건물의 보존 및 활용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 활용 또는 철거, 멸실을 결정할 예정.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충주의 전통적 중심 시가지에 1933년(추정) 건축된 이후 중심적 입지, 중추적 역할, 이국적 양식, 독특한 외관으로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건물로 역할하였으며, 현재 충주 시가지에서 근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
- 기본적 건축형식은 근대기법의 목구조 건물로 긴 장방형 대지에서 객장, 영업장, 금고 등으로 구성된 업무동과 숙직실, 창고,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부속동이 앞뒤로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일(一)자형 평면을 구성.
- 업무동의 객장 및 영업장 부분은 내부공간을 기둥이 없이 통칸으로 천정을 매우 높게 형성하였으며, 외부벽체는 상,하 2단으로 창문을 배치하고 수평돌림띠(Cornice)를 강조하였으며, 상부 지붕은 사면 중앙에 도머 창(Domer Window)을

지닌 맨사드 지붕(Mansard Roof)을 형성.

- 전체 건물의 정면 및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업무동 정면은 형태적으로 돌출되어 강조된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창문, 수평돌림띠 장식 등에 의해 대칭 형태로 구성되며 정면성을 강조.
- 업무동 본래의 외관은 외벽마감이 시멘트 모르타르 뽕칠(현재는 타일 덧붙이기로 변형), 지붕마감이 천연슬레이트 잇기(현재는 기와지붕으로 변형)였던 것으로 추정.
- 업무동은 근대식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고 외관에서 대칭적 구성, 주출입구 강조, 수평돌림띠 장식, 경사지붕, 도머창 장식 등에 의해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전반적으로 적용.
- 업무동 후면에 연결되어 건축된 부속동은 업무동과 마찬가지로 목구조 벽체와 경사지붕으로 구성되었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화되고 평범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물 1981년부터 가구점으로 활용되며 업무동 전면 일부가 증축되었으나, 현재는 원형복원을 위해 철거된 상태.
- 업무동은 벽체 및 지붕의 목조 구조체, 내부 바닥 등 기본 구조체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외벽 및 지붕은 마감재가 변형되었으나 원형복원이 가능한 상태.
- 부속동은 업무동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불량하고 각 부분에서 노후화 및 훼손정도가 심각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충주시에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근대문화역사관으로 보존,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충주읍성 관아 유적인 충주 청녕헌(충북 유형문화재 제66호), 충주 제금당(충북 유형문화재 제67호)과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충주시에에서 수립한 근대문화역사관으로 활용계획은 근대문화재로서의 지역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존관리 계획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등록문화재로 등록시 충주시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역사관으로 보존, 활용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등록시 기존의 보존, 활용계획은 문화재청과의 협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원형복원, 보수기법, 활용방안 등에 대해 보완, 수정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은행건물로서 등록문화재는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19호),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제29호), 구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제164호), 구 제일은행 여수지점(제170호),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제324호),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등록문화재 제372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제374호)이 현존.
- 업무동과 부속동에 의한 평면구성, 맨사드 지붕, 상하 2단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형태의 창문, 수평돌림띠 장식, 돌출된 출입구 등 전체적인 건축양식과 기법은 동시기인 1934년에 건축된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과 유사.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전통적 중심 시가지에 1933년(추정) 건축된 이후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건물로 역할하였고 현재는 충주 시가지에서 근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업무동은 근대식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고 외관에서 대칭적 구성, 주출입구 강조, 수평돌림띠 장식, 경사지붕, 도머창 장식 등에 의해,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전반적으로 적용.
- 지역의 대표적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일제강점기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충주시에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근대문화역사관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등록문화재의 기본방향과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본래 업무동과 부속동 중에서 업무동이 은행 본연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건축양식과 기법도 완성도가 더 높게 적용되었으므로, 등록시에 업무동의 원형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변형된 외벽마감, 지붕 도머창은 원형복원이 필요하며, 본래 입면의 주요 특징적 요소였던 돌출된 주출입구와 외벽 상단의 과장된 수평돌림띠는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적정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1933년 12월 해당 건물인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신축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도시 충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다. 해방 후 조선상호은행 충주지점으로 사용되다가, 한국상공은행 충주지점, 한국흥업은행 충주지점, 한일은행 충주지점 건물로 쓰였고 그 후 민간에 불하되어 가구점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현재는 충주시가 매입하여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근대기 은행용도 건축물의 전형적인 평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 역시 공공시설로의 엄격성과 권위를 보이기 위해 좌우대칭의 정면과 돌출된 현관 그리고 꺾진 지붕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 특징으로는 근대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직창호와 코니스 등을 사용하였으며 시공재료로 주요 보안시설인 금고실을 제외하고는 목재가 주로 사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본체의 외관은 어느 정도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나 부속동은 훼손이 심하며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단시간의 현장조사만으로는 지붕구조와 벽체의 구조안전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현재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붕괴될 가능성은 높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해당 건물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논란이 충주지역에서는 대립되고 있지만 공공소

유자산이고 소유주인 충주시의 보존의지가 강하여 보존관리는 잘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성이 좋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근대문화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존관리 계획 역시 관리주체가 건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활용 및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대중이용시설 사용가능여부와 필요한 구조보강이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을 보존하면서 가능한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현 건물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기타사항

건물의 훼손도와 노후도를 감안할 때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기에 건축된 은행시설은 많이 잔존해 있으나 내륙지역에 있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구조와 재료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훼손과 열화가 심한 편이나 해당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와 구조적 특징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특히 전면 파사드는 구조형식 뿐 아니라 구법의 관점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구 조선식산은행이란 명칭이 타당하나 지역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동 건물은 1933년 충주식산은행 충주지점으로 현재의 위치에 신축된 건물로 광복 이후 조선상호은행(1946년), 한국상공은행(1950년), (주)한국흥업은행(1954년), (주)한일은행(1960년)의 충주지점으로 사용되어 오다 1981년 민간에 매각되어 가구점 등으로 사용된 후 2016년에 충주시가 매입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근 소유주인 충주시가 리모델링을 통해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현재의 건물 상태가 노후화와 훼손이 심하고 또한 식민수탈기관의 건물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는 최초 건립이후 줄곧 은행 시설로서 사용되었던 만큼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1981년 민간에 매각된 이후 가구점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형이 있어 최근 충주시는 활용을 위해 원형회복 차원에서 증축된 부분을 제거하는 등 일부 복원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건물은 본채와 별채가 종방향으로 길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면은 가로(街路)에 면해 서향을 하여 위치하고 있고 배면으로 부속채가 달려 있다. 건립당시 본채는 업무공간으로서 크게 객장과 영업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업장 뒤편으로는 금고와 창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덧붙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고의 기능을 충족

시키기 위해 목재가 아닌 붉은 벽돌로 2.0B 쌓기로 하고 그 위에 회를 칠한 후 페인트로 마감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반해, 별채는 본래 여러 기능의 각 실들과 화장실 등의 부속 공간이 벽체로 별도 구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본채와 연결한 실의 내부에는 도코노마 장식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별채와 본채 사이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내부에서 왕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벽체는 외벽의 경우 기둥 사이에 인방채와 셋기둥을 결구하여 만든 뼈대에 나무널을 이용하여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바른 뒤 회를 칠한 소위, 일본식 진벽(眞壁)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그 위에 다시 타일을 붙였다. 본채의 경우 내부 천정에 장식이 있는 우물만자가 가설되어 있어 지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소위, 만사드 지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목재 트러스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붕의 네 면에는 도머창을 설치하였다. 다만, 최근 지붕 복원공사 과정에서 기와를 일체형 기와를 사용하여 본래의 지붕 재료는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본채 뒤편에 덧붙여진 금고와 창고시설은 눈썹지붕 형태의 지붕을 별도로 달아냈으며 별채는 용마루가 짧은 우진각지붕과 박공지붕을 결합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지붕이 조합되어 있다. 창호는 1981년 민간에 매각된 이후 가구점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수직형태의 창호에 아래쪽에는 오르내리창, 위쪽에는 고정창을 설치하였다. 정면과 우측면에는 돌출된 형태의 출입문을 각각 1개소씩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존하는 측면 출입문의 형태로 보아 모두 철판문을 달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바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으나 일부 바닥 재료는 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로 보아 은행시설과 일종의 관사로 볼 수 있는 부속공간이 결합된 것으로서 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식산은행에 비해 보다 완전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가구점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철거, 훼손되거나 복원과정에서 새롭게 고쳐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건축당시의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즉, 내부 마감재는 수차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원형의 모습이 다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건립 당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과거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식민수탈기관인 조선식산은행 건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소유주인 충주시에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아 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향후 충주시의 역사를 교육, 홍보하는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등록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충주시는 동 건물이 위치한 일대의 충청감영을 중심으로 근대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대문화전시관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일제강점기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건물은 여러 도시에 걸쳐 현존하고 있으며 이중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등록문화재 제164호)’,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대구시유형문화재 제49호)’ 등이 문화재로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등록문화재인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과 비교할 때 은행시설과 일종의 관사로 볼 수 있는 부속공간이 결합된 것에서 보다 완전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동 건물인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과거 일제강점기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식민 수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감안, 이를 통해 그 시대상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충주시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번호 근대 2017-03-20

20.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207(시방리 335-2)
 - 소 유 자 : (재)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113㎡
 - 건립시기 : 1927년(추정)
 - 구 조 : 목구조
-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 (4)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성당 본당으로 보존·활용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7. 2. 9.)>

- 문화재위원 ○○○
 - 진산지역은 조선조 후기에 이승훈으로부터 세례 받은 윤지충이 가족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한 곳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최초의 박해였던 신해박해(1791년)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곳임.
 - 한국천주교 역사의 첫 순교지라는 장소에 교인들의 협력으로 건립되었으며 그 간 사체가 부재한 공소가 되기도 하고 사체가 부임하여 성당으로 승격하는 등 교구의 지역사가 배어 있는 실증자료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
 - 꾸준한 관리로 건물의 상태는 양호하며 종합 부분의 신축사항만 제외하면 원형의 유지정도도 좋은 편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단, 종합부분과 외벽체 하부는 향후 원형복원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진산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로 시복(諡福)된 윤지충과 권상연이 선교활동을 하다 1791년 순교한 사건인 진산사건 일명 신해박해(辛亥迫害)의 발상지로 이후 교우촌을 형성하고 지역의 천주교 중심지로 역할하였던 진산면에 1927년 건축된 소규모 성당임
- 외관은 변형된 종탑과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3랑식 목조가구식 구조와 공간, 제단의 제대와 난간 등 건축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진산성당은 진산사건 일명 신유박해의 발상지에 건축되었다는 지역적, 종교적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절충식 한옥성당으로 기존 등록 사례와 차별되는 건축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내부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보존, 관리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전체적으로 최초 건립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당 내부 공간의 구성 방법(삼랑식의 목구조 등)과 남·녀의 동선 분리(측면 부출입 설치), 세부 장식(제단 목재 난간 등) 등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천주교 역사에 최초 박해인 신해박해(1791)의 진원지가 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성당 내부에 설치된 제대 역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등록문화재(동산분야)로서의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진산성당 (구) 진산성당

2. 용 도 : (현) 성당 (원) 성당

3.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실화로 207

4. 소유자 : (재)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 공 일 : 1927년 (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13㎡, 연면적 113㎡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7. 2. 9.)

<문화재위원 ○○○>

1) 개요

진산지역은 조선조 후기에 이승훈으로부터 세례 받은 윤지충이 가족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한 곳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최초의 박해였던 신해박해(1791년)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후 1887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천주교인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자 공소형태로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민가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건물이 몇 차례 지어 졌고 1927년에 건립된 성당건물이 현재까지 미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신해박해 때 순교한 두 신도(윤지충, 권상연)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됨(2014년 8월16일)으로써 천주교이 성지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동서로 긴 축을 가진 3랑식 바실리카 형식으로 맞배지붕, 중앙종탑의 중규모 성당 건축의 전형적 모습을 하고 있다. 목조구조는 내외부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데 내부에서는 중앙통로(내이브)의 상부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더욱 차분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중앙통로 상부에 高窓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쪽의 측랑보다 높은 지붕을 설치하여 기본적인 바실리카식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벽기둥 사이의 공간은 정두리를 상부를 모두 유리창으로 마련하여 밝은 분위기의 성당내부를 연출하고 있다. 주출입구 상부에는 중2층을 두어 성가대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2004년 수리 때 철거하였다. 외벽은 원래 비늘판 벽이었으나 후에 몰탈을 덧 씌웠고 종탑 또한 목조였으나 1983년 철거하고 시멘트벽돌 조로 새로 만들고 현관도 새롭게 덧 붙였다. 원래 남녀 구분된 현관이 양쪽에 있었는데 가운데로 합쳤고 양옆의 공간은 고해실과 준비실로 사용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꾸준한 관리로 건물의 상태는 양호하며 종탑부분의 신축사항만 제외한다면 원형의 유지정도도 좋은 편이라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성당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건립된 교회 건축으로서 공동체가 이러한 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역사적 교회로서 교회건물 자체가 야외박물관의 전시물에 해당되어 순례자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으며 실천 가능한 내용이라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동일유형의 천주교 성당이 문화재 등록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한국천주교 역사의 첫 순교지라는 장소에 교인들의 협력으로 건립되었으며 그 간 사제가 부재한 공소가 되기도 하고 사제가 부임하여 성당으로 승격하는 등 교구의 지역사가 배어 있는 실증자료로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등록가치 충분함. (단, 종탑부분과 외벽체 하부는 향후 원형복원 할 필요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진신성당이 위치한 금산군 진산면 일대는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로 2014년 시복(諡福)된 윤지충(1759~1791년)과 권상연(1751~1791년)이 1780년대 중반부터 천주교를 전파하였던 지역.
- 진산 지역에서 천주교를 전파하던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교식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조정에 체포되어 1791년(정조 5년) 전주에서 순교하였으며, 이 사건을 진산사건 또는 신해박해(辛亥迫害)라고 지칭.
- 이후 진산 지역은 천주교 교우촌을 형성하고 공소(公所)를 중심으로 지역의 천주교의 중심지로 지속적 역할을 하였으며 1927년 현재의 진산성당을 건립.
- 프랑스 외방전교회 신부로 초대 대구교구장을 역임한 플로리앙 드망즈(Florian Demange, 한국명 안세화, 1875~1938년)가 자신의 선교활동을 기록한 「드망즈 주교 일기」의 내용과 사진을 근거로 진산성당의 건축연도는 1927년으로 추정 가능.
- 성당 건축 후 1930년에 사제관을 건축하였으며 사제관은 2010년 다목적홀 건축을 위해 철거.(사제관 건축연도는 상량문에 의해 1930년으로 확인되며 현재 상량문이 기록된 목부재를 성당에서 보관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3칸, 측면 6칸 규모, 2고주 5량의 절충식 한옥성당으로 정면 중앙에 높은 종탑을 설치하고 그 하부에 주출입구를 형성하였으며 양측면 벽체 중앙에 각각 부출입구를 돌출시켜 형성.
-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로 본래 합석 마감이었으나 현재 슬레이트로 변형되었으며. 외벽은 현재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되었지만 원형이 아니고 후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 정면 종탑은 본래 목구조였지만 후에 전면부 증축과 함께 시멘트 벽돌조로 변형되었으며, 이 당시 내부 출입구 상부의 중2층 구조도 철거.
- 내부는 바실리카식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전형적인 3랑식(三廊式)을 구성하고 중

양의 신랑(身廊, Nave)은 너비는 넓고 천정은 높게, 양측 측랑(側廊, Aisle)은 너비는 좁고 천정은 낮게 형성.

- 마루 바닥, 목조 천정, 회바름 벽 등으로 구성된 내부는 건축 당시의 원형과 소규모 성당의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단의 목조 제대, 목조 난간 등은 건축 당시의 원형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은 정면부가 증축되고 그 상부 종탑이 변형되고 지붕과 벽체의 마감이 변형된 상태이지만 원형복원이 가능한 상태
- 내부는 전체적으로 건축당시 원형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단의 제대, 난간 등은 건축 당시의 원형으로 추정됨.
- 건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당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유지, 관리되었으므로 특별히 훼손된 부분은 없지만, 목조 구조체와 창호, 외부 마감재 등에서 일부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지역 및 천주교 측에서 진산성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원형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농촌의 전원적 풍경을 배경으로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로의 보존을 저해할 만한 주변환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당측에서는 성당 본당으로서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로 보존하며 본래 용도 그대로 활용하는 매우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성당측에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 보존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장래 등록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은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목조 성당으로 등록문화재는 대한성공회 진천성당(제8호), 진안성당 어은공소(제28호),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42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제140호), 장수성당 수분공소(제189호), 봉화 척곡교회(257호), 울진 행곡교회(286호), 울진 용장교회(287호), 고양 행주성당(제455호) 등의 사례가 있음.
- 진산성당은 절충식 한옥성당으로 다른 한옥성당과 달리 지붕을 기와지붕이 아닌 합석지붕, 목조 종탑, 주출입구 상부 중2층 형성, 내부 횡단면의 층단형 천정 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진신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로 시복(諡福)된 윤지충과 권상연이 선교활동을 하다 1791년 순교한 사건인 진산사건 일명 신해박해(辛亥迫害)의 발상지로 이후 교우촌을 형성하고 지역의 천주교 중심지로 역할하였던 진산면에 1927년 건축된 소규모 성당.
- 외관은 변형된 종탑과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3랑식 목조가구식 구조와 공간, 제단의 제대와 난간 등 건축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

고 있음.

- 절충식 한옥성당으로 다른 한옥성당과 달리 지붕을 기와지붕이 아닌 합석지붕, 목조 종탑, 주출입구 상부 중2층 형성, 내부 횡단면의 층단형 천정 형성 등의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진상성당은 진산사건 일명 신유박해의 발상지에 건축되었다는 지역적, 종교적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절충식 한옥성당으로 기존 등록 사례와 차별되는 건축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내부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보존, 관리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진상성당’ 또는 ‘진산성지성당’
- 본래의 목조 종탑은 진산성당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건축요소이므로 원형 복원이 필요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진산 성지성당은 1916년경 가세별 공소로 시작하여 1922년 지방리 공소를 거쳐 1927년 현재의 위치에 지방리 공소 성당을 건립, 1929년에 본당으로 승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증언에 의하면, 가세별 공소는 초가 3칸 규모로 ‘금산 천주당’으로 불렸으며 건립년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1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1927년 지금의 진산 성지성당이 건립될 때까지 사용되었다가 그 후 철거되었다고 한다. 또한, 진산 성지성당이 건립된 이후 신부의 거처를 위해 성당 경내에 사제관을 마련하였으나, 2005년 성당의 부속건물(다목적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당시 사제관의 상량문을 기록한 종도리가 남아 있어 1930년에 이사용(李時容)이라는 목수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진산지역은 1787년 이승훈(李承薰)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윤지충이 가족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한 곳이며, 한국천주교 역사에 최초 박해인 신해박해(1791)의 진원지가 된 곳이다. 즉, 신해박해로 인해 윤지충(尹持忠)과 그의 사촌인 권상연(權尙然)이 전주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진산 성지성당은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一자(字) 형태의 본체와 그 정면 중앙부에 종탑을 높이 세웠다. 본체는 6칸×3칸 규모의 목구조로 내부에 세운 2열의 고주(高柱)로 인해 중앙의 신랑(네이브)과 양측의 측랑(아일)의 구별이 뚜렷한 삼랑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종탑은 콘크리트조의 3층 규모로 1층은 성당 내부로 진입하는 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관 좌·우측에는 서로 대칭되게 각각 제의실과 고해소를 두었다. 본체의 내부 공간인 제단과 회중대가 삼랑식으로 구성되고 그 정면으로 종탑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바실리카의 교회당 건축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당 관계자에 의하면, 최초 건립 시에는 제대가 동측벽을 바라보게 위치하였으나 1962년 개최된 ‘바티칸 공회’ 이후 미사 방식의 변화에 따라 회중대쪽을 바라보게끔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제단 상부에는 당시 사용하였던 제대와 본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제단과 회중대의 경계부에는 바닥의 높이 차이를 두고 경계부 끝에 접이식 목재 장식 난간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는데, 이 역시 미사 방식이 바뀔에 따라 그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아직까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

초 건립 당시에는 입구 부분에 위치한 2개의 고주 위에 중 2층의 발코니를 설치하고 전면에 장식 난간을 두고 성가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되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없다. 내부 바닥에는 모두 장마루를 깔았으며 특히, 제단 위에 설치된 마루널은 가공방법(자귀질) 등으로 보아 최초 건립 시에 설치된 원형의 것으로 보인다. 내부 천정은 반자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붕 구조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현존하는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할 때, 5량가(5梁架)의 구조에 서까래(홀처마)를 걸고 그 위에 개관을 깔아 흙바르기를 한 후에 지붕재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벽체의 경우 내부는 회벽이며 외벽은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뽕칠로 마감하였으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보수, 수리 과정을 통해 다소의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외벽면에는 좌·우 벽체에만 기둥의 각 주간에 1개소씩의 창문(2짝 미서기창)을 설치하였다. 또한, 좌·우 벽체의 중앙부에는 외부로 돌출된 각 1개소의 부출입구를 두었는데 성당 관계자에 의하면, 제단을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한 출입구는 남성, 우측 출입구는 여성들이 출입하였다고 하나, 내부 공간에서는 남·여 구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장치는 없었다고 한다. 현재 지붕은 골슬레이트로 마감하였으나 당초 골합석에서 교체된 것이라고 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현존하는 사진자료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초 건립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면에 위치한 종탑의 경우 크게 세 번의 개·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건립 당시에는 본체의 내부 2열의 고주에 맞춰 1칸×1칸 규모의 목구조로 축조하였으나, 1963년경(추정, 관계자 증언) 목구조의 벽체(외벽) 위를 시멘트벽돌로 쌓았으며 그 후 1983년경(추정, 관계자 증언)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목조 종탑을 완전히 철거하고 시멘트벽돌을 이용하여 오늘날의 종탑 규모로 증·개축을 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다시 현재와 같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재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체 역시 종탑의 보수에 맞춰 1963년경 외벽 일부를 당초 비닐판벽에서 시멘트벽돌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함께 내부의 바닥 마루널 교체 및 중 2층 발코니 철거 등 다소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계속해서 성당으로 사용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한국천주교의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없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보존관리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향후에도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진산 성지성당이 위치한 일대가 한국천주교 역사에 최초 박해인 신해박해(1791)의 진원지가 된 곳이며, 또한 이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된 성당건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시기 목조건축으로 건립된 천주교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는 사례로는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제318호) 등이 있으며,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종교시설로서 진산 성지성당이 갖는 건축사적, 문화재적 가치 등이 결코 미흡하다고 할 수 없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전체적으로 최초 건립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당 내부 공간의 구성 방법(삼랑식의 목구조 등)과 남·녀의 동선 분리(측면 부출입 설치), 세부 장식(제단 목재 난간 등) 등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천주교 역사에 최초 박해인 신해박해(1791)의 진원지가 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등록 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당 내부에 설치된 제대 역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등록문화재(동산분야)로서의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진산 성지성당’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번호 근대 2017-03-21

21. 「아리움 사옥(구 서산부인과 병원)」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아리움 사옥(구 서산부인과 병원)」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리움 사옥(구 서산부인과 병원)」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아리움(대표 ○○○)
- (2) 대상문화재명 : 아리움 사옥(구 서산부인과 병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1-6번지
 - 소 유 자 : ○○○
 - 수량 및 면적 : 1동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74.92㎡
 - 건립시기 : 1967년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 (4)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원형 복원 후 아리움 사무공간 및 문화공간, 카페 등으로 활용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7. 3. 21.)>

- 문화재위원 ○○○
 - 대표적 현대 건축가의 작품으로서의 설계와 시공 초기의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 구조와 실내외의 조형성 측면에서 건축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 특히 건축 허가 당시의 도면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아울러 건축허가 통지서와 공사 시방서 등이 함께 보존되어 있어서 등록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 광복 후 한국현대건축이 부르탈리즘으로 대표되는 세계 건축계의 흐름과 맥을 함께하는 몇 안 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완성도와 함께 희소성이 매우 높은 건물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칭 : (현) 아리움 (구) 서산부인과병원
2. 용도 : (현) 사무실 (원) 산부인과병원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1-6번지(퇴계로 349번지 아리움 사옥)
4. 소유자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 준공일 : 1967년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574.92㎡
- 층수(높이) : 지하 1층, 지상 5층(옥탑층 포함)

6. 조사자 의견(2017. 3. 21.)

<문화재위원 ○○○>

- 1) 개요
- 문화재 등록이 신청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11-6번지의 건물은 1965년에
서 1966년 사이에 설계되었고 1967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가 김중업에 의해
설계되었음.
- 현재는 아리움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95년 9월부터 아리움 사옥의 소유주
인 정인훈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인쇄출판 관련된 일에 이용되고 있음
- 비교적 처음 건축된 구조와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현관 입구, 창호, 옥
탑층, 보일러실, 물탱크실 등 건축 구조의 변경이 있었음.
- 본 건축물의 위치는 광희문과 퇴계로를 사이에 하고 있으며 퇴계로와 을지로가
만나는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고 본 신청건축물 후면에는 구 성곽이 본 건물에 거
의 붙어서 위치하고 있음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축물 특징은 당시에 잠시 유행하였던 노출 콘크리트 구조의 야수주의적 건축양
식을 띠고 있으나 공간 계획이나 외관의 형태는 조형성이 극도로 강조되어 표현
된 건축임.
- 본 건축물은 원래 산부인과 병원으로 설계되었으며 작가 김중업은 평면 계획의
의도를 여성의 신체에서 끄집어 낸 것으로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실내외의
공간의 구성이 상당히 자유롭고 유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 건축 내부공간 계획과 외부 입면은 건축설계 당시에 유행하였던 노출 콘크리트
패턴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심미적 느낌을
주는 공간 계획과 구조 계획이 특징적이고 김중업 설계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
음.
- 내부공간의 분할은 원형의 벽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짧게 계획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그리고 소통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용이하

- 내부는 용도의 변화로 원모습이 소멸되었지만, 외관은 신축 당시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당시 국내건축기술과 건축기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
여주는 건축임
- 소유주가 보존하고 있는 도면은 동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 중 원 도면
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청사진의 속성
상 빠르게 탈색되어 원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
록 후 보존처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1965년 고 김중업님이 설계한 서산부인과 병원 건물로서, 산부인과 병원이
라는 특징을 살려 '어머니의 자궁'을 모티브로 평면계획을 하였음. 외관에
도 발코니를 곡선으로 처리하였고 발코니지지 구조체를 원형 강관을 사용
하여 곡선과 조화되는 구조체를 만들었음. 수직이동을 위한 구조체는 계단
이 아닌 경사로 하였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에 흙을 설치하는 방
식을 택하였음
- 김중업님의 설계특징이 잘 나타나는 건축물로 원형 또한 잘 보존되어 있
어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발코니부와 경사계단 원형 최상층의 지
붕은 원형을 보존해야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서울 구 서산부인과 병원」으로 함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도록 계획된 설계임.

- 병원 건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층간의 이동은 경사로(ramp)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계단이 없는 구조이며 경사로의 폭이 상당히 좁아 이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병원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 당시에 비교해 부분적인 구조 변경과 변형이 있었으며 특히 노출 콘크리트로 건축되었던 초기 건축물의 외벽이 수차례의 페인트 도색으로 변형되었음.
- 주요 변형,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건물 주 출입구의 계단 변경
 - ㉡ 지하의 보일러실 제거
 - ㉢ 옥상 물탱크실의 제거
 - ㉣ 옥상에 설치되었던 유리 원통형 차양판의 제거
 - ㉤ 외벽 노출 콘크리트에 수차례에 걸친 페인트 도색
 - ㉥ 건물 출입구와 창호 틀의 변경
 - ㉦ 기타 증축으로 인한 변경
- 노출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된 건축물로서 구조적 노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벽면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친 도색 과정으로 벽면 도색이 들떠 일어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 초기와는 다르게 증축, 확장된 부분(옥상, 지하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과 그 주위)의 훼손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물 후면의 에어컨디셔너의 전기 등의 배선 배관의 정리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문화재 보존관리여건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며 다만 본 건축물의 초기 당시와 현재 사이의 설비여건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관리계획이 필요.
- 주변 환경은 가깝게는 광희문과 한양 도성의 성곽이 지나가고 있음.
- 조금 멀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이 있으며 두타 등 대형 할인 매장과 관광호텔이 있고 과거의 역사 유적과 현대적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모서리에 본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음.
- 대표적인 한국 현대 건축가의 작품으로서 본 건축물의 건축적 의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광희문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를 연결하는 관광 축의 하나로서의 본 건물의 역할을 위한 주변 보행공간의 경관 계획과 녹지 계획이 필요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사업 주체가 제시한 활용 계획 내용들 가운데 일부 사항(건축물 주변 정비, 실내 일부 공간 철거 등)은 실현 여건과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대표적 현대 건축가의 작품으로서의 설계와 시공 초기의 형태가 비교적 온건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 노출 콘크리트 구조와 실내외의 조형성 측면에서 건축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 건축 허가 당시의 도면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아울러 건축허가통지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와 공사 시방서 등이 함께 보존되어 있어서 등록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산부인과 병원당시의 사진 자료의 수집을 통한 건축물의 기록 보관 관리가 필요함.
- 한양 도성 성곽에 붙여져서 건축된 본 건물과 성곽 복원 관계 문제를 조정하는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본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경우의 명칭은 아리움 사옥으로 제안하였으나 소유주나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문화재위원 ○○○>

1) 개요

- 현재 출판인쇄업체인 아리움이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다만, 일부에서 노출콘크리트의 일부가 탈락되어 있어, 콘크리트의 중성화와 철근의 부식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후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현 소유주가 20여 년 전 건물을 구입하면서,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청사진 도면을 잘 보존하고 있어, 원형 복원은 물론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소유주는 원형 복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원형 보원문제는 등록문화재 등록 후 논의할 문제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입체적인 자유곡선과 형태에 기초한 구서산부인과 의원은 출산과 생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산부인과위원의 정체성이 공간구성은 물론 형태언어로 잘 구현된 대표적인 예로 설명되는 건물이다.
- 신축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외관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매우 가는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는 돌출된 외부 발코니다. 신축된 지 50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 부분이 하자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발코니를 지탱하는 가는 기둥이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철제기둥(주철로 추정됨)으로 만들어진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물 사용 중 부분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소유주에 따르면 주출입구의 계단의 재료와 형상이 바뀌었으며, 주출입구는 물론 건물의 창호 대부분이 바뀌었다. 또한 구서산부인과위원의 중요한 의장적 특징을 구성하고 있는 계단실의 전면 창호는 신축 당시에는 메탈창호였으나, 현재는 알루미늄사쉬로 교체되었다.
- 옥상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옥탑의 실내에 설치된 물탱크는 제거되고, 현재 체력단련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 신축 당시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의 기능은 소멸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구 서산부인과위원은 내부와 천장이 별도의 마감 없이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4층의 주택만은 천장이 설치되었었다. 이로 인해 4층의 천장은 다른 층과 달리 거푸집의 쪽널에 거친 판재가 사용되어 당시 노출콘크리트의 질감이 남아있다. (비슷한 마감은 지하층에서도 확인된다)
- 특이한 것은 건물의 후면 일부가 타일로 마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신축 당시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업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실내 일부에서는 외벽을 타고 들어온 빗물과, 결로 등으로 곰팡이가 생겼으며, 경사로와 최상층 일부에서는 덧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다. 실내외에 덧칠해진 페인트가 원형을 훼손했다고 할 수 있으나, 몇 번씩 덧칠해진 페인트로 인해 철근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인트가 중성화를 늦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1960년대 노출콘크리트 보존을 위해서도 향후 정밀 조사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의원과 주거로 구성된 구서산부인과의원은 김중업의 조형언어가 철근콘크리트의 물성을 극대화하여 구현된 현대건축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부정형의 작은 필지를 김중업의 건축언어로 소화해낸 이 건물은 을지로의 동쪽 끝과 퇴계로의 동쪽 끝이 만나는 점점에 위치해 있어 서울외곽에서 도성 안으로 진입하는 경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도 이 건물의 후면에는 서울성곽의 하부가 잘 보존되어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 소유주가 건물의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당장 활용을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본 건물이 갖는 한국건축사적 가치를 감안할 때 공익적 차원의 활용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신축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노출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 철근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중성화의 방지 내지 중성화를 늦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철근콘크리트의 건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축물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현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작지만 기념비적인 입지와 형태로 인해, 랜드마크적 위상을 갖고 있는 건물이 주변의 부문별한 개발과 노점상의 난립으로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 등록문화재 등록 후 중구정과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서 부르탈리즘적 경향을 선도했던 김중업의 대표작으로 동시대 김수근의 부르탈리즘 건축과는 조형언어와 도시적 해석에서 차이를 갖는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광복 후 한국현대건축이 부르탈리즘으로 대표되는 세계 건축계의 흐름과 맥을 함께 하는 몇 안 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완성도와 함께 희소성이 매우 높은 건물이다.
- 내부는 용도의 변화로 원모습이 소멸되었지만, 외관은 신축 당시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당시 국내건축기술과 건축기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축이다.
- 소유주가 보존하고 있는 도면은 동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중 원 도면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청사진의 속성상 빠르게 탈색되어 원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후 보존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서산부인과 의원은 신축 당시부터 건축계가 주목했던 건물로, 건축가의 증언

은 물론 건축계의 많은 증언과 평가가 많은 문헌과 비문자료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소유주가 보관하고 있는 원 설계도면은 현 건물의 건축사적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건축물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 청사진 도면을 건물의 부속자료로 처리할지 건물과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추후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장조사에서 원 청사진을 검토한 의견으로는 원 설계도면은 기술과 예산의 한계로 원형을 구현하지 못한 현 건물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함께 등록이 마땅하지만 하나의 문화재로 처리하기 보다는 독립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아리움 사옥은 1965년 고 김중업님이 설계한 서산부인과 병원 건물이다. 김중업 작품의 특징인 곡선과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건물로 김중업의 대표적 건물이다. 현재는 아리움이라는 디자인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산부인과 병원이라는 특징을 살려 '어머니의 자궁'을 모티브로 평면계획을 하였다. 외관에도 발코니를 곡선으로 처리하였고 발코니지지 구조체를 원형 강관을 사용하여 곡선과 조화되는 구조체를 만들었다. 수직이동을 위한 구조체는 계단이 아닌 경사로 하였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에 홈을 설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건물의 디테일 처리에서도 건축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채용되어 있다. 곡선의 외관과 내부 공간의 합리성, 실용적인 디테일 등이 뛰어난 건축물이다. 외관이 독특하여 주변 건물과 차별화되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1층에 보조 출입구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외관은 전반적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내부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했으나 구조체를 변형하지는 않았으며 천장과 바닥, 벽체마감을 일부 변형시켰다. 내부는 마감공사가 되어 있어 노후도를 판단할 수 없었다. 외관은 마감재가 탈락되거나 들떠있다. 철근콘크리트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발코니부의 강관기둥과 상부 콘크리트와의 연결부위에서 부식 흔적이 보인다. 발코니의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난간벽은 일부 층에서 풍화가 관찰되었다. 최상층에 증축된 부분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정 시 이 부분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와 지자체의 보존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도로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과 인지성이 뛰어나다. 길 건너에 광희문과 천주교 성지교회와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아직 구체적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아리움 사옥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판단근거가 없음.

다. 기타사항

도면과 등기대장 등이 남아 있어 함께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김중업님이 설계한 건축물 중 원형이 보존된 건물이 많지 않으며 특히 서울지역 도심부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로 문화재로서 지정될 가치는 충분하며 다른 근현대기 건축물과 비교하여도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김중업님의 설계특징이 잘 나타나는 건축물로 원형 또한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발코니부와 경사계단 원형 최상층의 지붕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서산부인과 병원

22. 근현대문화유산 동산분야(민족종교, 교육) 문화재 등록 추진 계획

가. 보고사항

- 근대 동산(민족종교, 교육) 유물의 문화재 등록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근현대문화유산 동산분야(민족종교, 교육) 목록화 조사(2016년)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회의('17.2.28.)를 거쳐 선정된 동산분야 문화재 등록조사 대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문화재 등록조사 대상

1) 민족종교

- 민족종교 분야 목록화 141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3건 선정**
 - ①소태산 대종사 초상화, ②삼천대천세제도, ③동경대전 무자판, ④삼일신고, ⑤불교정전, ⑥대순전경 한글 초판본, ⑦대성경-교유문 상·하, ⑧평화문, ⑨대접주 도첩(송대화), ⑩해월문집, ⑪성경팔리, ⑫현무경(원본), ⑬청수기

2) 교 육

- 교육 분야 목록화 107건 중 **등록검토 대상 8건 선정**
 - ①국민소학독본, ②사민필지, ③유년필독, ④도화임본, ⑤여자독본, ⑥순정효황후회지, ⑦교수요목집, ⑧새교육 창간호

라. 향후 일정

- '17. 4월 등록 검토 대상 현지 조사 계획 수립
- '17. 4~10월 등록 검토 대상 현지 조사 실시
- '17. 9~12월 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등록

마. 문화재 등록기준

1) 민족종교 분야

유형	가치		등록화 세부기준안
미술, 문헌, 물품	역사적 가치	근대 한국의 주요 정치적·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유물	- 민족종교 유물 중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 - 당시 한국의 정치나 사회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유물 - 근·현대 한국인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유물
	종교적 가치	근대 한국의 종교사나 사상사와 관련된 유물	- 교조나 교단의 중요 인물과 관련된 유물 - 교단의 역사나 교리 또는 사상과 관련된 유물 - 교단의 의례와 관련된 유물
	문화적 가치	근대 한국의 중요 문화와 관련된 유물	- 당시의 근대문화운동과 관련된 유물 - 한국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지니고 있는 유물
	예술적 가치	전통과 근대적 양식을 보유 하고 있는 유물	- 전통적 예술양식과 종교미술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 -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유물
	자료적 가치	희소성, 원본성 또는 보존상태의 양호성을 지닌 유물	- 유일본과 같이 희소성이 있는 유물 - 초간본과 같이 원본성을 지닌 유물 - 여러 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문헌의 경우에는 전 권 (卷)이 구비되어 있는 유물

2) 교육 분야

유형	가치	등록화 세부기준안
교재	보전 가치	- 한국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 등 교재 중 한국교육의 변화와 발전과 관련 하여 역사적 가치와 대표성을 지닌 것 - 학교 교재 중 특수한 시대상 혹은 지역성을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여러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을 지닌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 - 시기별 또는 교육과정별 초간본, 유일본 등의 대표성과 희소성 등이 있는 것
	활용 가치	- 교재의 교육활용 가치와 문화활용 가치가 높은 것
교구	보전 가치	- 한국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된 교구 중 한국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역사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 학교 교구 중 특수한 시대상 및 지역성을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대표적인 것 - 한국 교육사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최초, 희소성, 대표성과 보존상태의 양호성이 있는 것
	활용 가치	- 교구의 교육활용 가치와 문화활용 가치가 높은 것
기록 물	보전 가치	- 한국 교육에서 국가와 지역의 교육 정책을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 - 학생, 교사 등 생활과 삶에서 교육의 상징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 중 대표적인 것 - 한국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서 한국 교육의 상징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 중 대표적인 것 -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의 학술적 연계 가치가 높은 것 중 대표적인 것 - 최초, 유일본 등의 희소성, 대표성과 보존상태의 양호성이 있는 것
	활용 가치	- 기록물의 교육활용 가치와 문화활용 가치가 높은 것
상징 조형 물	보전 가치	- 각급 학교에서 장식, 교훈 등의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된 조형물 중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 - 특정한 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대표적인 것 - 국가, 지역 공동체, 단체 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 - 최초, 유일본 등의 희소성과 보존상태의 양호성이 있는 것
	활용 가치	- 상징조형물의 교육활용 가치와 문화활용 가치가 높은 것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6명, 접수 6명

23. 제1차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분야별 세부 등록기준 마련 보고

가. 보고사항

- 건조물, 미술, 의생활, 서지, 음악, 산업·기술 등 6개 분야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근대문화유산 6개 분야의 연구위원(가칭)이 참여하여 세부 등록기준(안)을 마련('16. 9.~11.)하고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이 참여한 워크숍('16. 12.)을 통해 의견수렴 및 보완한 사항임

다. 향후계획

- '17. 4. 제2차 근대문화유산 분야별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가칭) 구성
 - * 분야(동산) : 교육, 민족종교 등 2개 분야
- '17. 8. 세부 등록기준(안) 마련
- '17. 9. 지자체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 '17. 10. 세부 등록기준(안) 보완 및 최종 확정
- '17. 11. 세부 등록기준 문화재위원회 보고
- '17. 12. 세부 등록기준 행정규칙 추진(* 1·2차 총 8개 분야)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6명, 접수 6명

붙임 :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분야별 세부 등록기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분야별 세부 등록기준

1. 기본원칙

- 개항기 이후 새로운 시대상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 역사문화 형성과 이후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산이어야 한다.
- 근대시기 유물 중에서 기념할 것과 기억할 것 모두를 등록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 공통사항

- **시간적 범위**
 - 상한을 개항기로 하고 하한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하되,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예외로 한다.
- **공간적 범위**
 -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대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대상 문화유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지역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또는 우리나라 법령이 미치거나 국내 귀속에 문제가 없는 유산으로 해외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포함한다.
- **내용적 범위**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 그 시대상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단순히 전통적인 것을 재현하거나 외래의 것을 모방한 것은 가급적 제외하며, 주요 인물이나 일가와 관련된 것은 단지 관련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과 관계된 경우이어야 한다.

3. 세부사항

① 기본요건

분야	내용
건조물	· 개항기 이후 시대상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조물로 재료, 구조, 양식, 공간, 기능, 등에서 근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미술	· 개항기 이후 새로운 미술 장르의 탄생 또는 새로운 미술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근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의생활	· 개항기 이후 새로운 복식 제도에 따라 도입되거나 변화된 유물로서 근대적 요소와 보편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서지	· 개항기 이후의 보편적 특성을 보여주며 근대적 요소를 포함하여 역사성, 학술성, 희귀성 등을 갖춘 서지류와 한글 자료
음악	· 개항기 이후 새로운 음악 장르의 탄생 또는 새로운 음악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근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산업·기술	· 개항기 이후 한국적·세계적 수준에서 이룩된 과학적 성취물 또는 근대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였거나 시대상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결과물

② 근대요소

분야	내용
건축물	· 벽돌, 시멘트, 목재, 석재, 금속, 유리 등에 의해 구성된 근대적 구조체와 마감부 · 벽돌조, 콘트리트조, 목조, 석조 등에 의해 구성된 근대적 구조, 공간, 형태 · 서양식, 일본식, 절충식, 모더니즘식 등에 의해 구성된 근대적 양식과 기법 · 근대기 시대상과 생활상을 반영하는 근대적 기능, 공간, 설비 등 · 근대기 시대상과 생활상을 수용하기 위해 변형되거나 진화되어 적용된 전통적 기법
미술	· 서구적 원근·투시법, 입체감, 시각적 사실 표현 및 서구 모더니즘 조형요소 등 전통 미술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식이나 전통미술을 새로운 시각방식으로 계승한 양식 · 현실적, 합리적, 이성 중심적 사고나 미의식이 반영되거나 근대사회의 생활, 문화 및 사건 등이 포함된 내용 · 유화, 수채화, 석고 등 근대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 재료 · 석고 주조기법, 새로운 필묵법 등 근대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 기법 · 전시, 유통, 교육, 출판, 미술단체 등 근대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미술 제도와 관련된 유물
의생활	· 근대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복식 (전통 한복 대신 서양복 도입) · 외래 복식의 수용과 접촉으로 생긴 변화 및 새로운 복식(마고자, 남자 한복 조끼, 조끼허리치마, 고름 없는 두루마기, 통치마 등) · 외래 문물의 전래로 인한 소재의 변화(기계적 생산의 광목, 인조견, 모직물 등) · 시대 변화에 따른 외래 종교의 복식과 자생 종교의 복식 · 정치·사회 변화에 따른 복식 변화(관혼상제 복식과 군복·제복 등 표준 간소복 등 포함) · 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계와 기구(신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 유물 포함) ·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교복
서지	· 외적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장정(제본)형식 수용 ·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저작자의 국적이나 사용 언어 무시 · 저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나 단체인 경우에 사용 언어 무시 · 상품매뉴얼은 해당제품과 패키지 또는 단독 취급 가능 · 특수한 시대상황나 문화계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도록, 사진첩 등은 가능한 수용
음악	· 봉건사회의 음악 향유 방식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향유 방식으로 변화 · 새로운 음악 장르(창가, 동요, 대중음악, 독립군가(광복군가), 예술가곡, 창작음악극 (뮤지컬, 악극, 창극, 오페라 등), 각종 창작 기악곡 등) · 서양음악의 수용과 접촉으로 생긴 변화 및 새로운 음악문화(창극, 신민요, 음악회장, 서양음악 연주회, 각종 연주단체(군악대, 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단 등), 각종 서양악기, 음악 전문가, 집단가창문화, 감상문화, 등) · 새로운 전달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문화 형성(녹음, 음반, 방송, 영화(영상), 인쇄(악보집, 신문, 잡지, 음악 서적 등)) · 학교의 출현과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으로 인한 새로운 음악문화 형성(음악 교과서 및 교재, 음악교육용 기자재, 음악교육 관련 각종 유물 및 유품 등)
산업·기술	· 근대기 과학기술 자체가 근대적 요소이며 관련 유물에 내포되어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 등이 그 내용

③ 가치평가요소

분야	내용
건축물	· 근대적 재료, 구조, 기법, 설비 등이 적용되고 기술적으로 독창성이 있거나 완성도가 높은 것 · 근대적 양식, 형태, 공간, 장식 등이 적용되고 예술적으로 독창성이 있거나 완성도가 높은 것 · 근대 건축물 역사 및 변천과정에서 대표성 또는 희소성을 가진 것 · 근대기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인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 · 건조물의 연혁확인이 가능하고 보존상태 및 활용여건이 양호한 것
미술	· 새로운 미술 장르, 양식, 문화의 출현 또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 근대 역사 및 미술사의 형성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 · 독창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으며, 그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것 · 회화, 조각, 판화 및 공예기법 중에서 근대 미술 및 공예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보존상태가 좋은 것
의생활	· 새로운 복식 양식, 형태, 문화의 출현 또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 시킨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 근대기 복식사 및 근·현대 역사의 형성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 · 근·현대 복식 변화 과정을 반영하며, 그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것 · 복식의 제작 방법(본뜨기, 바느질법) 등 근·현대 의생활 형성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보존상태가 좋은 것 · 제작 시기와 용도 등이 확실한 것
서지	· 인쇄물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초판본일 것 · 수고본을 포함한 필사물과 유묵은 저작자가 확인되는 작품일 것 · 유묵은 저작자의 대표적인 작품이거나 역사성을 갖춘 작품일 것 · 신문 잡지류는 가능한 창간호를 갖춘 것 ·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법령자료는 선별하고 기타 교육, 행정자료는 당대의 주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 · 일기, 전기류는 당대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의 것 · 낱장 문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단체)에서 발급한 것으로 시대성을 보여주는 것 · 군사 또는 방위자료는 근대이후 군경이 참여한 전쟁·전투사료나 기타자료인 것 · 기타 문화재 가치를 갖춘 내용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기록된 자료(원본성 확인)인 것
음악	· 새로운 음악 장르, 양식, 문화의 출현 또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 시킨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 근대음악사 및 근대 역사의 형성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 · 독창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으며, 그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것 · 녹음, 영상, 인쇄 등 새로운 전달매체 가운데 근대음악 형성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보존상태가 좋은 것
산업·기술	· 근대기 세계 과학계의 수준에 필적하는 유물일 것 · 근대기 세계 산업기술의 수준에 필적하는 유물일 것 · 근대기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유물일 것 ·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물일 것

④ 대상유산의 유형 및 범위

분야	내용
건조물	· 건조물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의 주요 기록물과 건설 도구, 장비 등
미술	· 미술(순수미술) 및 공예, 종교미술 등
의생활	· 복식(옷, 신, 장신구, 화장품 등 복식 품목 전체 포함) 및 의생활 관련 기구, 기계, 사진, 인쇄물 등
서지	·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모든 서지류(단, 저작자의 경우에는 역사, 문화, 종교, 예술, 체육, 기술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나 성과가 있는 자로 제한)
음악	· 인쇄물 및 악기, 음반(제작 기계 포함), 자필 악보(원고) · 기타(사진, 인쇄 관련 기기, 녹음관련 기기, 영상물 및 영상 관련기기, 회의록, 문서철, 각종 서류, 임명장, 졸업장, 유명음악가의 음악 관련 유품 및 유물, 노래비 등)
산업·기술	· 도서와 문서 및 산업·의료시설, 기기와 발명품 등

⑤ 다수 존재하는 유산의 고려사항

분야	내용
건조물	· 기존 등록문화재의 유사사례를 능가하는 대표성 또는 희소성을 갖춘 경우에 등록 가능 · 동일한 건축가의 작품은 대표성을 갖춘 작품으로 제한
미술	·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각에서 에디션이 있는 경우 원형(석고)를 우선시하되, 작가 생존시 청동으로 주조하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동상도 가능
의생활	·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복본이 있는 경우 원형 및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 제작과 착용 및 사용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 · 다만, 등록 후에 발견된 동일 유물은 기 등록문화재 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복수로 등록
서지	· 동일한 저작자의 작품은 대표성을 갖춘 작품으로 제한 · 복본이 많은 인쇄물은 일반적 자료와 역사적 중요한 자료로 분리하여 등록수량 제한 (단,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는 등록수량 제한을 완화) · 동일한 판본의 신규 등록은 기 등록문화재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제한
음악	·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복본이 있는 경우 원형 및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 제작과 착용 및 사용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 공공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우선 · 다만, 등록 후에 발견(발굴)된 동일 유물은 기 등록문화재 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복수로 지정
산업·기술	·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나 원형 및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 공공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과 당해유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위의 원칙으로 정할 수가 없거나 등록 후에 발견된 동일 유물은 기 등록문화재 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복수로 등록